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2016. 8

이봉주 · 김선숙 · 안재진 · 유조안

유민상 · 최창용 · 이주연 · 김윤지 · 박호준



Save the Children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 아동의 삶의 질 3 차년도 연구발표회

: 아동 삶의 질의 차이, 왜 발생하는가?

| 행사 개요 |

- 행사명: 한국 아동의 삶의 질 3 차년도 연구 발표회: 아동 삶의 질의 차이, 왜 발생하는가?
- 일시: 2016년 8월 12일(금) 오후 2시~5시 (총 3시간)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 프로그램 구성 |

사회: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

시간	내용	
14:00 ~ 14:10 (10 분)	환영사: 소근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축 사: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14:10 ~ 15:20 (1시간 10 분)	1부: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결과 발표	
	발표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1-3차년도 연구결과를 통해 알아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발표: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경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영숙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
황경완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장)		
15:20 ~ 15:30 (10 분)	휴식	
15:30 ~ 16:40 (1시간 10 분)	2부: 중학생의 행복감: FGI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	“왜 중학생이 되면 행복도가 낮아질까? 중학생의 시선에서 본 행복과 그 변화” 발표: 안재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좌장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토론	위지오 (중학교 2학년, 서울 거주)
		문건일 (중학교 1학년, 전북 거주)
		안정선 (서울 경희중학교 교사)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16:40 ~ 17:00 (20 분)	전체 질의응답 / 폐회	

전체 목차

<<연구요약>>.....	xi
1 부.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1
1. 전체 연구 개요.....	2
1) 연구 소개.....	2
2) 연구의 구성.....	2
2.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CWBI) 연구 개요.....	3
1) 연구의 초점.....	4
2)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의 구성.....	5
3.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2015: 종합 결과.....	9
1) CWBI 전체 순위.....	11
2) CWBI 2012-2015 순위 비교.....	13
4. 영역별 결과.....	15
1) 건강 영역.....	15
2) 주관적 행복감 영역.....	17
3) 아동의 관계 영역.....	19
4) 물질적 상황 영역.....	21
5) 위험과 안전 영역.....	23
6) 교육 영역.....	25
7) 주거환경 영역.....	27
8) 바람직한 인성 영역.....	29
9) 종합 결과: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31
5. 시도별 결과.....	33
1) 대구.....	33

2)	울산.....	35
3)	부산.....	37
4)	대전.....	39
5)	서울.....	41
6)	인천.....	43
7)	광주.....	45
8)	제주.....	47
9)	경기.....	49
10)	강원.....	51
11)	경북.....	53
12)	경남.....	55
13)	충남.....	57
14)	충북.....	59
15)	전남.....	61
16)	전북.....	63
6.	아동 삶의 질의 도시규모별 격차.....	65
7.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 사회지표와의 관계.....	66
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와의 관계.....	67
2)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과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와의 관계.....	68
3)	아동인구 천명당 아동학대 발생률과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와의 관계.....	69
4)	사회적 지표와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와의 관계 종합.....	70
8.	아동 삶의 질의 추이 변화: 핵심 지표들을 중심으로.....	71
1)	건강 영역: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72
2)	주관적 행복감 영역: 전반적인 행복감.....	72
3)	아동의 관계 영역: 부모·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73

4) 물질적 상황: 소유한 도서가 10 권 미만 아동 비율.....	73
5) 위험과 안전 영역: 학교폭력 피해(폭행·따돌림).....	74
6) 교육영역: 전반적 학업성취도 (주관적 학업성취도 평가).....	74
7) 거주환경 영역: 부모의 지역사회 안전 인식.....	75
8) 바람직한 인성 영역: 이타심 정도.....	75

2 부. 왜 중학생이 되면 행복도가 낮아질까?.....76

1. 초점집단면담(FGI) 개요.....	77
2. FGI 응답 결과.....	79
1) 행복의 주요영역.....	79
2) 중학교 진학 이후의 변화.....	86
3) 어른이 된 후의 자신의 행복에 대한 예상.....	100
4)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변화.....	105
3. 2 차년도 FGI 결과와의 비교: 초등학생(2014)과 중학생(2016)이 말하는 행복.....	110
1) 학업에 대한 부담감 증가 및 양가감정의 경험.....	110
2) 여가시간의 절대적 부족.....	112
3)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감소 및 관계의 질 하락.....	114
4) 친구 관계에 있어서의 역동 변화.....	115
5) 지역사회 환경 및 물질적 조건에 대한 중요도 감소.....	117
6) 성인기 행복에 대한 현실적 전망.....	118
4. FGI 소결.....	119

제 3 부. 아동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위한 제언..... 125

표 목차

표 1. 2015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시도별 순위.....	11
표 2. 2013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시도별 순위.....	11
표 3. 2012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시도별 순위.....	12
표 4.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의 광역시도 별 순위 변동.....	14
표 5.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의 광역시도 간 순위 변동(2015-2012)	14
표 6.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와 시도별 사회지표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66
표 7. 아동 삶의 질의 추이 변화: 핵심 지표	71
표 8. FGI 조사 개요.....	78
표 9. FGI 참여자의 지역별, 성별 구성.....	79
표 10. 행복의 주요영역 키워드	80
표 11. 중학교 진학 이후의 행복의 조건 변화 키워드	87
표 12. 어른이 된 후의 자신의 행복에 대한 예상	101

그림 목차

그림 1. 2012년-2015년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hild Well-Being Index) 결과 비교	13
그림 2. 2015 건강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15
그림 3. 2013 건강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15
그림 4. 2012 건강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16
그림 5. 2015 주관적 행복감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17
그림 6. 2013 주관적 행복감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17

그림 7. 2012 주관적 행복감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18
그림 8. 2015 아동의 관계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19
그림 9. 2013 아동의 관계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19
그림 10. 2012 아동의 관계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20
그림 11. 2015 물질적 상황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21
그림 12. 2013 물질적 상황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21
그림 13. 2012 물질적 상황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22
그림 14. 2015 위험과 안전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23
그림 15. 2013 위험과 안전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23
그림 16. 2012 위험과 안전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24
그림 17. 2015 교육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25
그림 18. 2013 교육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25
그림 19. 2012 교육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26
그림 20. 2015 주거환경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27
그림 21. 2013 주거환경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27
그림 22. 2012 주거환경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28
그림 23. 2015 바람직한 인성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29
그림 24. 2013 바람직한 인성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29
그림 25. 2012 바람직한 인성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30
그림 26. 2015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의 지역별 비교.....	31
그림 27. 2013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의 지역별 비교.....	31
그림 28. 2012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의 지역별 비교.....	32
그림 29. 2015 대구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33
그림 30. 2013 대구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33
그림 31. 2012 대구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34

그림 32. 2015 울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35
그림 33. 2013 울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35
그림 34. 2012 울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36
그림 35. 2015 부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37
그림 36. 2013 부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37
그림 37. 2012 부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38
그림 38. 2015 대전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39
그림 39. 2013 대전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39
그림 40. 2012 대전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40
그림 41. 2015 서울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41
그림 42. 2013 서울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41
그림 43. 2012 서울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42
그림 44. 2015 인천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43
그림 45. 2013 인천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43
그림 46. 2012 인천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44
그림 47. 2015 광주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45
그림 48. 2013 광주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45
그림 49. 2012 광주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46
그림 50. 2015 제주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47
그림 51. 2013 제주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47
그림 52. 2012 제주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48
그림 53. 2015 경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49
그림 54. 2013 경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49
그림 55. 2012 경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50
그림 56. 2015 강원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51

그림 57. 2013 강원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51
그림 58. 2012 강원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52
그림 59. 2015 경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53
그림 60. 2013 경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53
그림 61. 2012 경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54
그림 62. 2015 경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55
그림 63. 2013 경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55
그림 64. 2012 경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56
그림 65. 2015 충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57
그림 66. 2013 충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57
그림 67. 2012 충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58
그림 68. 2015 충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59
그림 69. 2013 충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59
그림 70. 2012 충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60
그림 71. 2015 전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61
그림 72. 2013 전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61
그림 73. 2012 전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62
그림 74. 2015 전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63
그림 75. 2013 전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63
그림 76. 2012 전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64
그림 77. 도시규모에 따른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의 차이 (2015)	65
그림 78.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의 관계	67
그림 79.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과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의 관계	68
그림 80. 아동인구 천명당 아동학대 발생률과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의 관계	69
그림 81.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추이(건강영역, 2012-2015)	72

그림 82.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 추이(주관적 행복감 영역, 2012-2015).....	72
그림 83. 부모-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변화 추이(아동의 관계 영역, 2012-2015)	73
그림 84. 소유한 도서가 10권 미만 비율 변화 추이(물질적 상황 영역, 2012-2015)	73
그림 85. 학교 폭력(폭행, 따돌림) 변화 추이(위험과 안전 영역, 2012-2015).....	74
그림 86. 전반적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교육 영역, 2012-2015).....	74
그림 87. 부모가 지역사회를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거주환경 영역, 2012-2015)	75
그림 88. 이타심의 변화 추이(바람직한 인성 영역, 2012-2015).....	75

<<연구요약>>

전체연구 개요

□ 이 연구는 한국 아동의 삶의 질(well-being)의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 행복도(happiness)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음.

- 이 연구는 Children's Worlds에서 수행하는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 ISCWeB)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 분석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 하에 서울대 이봉주 교수 연구팀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이 연구는 국내 비교와 국제 비교 연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됨. 2016년에는 국내 16개 시도의 비교 결과를 발표하고, 2018년에는 해외 30여개국과의 비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올해는 국내비교만 수록되어 있음.
- 이 연구 목적은 그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을 측정하여 보여주고, 국내·국제 비교를 통하여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아동 정책개발 및 옹호 활동을 진행하는 것임.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이 연구는 세 가지로 이루어짐. 첫째는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와 16개 시도간 격차 분석(1부), 둘째는 아동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한 본인들의 행복과 그 변화에 대한 분석(2부), 셋째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제언(3부)임.¹
- 1부에서 다루어지는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2013년,

¹ 아동 인터뷰는 6-8명의 아이들에게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함께 논의하는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방법을 통해 실시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본 원고의 2부에서 다루어짐.

2014년에 이어 3번째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를 발표하여 16개 시도의 격차를 알아봄.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의 3차례의 조사 결과들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 지수와 시도차원의 사회지표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시도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적으로 살펴봄.

- 2부에서 다루어지는 아동대상 인터뷰는 한국 아동들의 행복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음. 이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본인의 행복, 행복의 영향 요인과 저하되는 이유, 행복 증진을 위해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였음.
- 3부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아동이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

한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1-3 차 조사 분석을 통해 알아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 이 연구 결과는 2013년, 2014년에 발표된 *한국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의 후속 연구로, 아동의 삶의 질 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16개 시도 아동들의 삶의 질을 비교하여 한국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음.^{2, 3}

² 1차 연구는 2012-2013년, 2차 연구는 2013-2015년에 수행되었고, 3차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현재 4차 연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이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임.

³ 1차 연구와 2차 연구 결과는 다음의 보고서 참조

이봉주·김선숙·안재진·Joan Yoo·유민상·최창용·이연정. (2013). 2012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

이봉주·김선숙·안재진·Joan Yoo·유민상·최창용·이주연·고은혜 (2015). 2014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

-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hild Well-Being Index, 이하 CWBI)는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된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의 8개 영역(domains), 46개 지표(indicators)들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임.

- 분석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의 만 8세(초등학교 3학년), 만 10세(초등학교 5학년), 만 12세(중학교 1학년) 학생 및 그 학부모로 선정하였고,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음. 조사 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초등학교 3학년 2,799명, 초등학교 5학년 2,819명, 중학교 1학년 3,067명 등 총 8,685명이 조사되었음.

- 이 연구의 주된 질문은 다음과 같음. 첫째, 아동들의 삶의 질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가? 둘째, 지역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과를 정리하였음.
 - 첫째, 한국 아동들의 삶의 질 수준을 다면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8개 영역, 46개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46개 지표를 단일한 수치로 집약한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를 구성하여 16개 광역시도로 비교하였음(단, 세종시는 제외).
 - 둘째, 16개 시도 간 아동 삶의 질의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16개 시도의 사회지표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셋째, 아동 삶의 질이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8개 영역의 핵심 지표의 1-2-3차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음.

□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를 통해 16개 광역시도를 비교한 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아동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 16개 시도 비교에서 대도시 지역 아동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규모 별 비교에서도 대도시 지역의 아동 삶의 질이 중소도시, 농어촌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둘째, 지역 간 격차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1차부터 3차 연구까지 순위 변동이 발생했으나 대부분 상위-중위-하위의 틀 안에서 순위 변동이 이루어짐.
- 셋째, 지역 간 격차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8개 하위 영역의 순위는 높은 연관성이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다차원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아동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

-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의 16개 시도 분석 결과 대구, 울산, 부산, 대전, 서울, 인천,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음. 반면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의 지역은 하위권에 위치해 있었음 (p.11 표 1 참조).
- 도시 규모별 분석에서도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삶의 질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p.65 그림 77 참조)

□ 지역 간 격차의 지속성

- 그동안 1차, 2차 연구를 통해서도 대도시 지역 아동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남 (p.11 표 2, 표 3 참조).
- 이번 조사에서 지역 간 순위변동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상위권-중위권-하위권의 틀 내에서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p. 13 그림 1 참조).
- 충북은 예외적인 케이스로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움직임. 충북(2012년 2위, 2015년

14위)의 예는 실제 아동들의 삶의 질이 급락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북 지역 내의 삶의 질의 편차가 크게 존재할 가능성도 있음.

□ 지역 간 격차의 다차원성

- 아동 삶의 질(well-being)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연구는 아동의 삶의 질을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하여 파악하고 있음.
- 아동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의 양상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하위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즉, 성과가 좋은 지역은 8개 영역 모두에서 높은 순위가 나타나고, 성과가 좋지 않은 지역은 8개 영역 모두에서 낮은 순위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아동 삶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다차원적인 격차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 16개 시도의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와의 관계

□ 16개 시도별 아동의 삶의 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사회복지 예산비중, 아동학대 사례 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에 따라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의 아동인구 천명당 아동학대 발생률과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 간에는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5년까지 계속해서 아동의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 지역들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고(전남, 전북), 복지예산비중 역시 30% 미만(전북, 전

남, 충북, 충남), 아동학대 신고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많이 나타남(전북, 전남, 충북)

아동 삶의 질의 추이 변화: 핵심 지표들을 중심으로

- 한국 아동들의 삶의 질 수준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석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CWBI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8개 하위 영역에서 각각 핵심 지표를 선정하여 비교하였음. 그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초기 수준이 유지되거나, 거의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건강, 위험과 안전, 교육 등의 영역은 초기 값이 유지되는 경향.
 - 주관적 행복감, 관계, 거주환경, 바람직한 인성 영역은 약간의 향상이 있었으나 미미한 수준임.
 - 물질적 상황 영역의 소유한 도서가 10권 미만의 비율은 증가되어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왜 중학생이 되면 왜 행복도가 낮아질까? 중학생의 시선에서 본 행복과 그 변화 (FGI)

- 중학교 진학에 따라 아동들의 행복도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양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한국의 중학생 아동들이 행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탐색하기 위해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실시.
 - 권역에서 선정된 총 6개의 학교(서울, 경기, 대구, 전남, 강원, 충남 소재)에 재학 중인 46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연구참여대상자임.
 - 2016년 2월에 연구진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각 학교당 평균 6~8명에게 1시간 동안 비구조화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집단면담 방식으로 FGI가 실

시됨.

-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조건과 행복하지 않은 조건이 무엇인지, 이러한 조건들이 중학교 진학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는지, 성인기에 더 행복해질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지, 그리고 현재와 성인기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함.

□ 중학교 진학 이후의 행복한 조건의 변화

- 시간사용에 있어서의 긍정적 변화는 초등학교 때보다 계획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임. 반면 부정적 변화는 자유로운 시간 사용이 불가하여 여가시간이 줄어든 것임(예: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것을, 무언가를 찾을 수가 없는,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 어지는 거.")
- 관계에서 있어서의 긍정적 변화는 스스로 결정권이 생긴다는 것임(예: "저도 엄마가 좀 더 날 약간 어른으로 봐주고, 초등학교 때보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간섭 안 하려 고 하고. 그런 게 초등학교 때보다 좋은 것 같아요. 사소한 걸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반면, 고민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부정적 변화로 이야기했음(예: "초등학 생 때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어리광 같은 것도 막 부릴 수 있고 그런데, '중학생 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막 그런 거").
-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점을 긍정적 변화로 꼽음(예: "이제 좀... 제가 뭐 해보겠다고 하면, 고민하시고 "아~ 한 번 해봐라." 막 이럴 때도 계시고~ 초딩 때는 무조건 "안돼, 엄마랑 같이 해." 막 이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한편,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에 따라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심화된다는 점 등 다양한 부정적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함(예: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가족이랑 행복했던 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둘 다 줄어든 것 같아요. 가족이랑 시간이 더 갈수록 줄고, 친구랑 있는 그런 시간이 느니까. 행복했던 것도 줄어드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것도 줄고 이

렇게").

-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더 친밀해진 또래관계를 긍정적 변화로 여기고 있었음. 반면, 오히려 예전보다 또래관계가 복잡하고 미묘해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함(예: "뭔가 친구들 사이에 진입장벽 같은 게 조금 생겼다. 초등학교 때 친하던 애들끼리, 같이 끼리끼리 뭉쳐서").
- 학교에 관련되어서는 자유학기제라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시설이 더 좋아서, 아는 선생님들이 많아져서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예: "학교 자체는 초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약간 더 마주치는 쌤들도 많아지고 약간 활동 자체도 초등학교 때보다 좀 더 그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예를 들면 요리 같은 거하면 불 같은 거 아예 안 쓰고 그런 것만 했는데, 이제 중학교 되니까 조금 더 강화돼서 그런 거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한편, 엄격해진 규정들이나 달라진 교사 및 선배와의 관계 때문에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가 더 힘들다고 답하는 경우도 많았음(예: "초등학교 때랑은 다르게 규칙이 생겨나니까. 뭔가 좀 자유롭다기보다는 틀에 갇혀서 산다고 해야 하나...").
- 학업에 관해서는 소수 의견이지만 공부를 기회의 확장으로 여기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아동도 있었음. 그러나 대부분은 주변 어른이나 선생님, 부모님 등 외부에서 오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학업 부담감,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고 거기에 투자해야 할 시간이 늘어진다는 부정적 변화에 대해서 주로 언급함(예: "몸은 좀 더 편한데 정신적으로 막 어른들 만나면, 아, 너 이제 중학생이지? 공부 열심히 해. 그냥 덕담처럼 해주시는 말인데 막 진짜 공부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해야 하나?")
- 외모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외모를 신경 쓰게 되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이 화장이나 옷 등 유행을 강요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음(예: "외모가 제일 스트레스는 아닌데 1등이 성적이라면 2등은 외모인 거 같아요.", "저는 화장을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애들이 거의 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분위기 같은 게 있는 거 같아요.")

□ 어른이 된 후의 행복에 대한 예상

- 아동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었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음(예: "지금 제 나이로는 못하는 일들을 성인이 되면 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여행").
-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인이 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해질 것이라 대답했음(예: "저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아이가 생기니까 그래도 아이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줬던 것을 다시... 되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뿌듯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혼을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며 돈이 없어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담감에 어른이 되면 덜 행복할 것 같다고 이야기함(예: "아, 엄마가 저희 클 때까지 대학교 끝날 때까지 취직할 때까지 우리에게 뒷바라지? 라고 하잖아요, 그걸 해주는데 그럼 우리가 커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엄마아빠한테 다시 이렇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을 그렇게 잘 벌지 못하는데 내가 생활하는데도 바쁘면 엄마아빠한테 설날에는 용돈도 못 드리고 막 이러는 게 좀 많이 속상할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 일과 학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이 되었을 때 원하는 직업과 성공을 성취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응답함(예: "성공한다면 행복하고 아직 출발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 같아요."). 하지만 어른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취업에 대한 걱정이 될 것이고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며, 더 좋은 직장을 가거나 성공하기 위해 힘들 것이라 예상하기도 함(예: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이 있는데 만약에 성적에 따라서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고 나쁜 직장에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안 좋은 직장에 가면 뭔가 좀 우울하게 지낼 거 같아요.", "지금도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게 뭐 나중에 어른 돼서는 취직할 때도 힘들고 또 뭐냐, 그 만약에 취직을 해도

만일 낮은 등급이면 올라가려고 계속 더 노력해야 되고 그니까 똑같이 더 비슷할 거 같아요.”).

-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이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유롭게 금전을 사용할 수 있어 행복해질 것이라 응답함. 하지만 그만큼 돈을 벌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함(예: “그 요즘에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같은 게 나오잖아요. (웃음) 그래가지고 그거 약간 말할 거 같아요. 너는 뭐, 금수저야 은수저야 흙수저야. 이렇게 말하면 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이렇게 할 거 같기도 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 또한 아동들은 성인이 되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커지고 사회적 의무를 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음(예: “어, 일단은 대학교를 가게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야 되고 갔다 오면 직장잡고 자취하면 세금 내야 하고 의무가 많아지잖아요, 져야 할 의무가.”)

□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변화

- 아동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중학교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학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진로를 인정해주며, 부모님이 형제자매를, 선생님이 성적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주어야 하고, 자유시간 및 여가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성인기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능력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취업난을 극복하는 등 사회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함.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스스로 노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공부를 못하는 만큼 다른 길로 성공할 수 있도록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기도 함. 이는 중학생들이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치열한 경쟁과 경쟁에서 탈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정책적 제언

- 이 연구진은 한국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진로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
 - 아동들의 여가 및 자유시간을 보장해 줘야 함
 -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양적 증가와 가족관계의 질적 변화가 필요
 - 지역 간 아동 삶의 질과 행복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른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
 - 농어촌 지역 거주 아동들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새로운 대안 마련이 시급함
 - 아동 삶의 질과 행복도 증진을 위한 방안은 아동의 시각과 목소리에 기반해야 함

1부.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 1-3차 연구결과를 통해 알아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발표: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전체 연구 개요

1) 연구 소개

□ 이 연구는 국제적인 아동지표 학자들의 모임인 Children's Worlds에서 수행하는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 (이하, ISCWeB)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임. ISCWeB 연구는 현재 20여개국에서 동시에 수행 중에 있으며,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연구팀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사와 분석을 진행 중에 있음.

□ 아동권리옹호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연구의 한국 파트너로 5년 간 이 연구를 후원하고 있음.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 아동들의 삶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한국 아동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 정책개발 및 옹호 활동을 진행 중임.

2) 연구의 구성

□ 이 연구는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음: 첫째는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와 16개 시도간 격차 분석(1부), 둘째는 아동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한 본인들의 행복과 그 변화에 대한 분석(2부), 셋째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제언(3부)임.

- 1부에서 다루어지는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2013년, 2014년에 이어 3번째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를 발표하여 16개 시도의 격차를 알아봄.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의 3차례의 조사 결과들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 지수와 시도차원의 사회지표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시도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적으로 살펴봄.

- 2부에서 다루어지는 아동대상 인터뷰는 한국 아동들의 행복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음. 이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본인의 행복, 행복의 영향 요인과 저하되는 이유, 행복 증진을 위해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였음.
- 3부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아동이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

2.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CWBI) 연구 개요

- 이 연구 결과는 2013년, 2014년에 발표된 *한국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의 후속 연구로, 아동의 삶의 질 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16개 시도 아동들의 삶의 질을 비교하여 한국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음.⁴
-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hild Well-Being Index, 이하 CWBI)는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된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의 8개 영역(domains), 46개 지표(indicators)들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임.
- 분석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의 만 8세(초등학교 3학년), 만 10세(초등학교 5학년), 만 12세(중학교 1학년) 학생 및 그 학부모로 선정하였고,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설문조사에 응답하

⁴ 1차 연구는 2012-2013년, 2차 연구는 2013-2015년에 수행되었고, 3차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현재 4차 연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이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임.

는 방식으로 조사되었음. 조사 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초등학교 3학년 2,799명, 초등학교 5학년 2,819명, 중학교 1학년 3067명 등 총 8,685명이 조사되었음.

□ 분석 방법 및 지표 별 결과는 추후에 발간될 보고서에서 다를 것이며, 이 자료에서는 간략한 지수(index) 결과를 다를 것임.

1) 연구의 초점

□ 한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연구는 2012년 1차조사, 2013년 2차조사, 2015년 3차조사를 시행하였음. 이 연구는 3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어떠한지 밝히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이 연구의 주된 질문은 다음과 같음. 첫째, 아동들의 삶의 질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가? 둘째, 지역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과를 정리하였음.

- 첫째, 한국 아동들의 삶의 질 수준을 다면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8개 영역, 46개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46개 지표를 단일한 수치로 집약한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를 구성하여 16개 광역시도로 비교하였음(단, 세종시는 제외).
- 둘째, 16개 시도 간 아동 삶의 질의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16개 시도의 사회지표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셋째, 아동 삶의 질이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8개 영역의 핵심 지표의 1-2-3차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음.

2)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의 구성

(1) 종합지수의 구성 영역 및 지표

□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hild Well-Being Composite Index: CWBI)를 구성하고 있는 8개 영역
46개 지표는 다음과 같음.

1) 건강(Health)

객관적 건강(objective health)	- 건강문제로 결석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 - 아동의 만성질환 유병률*
주관적 건강(subjective health)	- <u>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u>
건강 행동(health behavior)	- 주4일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아동의 비율 - 세 끼의 식사를 가정에서 제공받는 아동의 비율 - 가정에서 신선한 과일을 제공받는 아동의 비율
정신 건강(mental health)	- 우울(내재화 문제행동)*

2)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행복감 (personal well-being)	- <u>전반적인 행복감</u> - 삶의 만족도 - 나에 대한 만족도
가족 만족도(family well-being)	- 가족 만족도
학교 만족도(school well-being)	- 학업 스트레스* - 학교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 학교 만족도
지역사회 만족도(community well-being)	- 지역사회 만족도

3) 아동의 관계(Relationships)

부모 자녀 관계(parent-child relationships)	- <u>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u>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s)	- <u>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u> - 또래관계

4) 물질적 상황(Material situation)

물질적 결핍(deprivation)	- 물질적 결핍을 경험하는 아동의 비율* - 아동의 물질적 결핍* - 소유하고 싶은 재화의 결핍* - <u>소유한 도서가 10권 미만인 아동의 비율*</u> - 가구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아동의 걱정*
빈곤(poverty)	- 차상위 이하 빈곤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
경제활동 미참여(worklessness)	- 부모의 주 30시간 이상 경제활동 미참가율*

5) 위험과 안전(Risk and safety)

폭력 행동(violent behavior)	- <u>학교폭력 피해(때림) 아동의 비율*</u> - <u>학교폭력 피해(따돌림) 아동의 비율*</u>
위험 행동(risk behavior)	- 지위비행 빈도* - 범죄비행 빈도*

6) 교육(Education)

성취(achievement)	- <u>전반적 학업성취도</u> - 국어 학업성취도 - 수학 학업성취도 - 영어 학업성취도
-----------------	--

참여(particip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에서 정규 과목 외 다른 과목 배우기 - 학교 밖에서 재미를 위한 책 읽기 - 학교 밖에서 숙제하기
-------------------	---

7) 주거환경(Housing and environment)

주거과밀(overcrowding)	- 과밀한 주거지에 사는 아동의 비율*
거주지 불안정(at risk housing)	- 불안정한 거주지에 사는 아동의 비율*
지역사회 환경(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방치되는 아동의 비율* - 부모의 이웃 간의 신뢰관계 인식 - <u>부모의 지역사회 안전 인식</u>

8) 바람직한 인성(Flourishing)

바람직한 인성(flourish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이타심</u> - 관용 - 공감 - 사회적 능력 -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
----------------------	---

주1. 별표(*) 표시된 문항은 역코딩된 것으로, 지수계산 시 높은 점수가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변환한 것임

2. 이탤릭 체에 밑줄을 그은 변수들은 해당 영역의 핵심변수(key indicator)로 추후 추이 비교에서 사용되었음.

(2)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의 산출방법

□ 개요

-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는 시도별 총량 데이터(aggregate data)를 사용하였음. 지표 연구에서 활용한 아동 개인 단위의 미시데이터(micro data)를 시도 단위의 거시데이터(macro data)로 변환.

- 거시데이터는 개인 데이터의 시도별 평균을 구하여 별도의 데이터 셋을 구성. 분석에 포함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6개 시도임.

□ 8개 영역과 46개 지표의 합산 방법

- 지수(index) 작업은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의 8개 영역을 구성하는 개별 지표들의 평균을 구한 후, 다시 이 영역 단위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이를 통해 16개 시도의 8개 영역 점수와 종합지수 점수를 산출.

□ 8개 영역과 46개 지표의 표준화 방법

- 각 지표들은 서로 다른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상호 비교가 어려움. 따라서 표준화의 필요성 존재.
- 본 분석에서는 표준화 점수(z-score)를 활용하여 분석.
- 이를 위하여 부정적 지표들을 긍정적 지표로 변환시켜 주는 작업을 하여 모든 지표에서 큰 값이 긍정적 상황을 나타낼 수 있게 조치하였음.
- 각 영역의 점수는 각 영역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평균값이며, 종합 지수의 점수는 8개 영역 점수의 평균값임. 본 연구에서 100점은 평균값을 의미함. 표준편차는 10.

□ 수치의 해석

- 본 분석의 표준화 점수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0, 표준편차 1의 점수를 평균 100, 표준편차 10인 점수로 변환.
- 본 연구의 결과에서 100은 16개 시도의 전국 평균을 의미하며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이고, 100보다 작으면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을 의미.

3.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2015: 종합 결과

-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를 통해 16개 광역시도를 비교한 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아동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 16개 시도 비교에서 대도시 지역 아동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규모 별 비교에서도 대도시 지역의 아동 삶의 질이 중소도시, 농어촌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둘째, 지역 간 격차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1차부터 3차 연구까지 순위 변동이 발생했으나 대부분 상위-중위-하위의 틀 안에서 순위 변동이 이루어짐.
 - 셋째, 지역 간 격차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8개 하위 영역의 순위는 높은 연관성이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다차원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아동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
 -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의 16개 시도 분석 결과 대구, 울산, 부산, 대전, 서울, 인천,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음. 반면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의 지역은 하위권에 위치해 있었음 (p.11 표 1 참조).
 - 도시 규모별 분석에서도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삶의 질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p.65 그림 77 참조)

- 지역 간 격차의 지속성
 - 그동안 1차, 2차 연구를 통해서도 대도시 지역 아동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남 (p.11 표 2, 표 3 참조).
 - 이번 조사에서 지역 간 순위변동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상위권-중위권-하위권의 틀 내에서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p. 13 그림 1 참조). 예를 들어, 2012년에 비

해 순위가 많이 상승한 4개 지역은 대구, 경북, 울산, 제주 등임. 이 중 대구(2012년 8위, 2015년 1위)와 울산(2012년 6위, 2015년 2위)은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이동하였고, 이는 대도시 안에서의 순위 변동이라 할 수 있음. 경북(2012년 16위, 2012년 11위)과 제주(2012년 12위, 2015년 8위)는 하위권에서 중하위권이나 중위권으로 변동하였고, 이는 도 지역 안에서의 순위 변동이라 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순위가 비교적 많이 하락한 경남(2012년 7위, 2015년 12위)은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의 이동이며, 이 역시 도 지역 안에서의 순위 이동이라 볼 수 있음 (p.14 표 4, 표 5 참조).

- 충북은 예외적인 케이스로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움직임. 충북(2012년 2위, 2015년 14위)의 예는 실제 아동들의 삶의 질이 급락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북 지역 내의 삶의 질의 편차가 크게 존재할 가능성도 있음. 이는 조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으며, 조사가 반복될수록 평균적인 아동의 현실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우리가 향후 광역 시도 차원이 아니라, 광역 시도 내의 기초자치 단체 수준에서의 비교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과제를 던져주는 결과임

□ 지역 간 격차의 다차원성

- 아동 삶의 질(well-being)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연구는 아동의 삶의 질을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하여 파악하고 있음.
- 아동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의 양상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하위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즉, 성과가 좋은 지역은 8개 영역 모두에서 높은 순위가 나타나고, 성과가 좋지 않은 지역은 8개 영역 모두에서 낮은 순위가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전체 순위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대구, 부산, 대전, 서울 등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위권과 중위권을 기록. 반면 전체 순위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하위권과 중위권을 기록함.
- 이는 아동 삶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다차원적인 격차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1)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전체 순위

표 1. 2015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시도별 순위

순위	지역	Overall Index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1	대구	123.23	1	1	1	1	1	1	1	1
2	울산	110.52	6	3	2	2	12	7	3	2
3	부산	107.86	3	2	3	8	6	6	5	3
4	대전	106.69	7	7	8	3	3	3	8	6
5	서울	106.31	4	8	4	4	8	2	9	4
6	인천	105.41	8	4	6	6	4	9	4	5
7	광주	104.09	11	5	5	5	2	5	11	7
8	제주	99.81	14	6	7	13	13	4	7	8
9	경기	97.12	10	10	9	9	10	10	10	9
10	강원	96.21	2	9	11	10	5	13	16	10
11	경북	94.73	9	12	13	7	9	12	13	12
12	경남	94.15	13	11	14	12	11	11	6	14
13	충남	92.69	16	14	12	11	14	8	14	11
14	충북	89.24	5	13	15	14	7	16	15	15
15	전남	88.24	12	15	10	16	16	15	2	13
16	전북	83.71	15	16	16	15	15	14	12	16

표 2. 2013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시도별 순위

순위	지역	Overall Index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1	대전	111.59	5	3	2	1	1	1	2	1
2	대구	110.18	1	1	1	6	2	4	3	2
3	부산	105.46	2	4	4	2	6	5	5	3
4	서울	104.54	4	6	3	3	13	2	8	4
5	울산	102.43	10	7	8	4	4	3	7	6
6	인천	101.12	15	5	5	12	9	7	9	5
7	경기	100.14	9	10	9	7	3	10	11	8
8	충북	99.30	8	2	6	15	5	16	10	9
9	경북	99.20	14	8	10	10	10	6	12	7
10	경남	98.29	12	11	11	9	11	11	4	11
11	강원	98.28	6	9	7	8	14	15	15	10
12	광주	96.23	11	12	12	5	8	8	16	14
13	전북	94.58	3	16	16	11	7	14	14	13
14	전남	93.13	13	14	15	14	16	13	1	15
15	제주	92.78	7	13	14	16	15	9	13	12
16	충남	92.75	16	15	13	13	12	12	6	16

표 3. 2012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시도별 순위

순위	지역	Overall Index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1	대전	108.30	1	4	1	2	1	2	8	2
2	충북	105.93	7	1	4	12	2	1	10	3
3	서울	105.87	4	5	2	3	3	5	15	1
4	부산	105.34	3	2	3	8	9	6	3	4
5	인천	102.01	8	3	9	5	8	4	9	9
6	울산	101.84	11	7	7	1	10	10	5	10
7	경남	101.31	6	13	5	7	7	9	4	6
8	대구	101.14	2	6	6	10	6	8	11	11
9	경기	100.51	9	8	8	6	4	11	12	5
10	광주	98.79	10	10	10	9	16	3	7	8
11	강원	97.99	14	15	11	4	5	13	2	13
12	제주	97.96	5	12	12	16	13	7	6	7
13	충남	94.98	12	11	13	14	12	16	14	12
14	전남	94.94	15	9	14	13	15	14	1	14
15	전북	91.84	16	16	16	11	11	12	13	16
16	경북	91.25	13	14	15	15	14	15	16	15

2)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2012-2015 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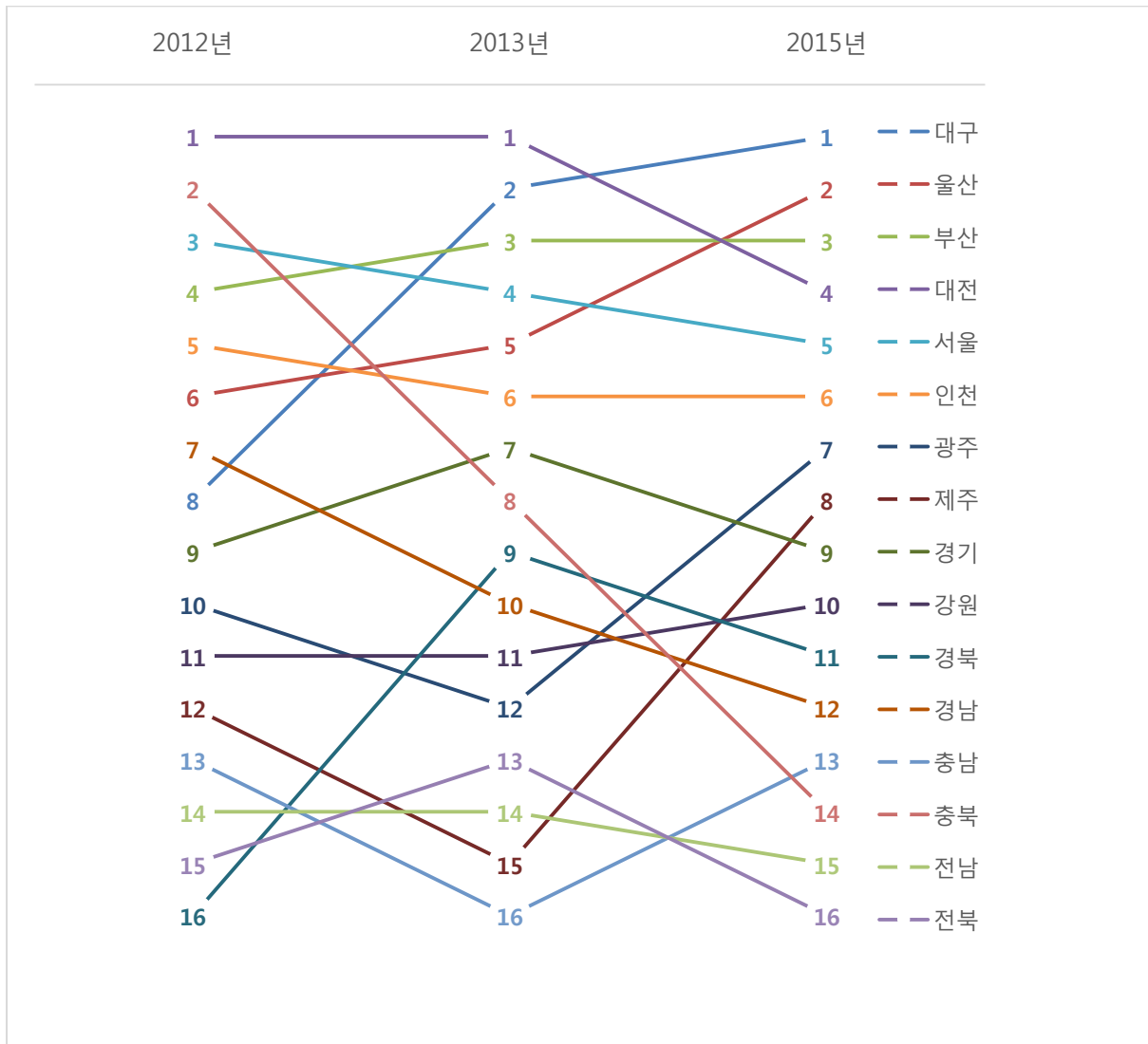


그림 1. 2012년-2015년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hild Well-Being Index) 결과 비교

*각 지역의 범례표시는 2015년을 기준으로 배열되어 있음.

표 4.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의 광역시도 별 순위 변동

지역	1차(2012)	2차(2013)	3차(2015)	1-3차 순위변동
서울	3	4	5	-2
부산	4	3	3	1
대구	8	2	1	7
인천	5	6	6	-1
광주	10	12	7	3
대전	1	1	4	-3
울산	6	5	2	4
경기	9	7	9	0
강원	11	11	10	1
충북	2	8	14	-12
충남	13	16	13	0
전북	15	13	16	-1
전남	14	14	15	-1
경북	16	9	11	5
경남	7	10	12	-5
제주	12	15	8	4

표 5.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의 광역시도 간 순위 변동(2015-2012)

변화정도	지역(괄호 안은 1-3차 순위변화)
상승	대구(▲7), 경북(▲5), 울산(▲4), 제주(▲4)
유지 혹은 약간의 변화	광주(▲3), 부산(▲1), 강원(▲1), 경기(-), 충북(-), 충남(-) 대전(▼3), 서울(▼2), 인천(▼1), 전북(▼1), 전남(▼1)
하락	경남(▼5), 충북(▼12)

4. 영역별 결과

1) 건강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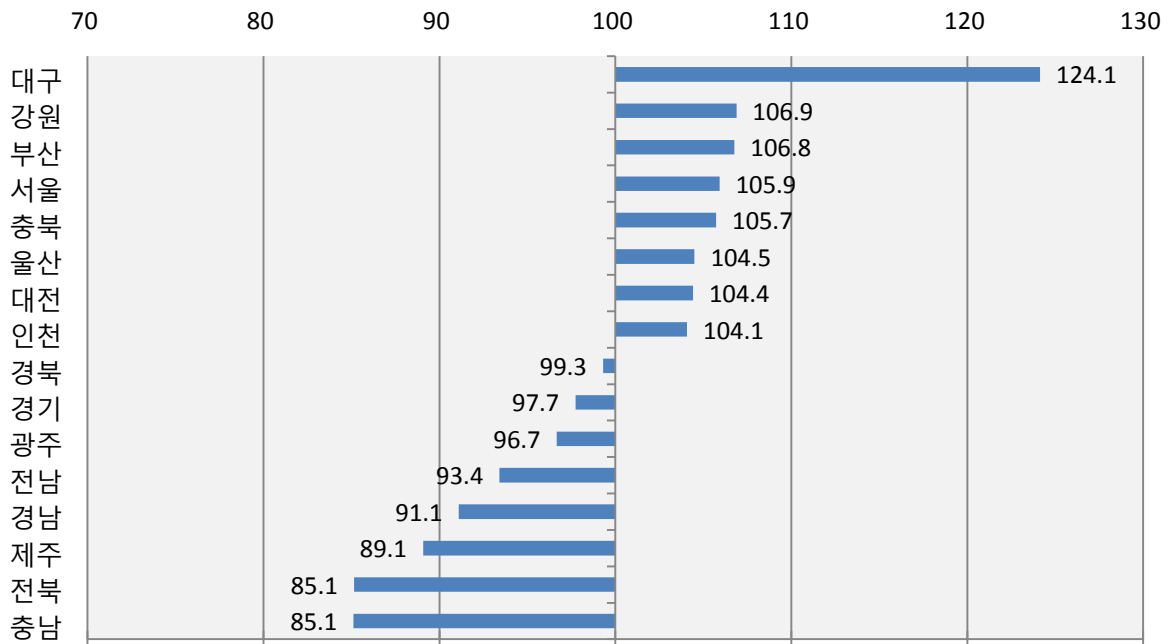


그림 2. 2015 건강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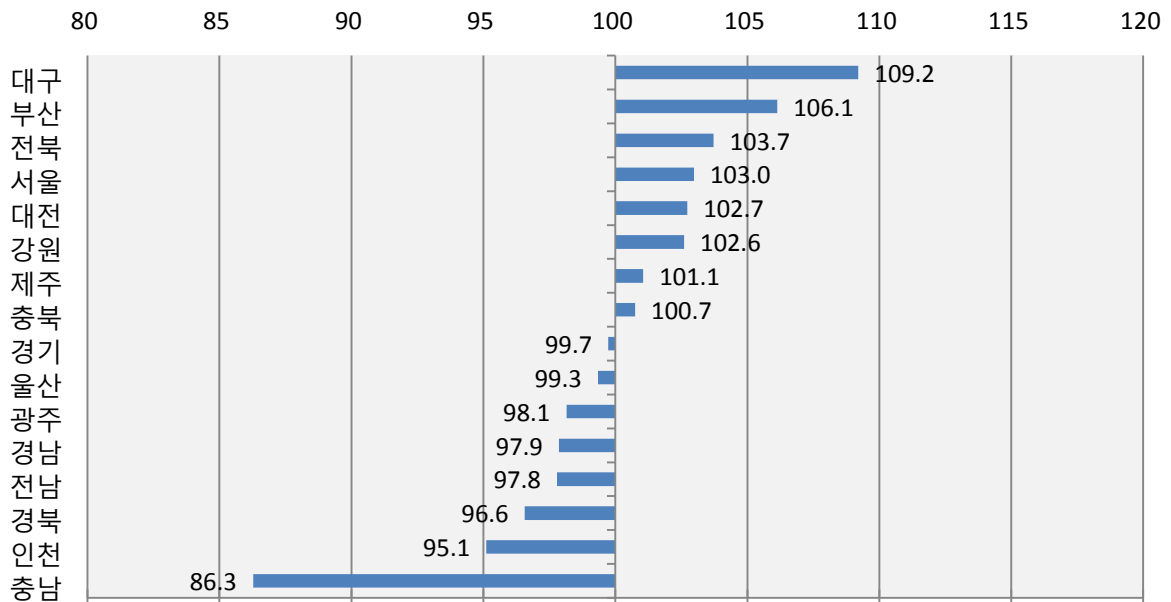


그림 3. 2013 건강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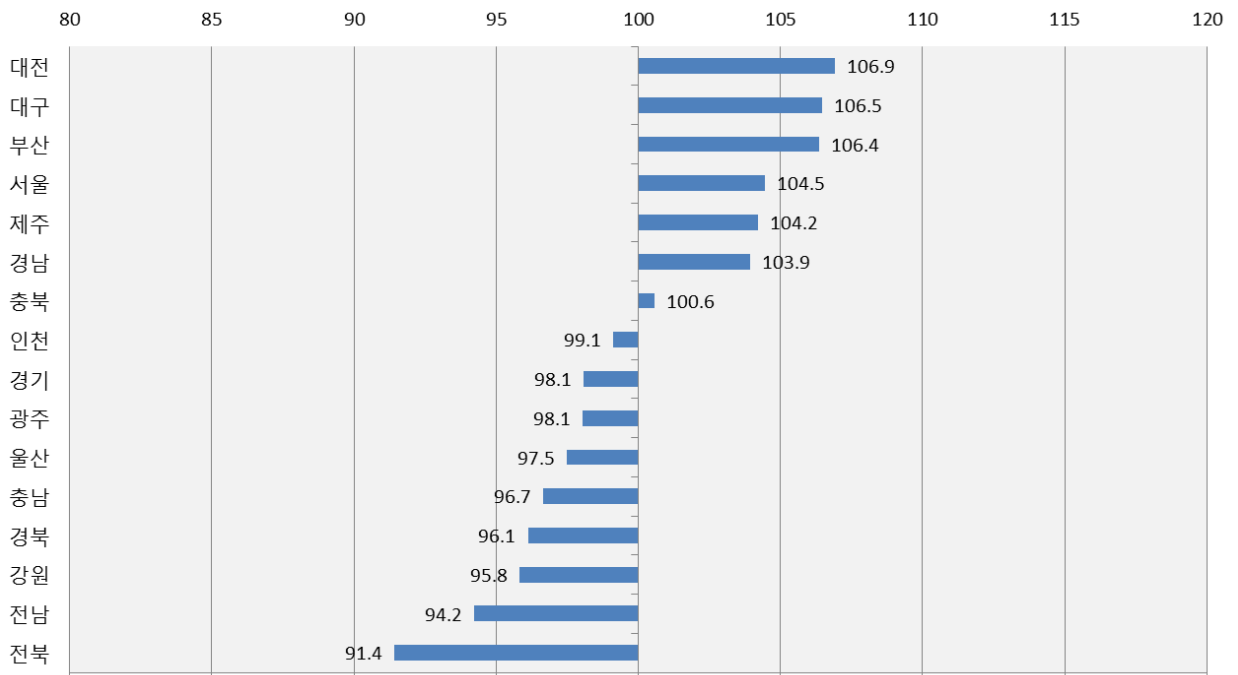


그림 4. 2012 건강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2) 주관적 행복감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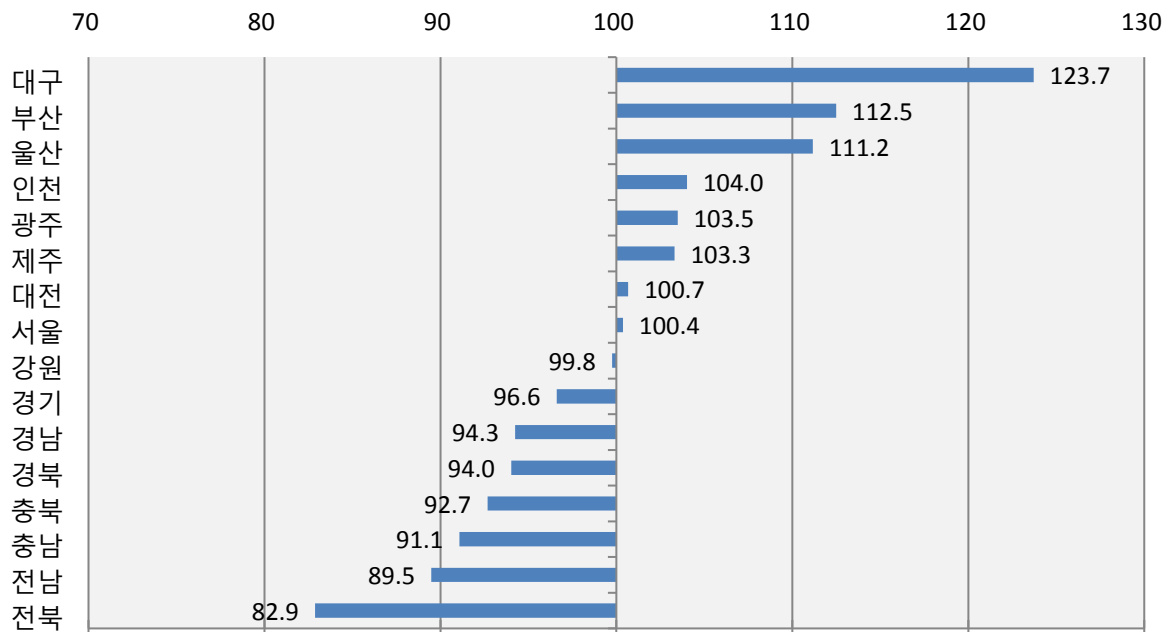


그림 5. 2015 주관적 행복감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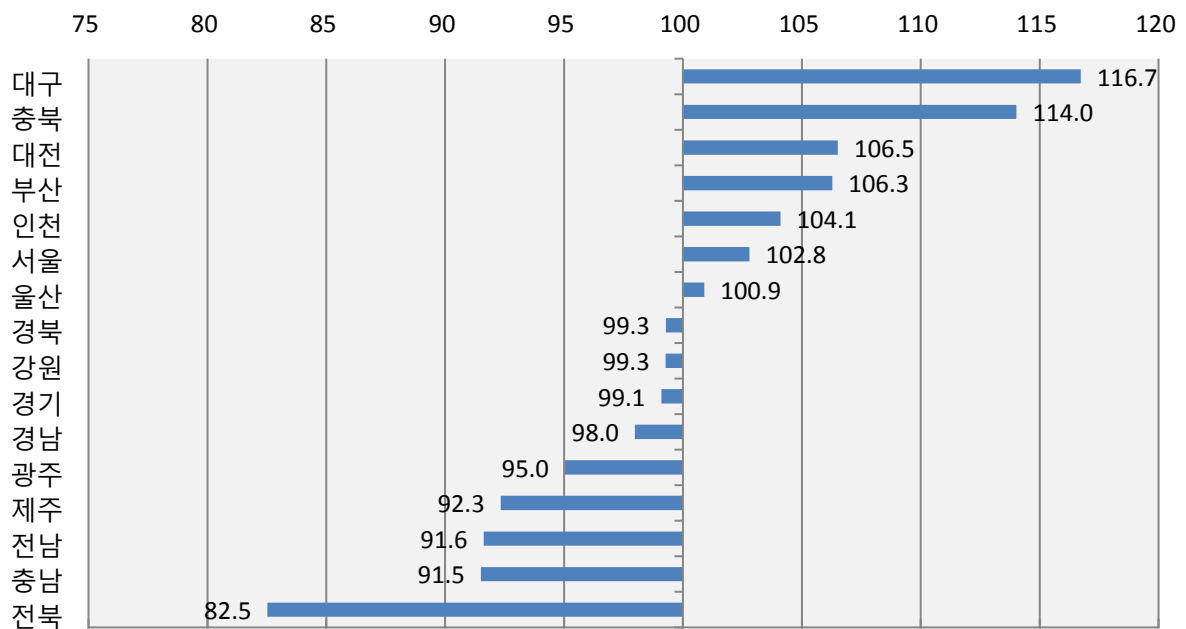


그림 6. 2013 주관적 행복감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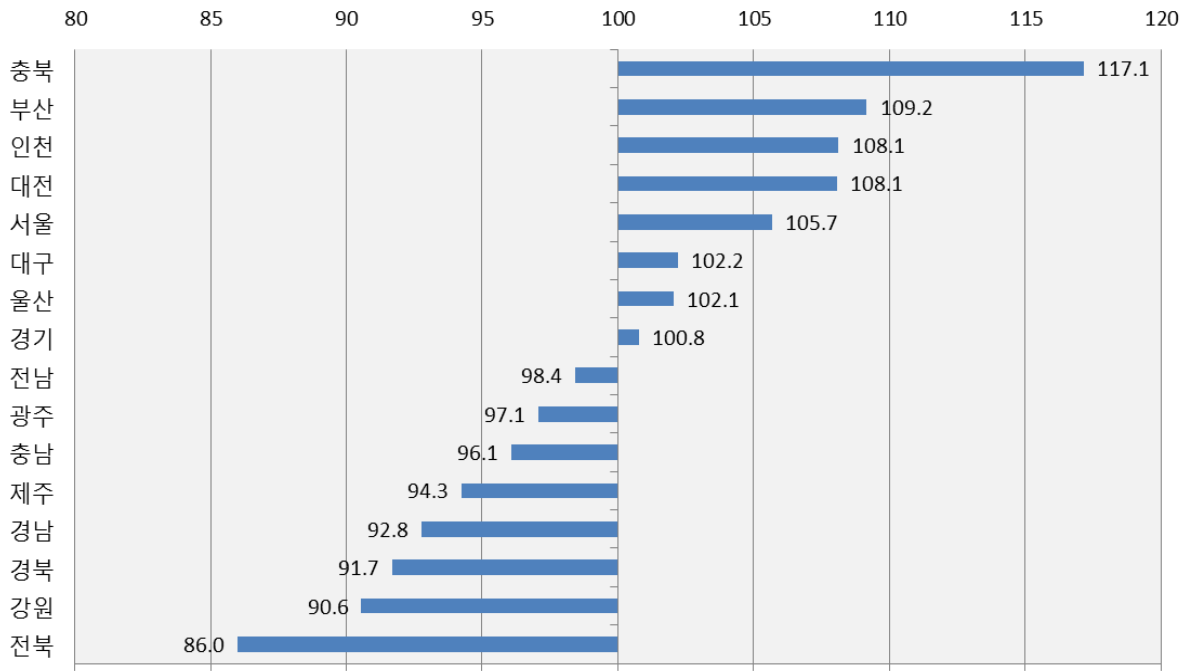


그림 7. 2012 주관적 행복감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3) 아동의 관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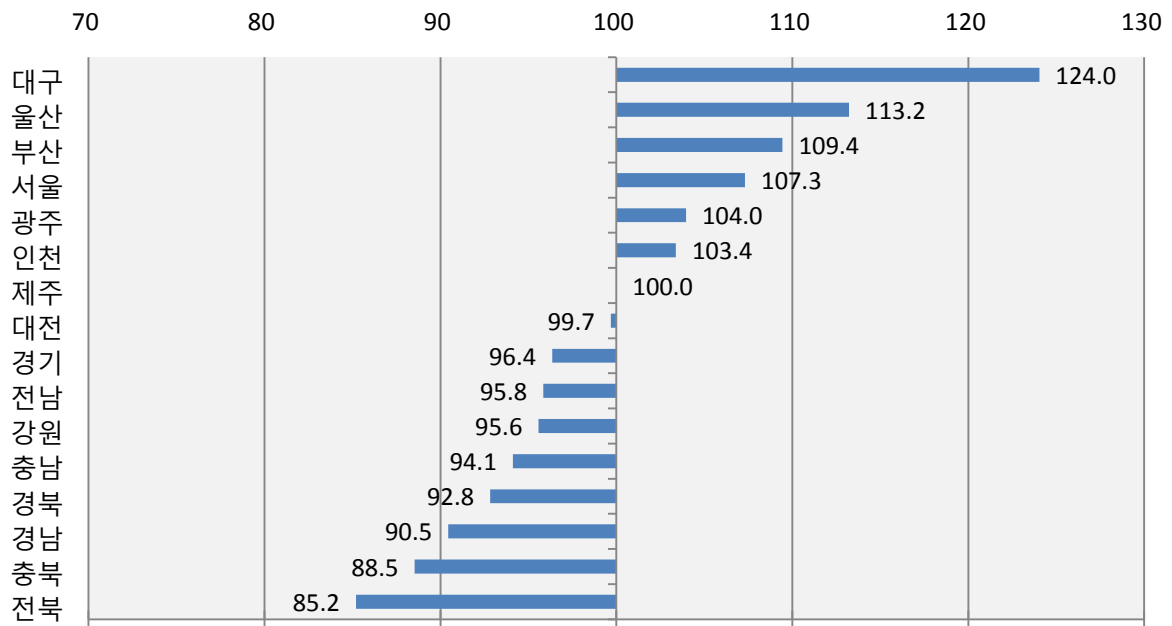


그림 8. 2015 아동의 관계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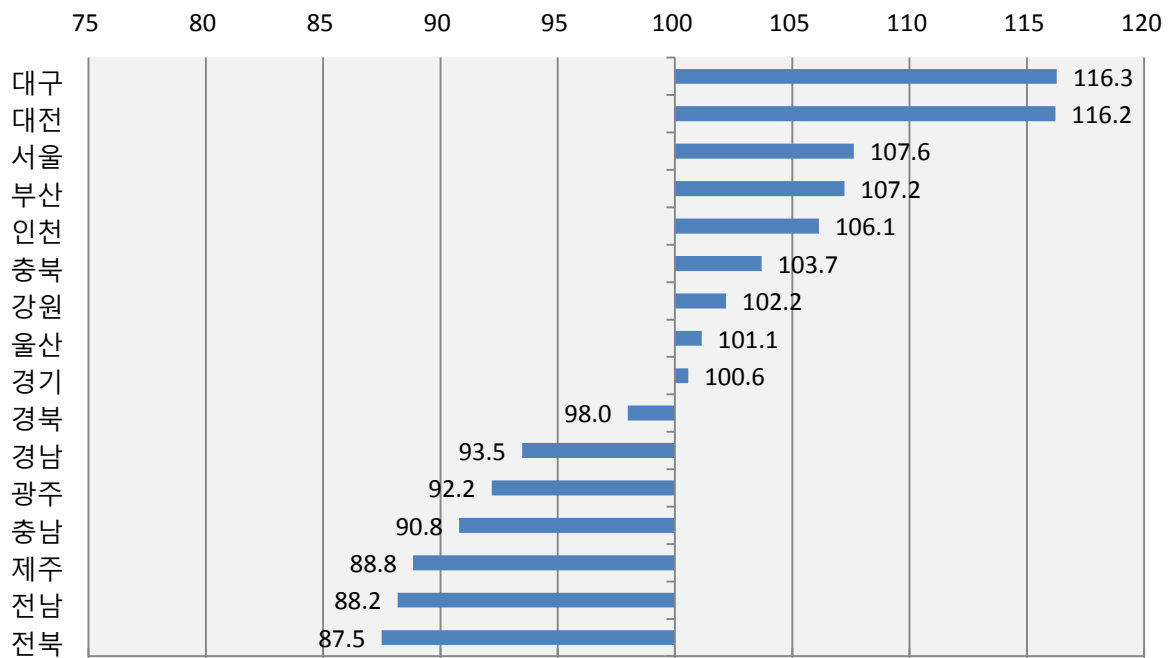


그림 9. 2013 아동의 관계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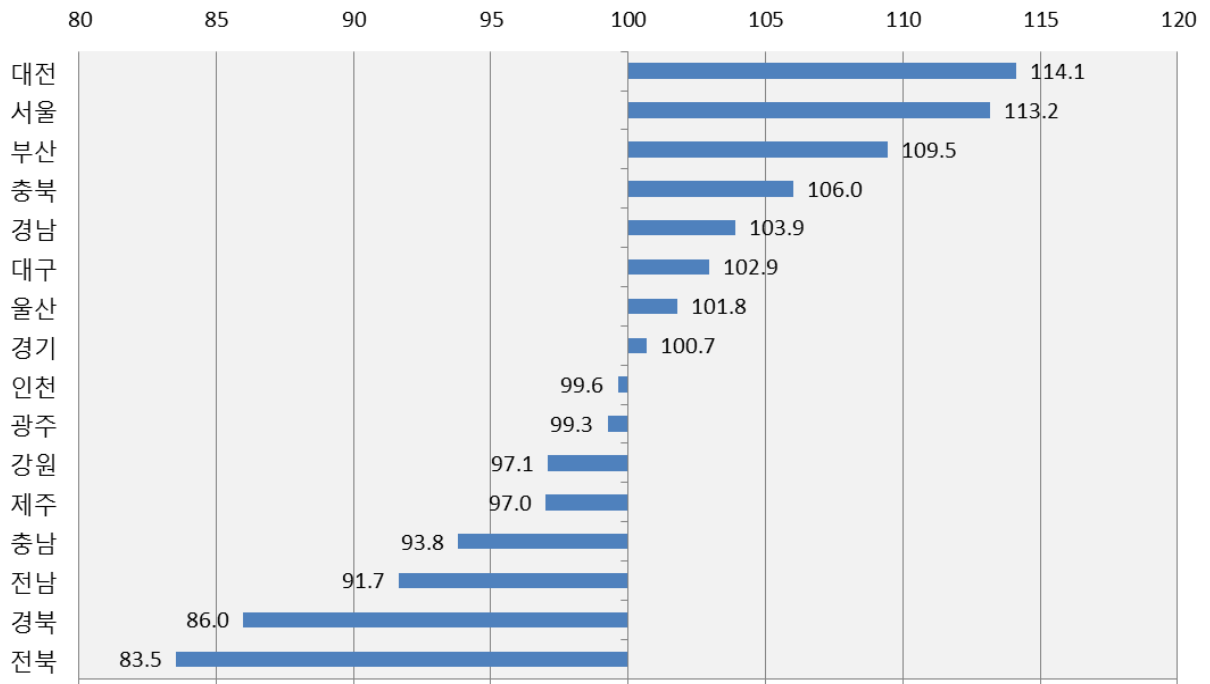


그림 10. 2012 아동의 관계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4) 물질적 상황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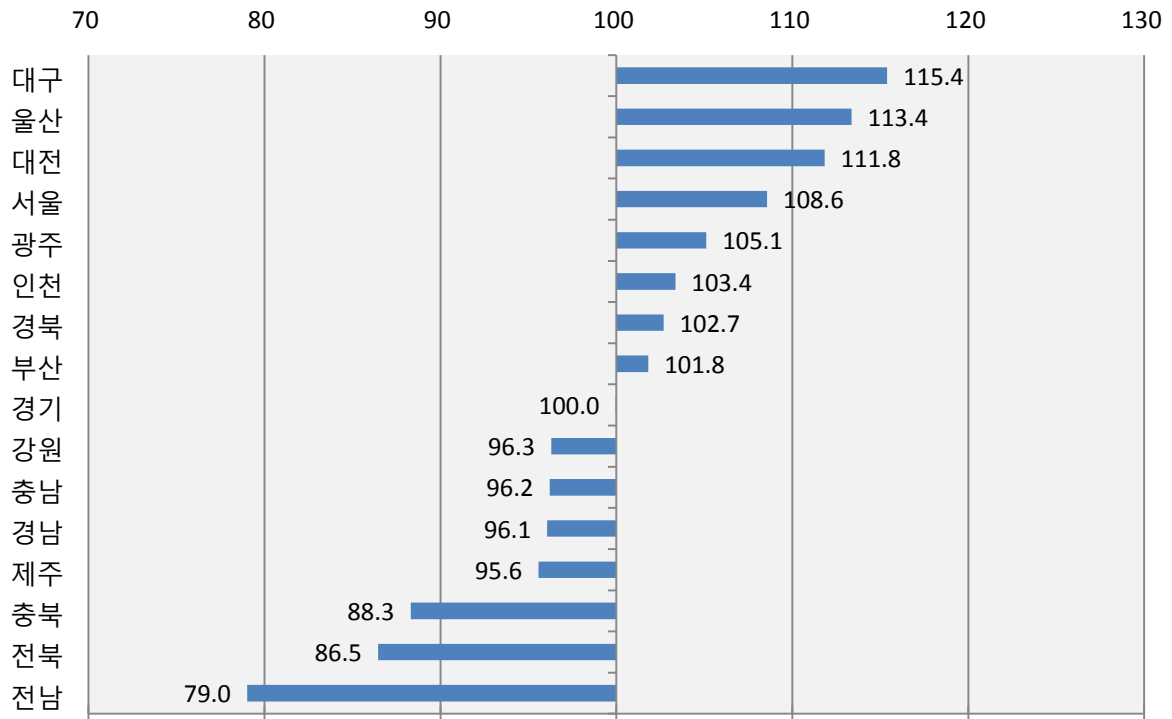


그림 11. 2015 물질적 상황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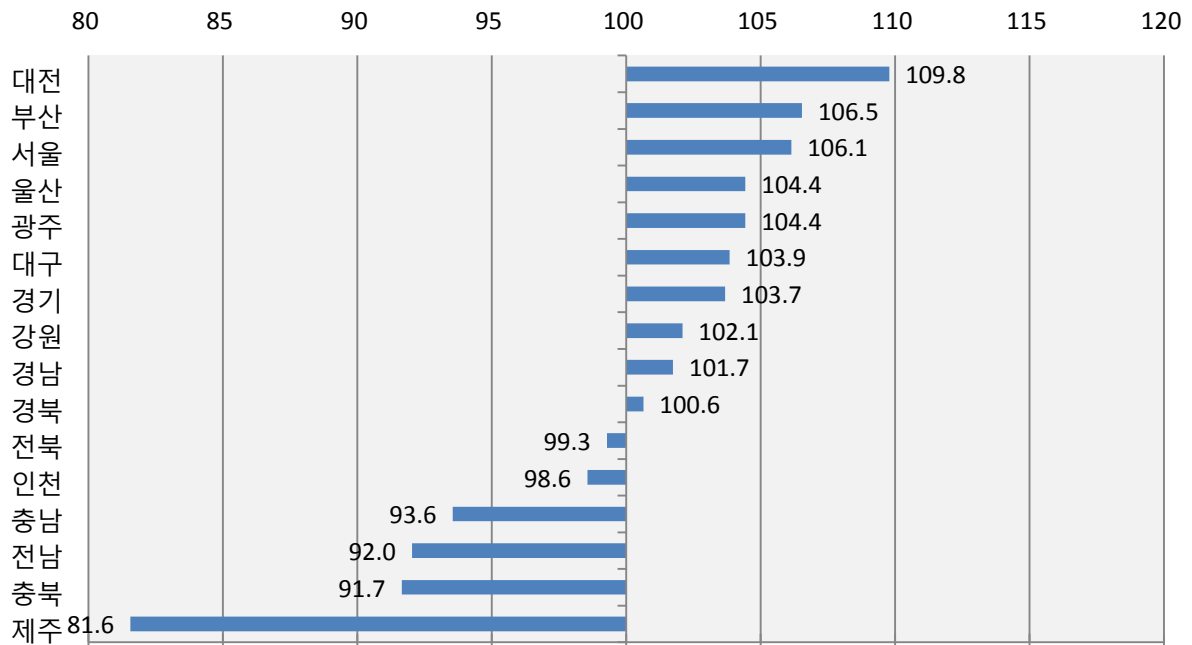


그림 12. 2013 물질적 상황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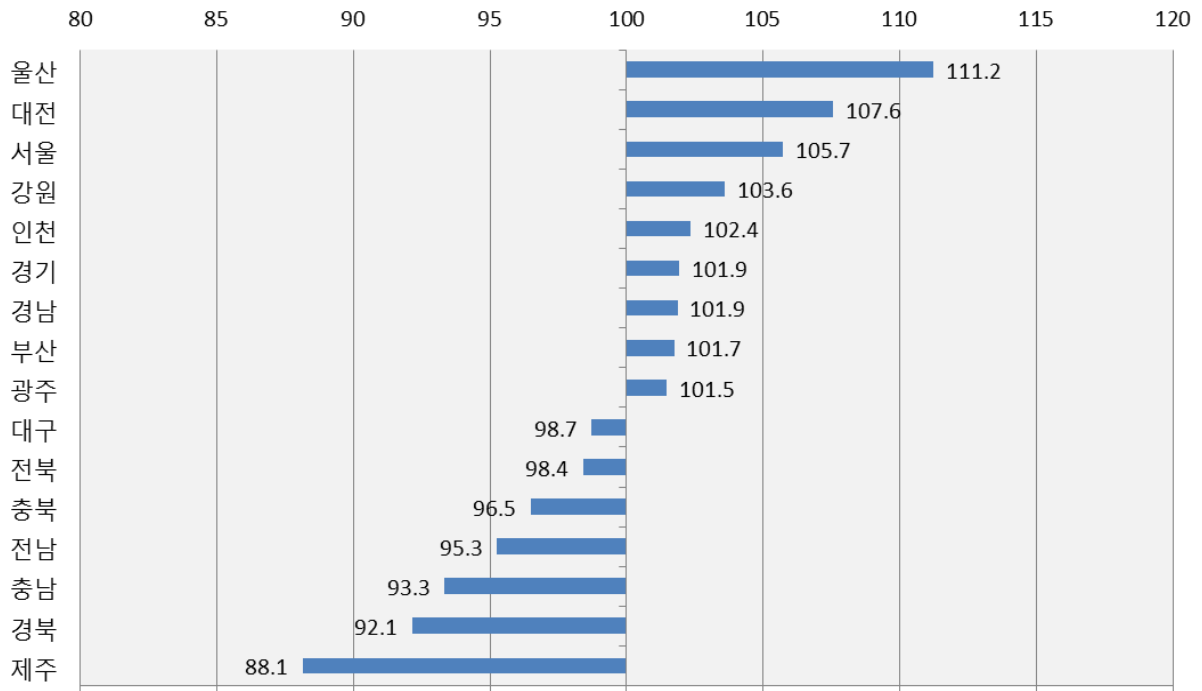


그림 13. 2012 물질적 상황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5) 위험과 안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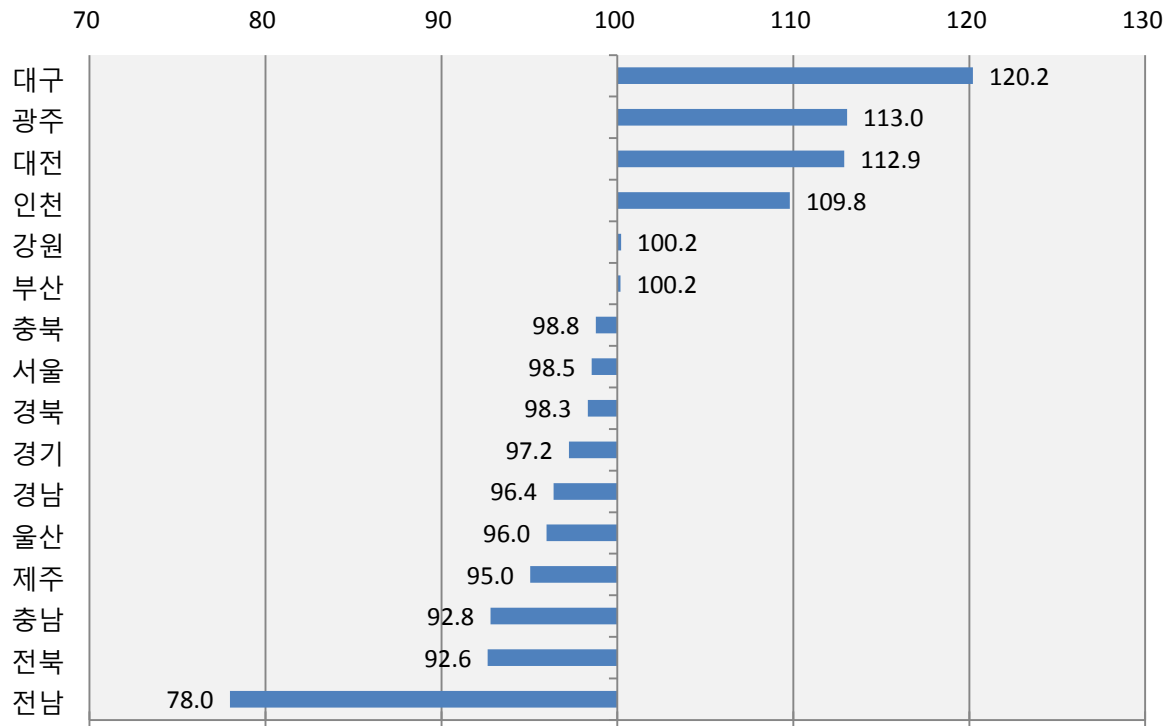


그림 14. 2015 위험과 안전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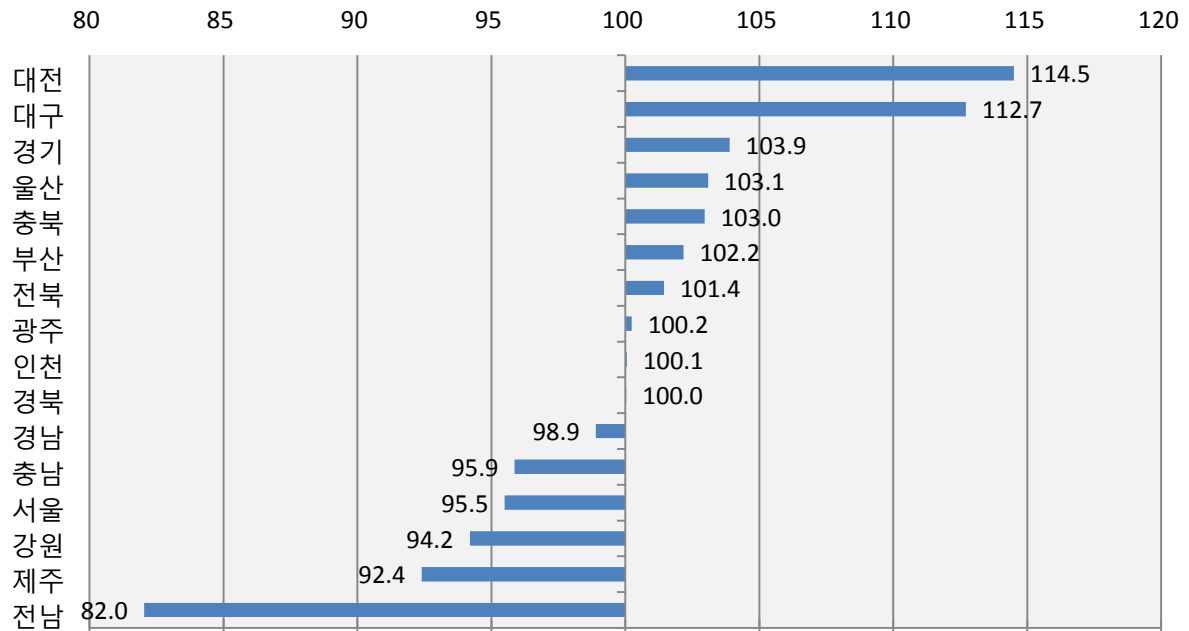


그림 15. 2013 위험과 안전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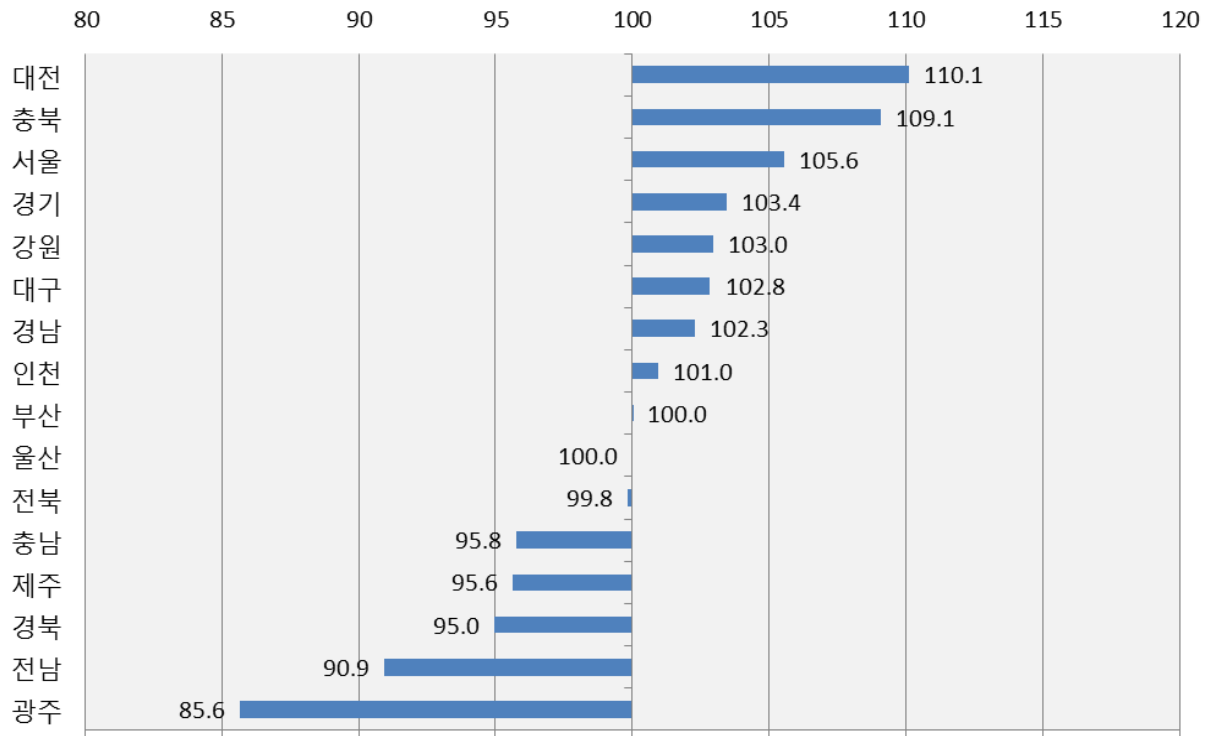


그림 16. 2012 위험과 안전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6) 교육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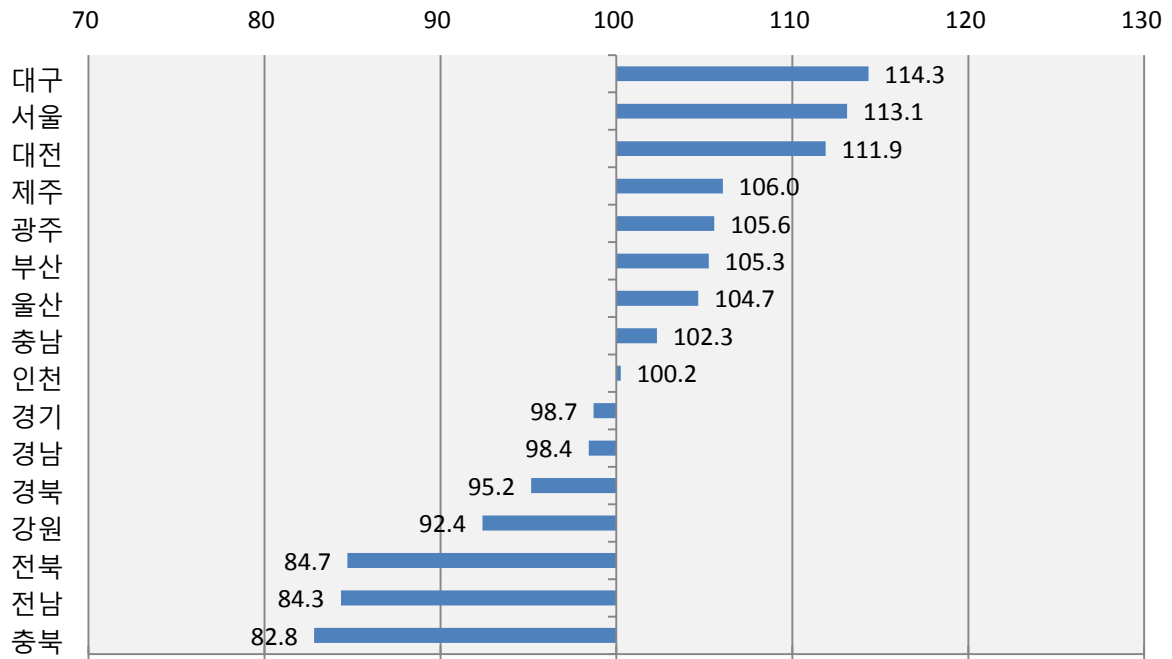


그림 17. 2015 교육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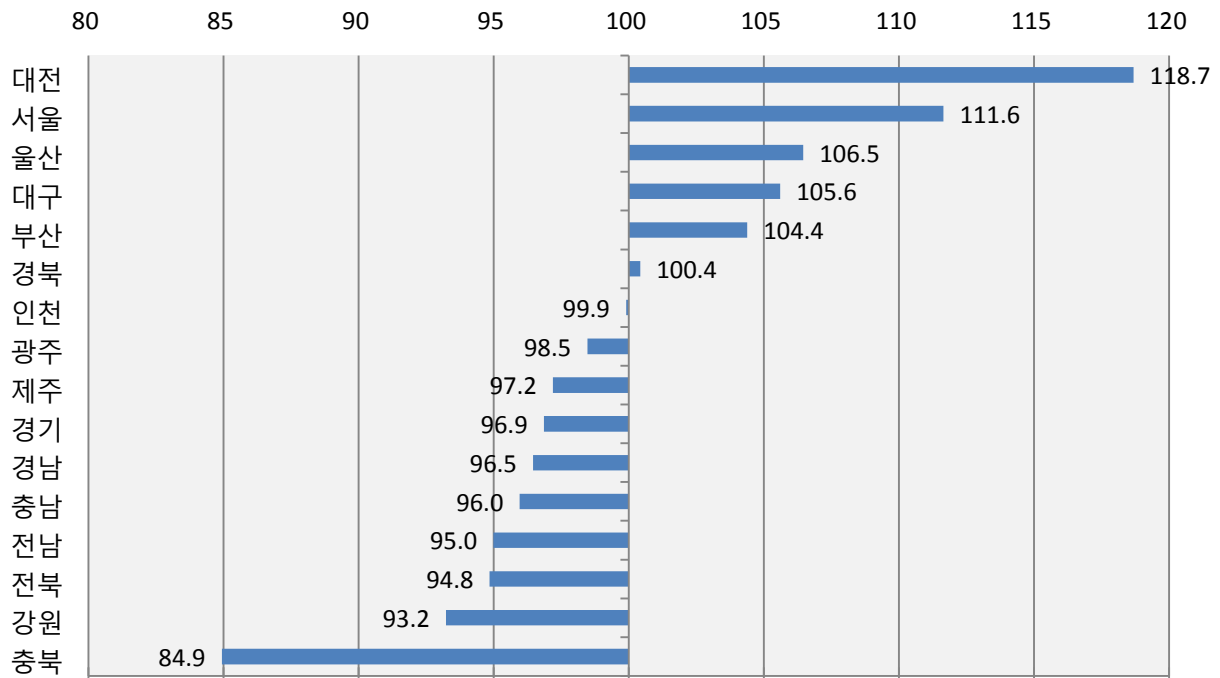


그림 18. 2013 교육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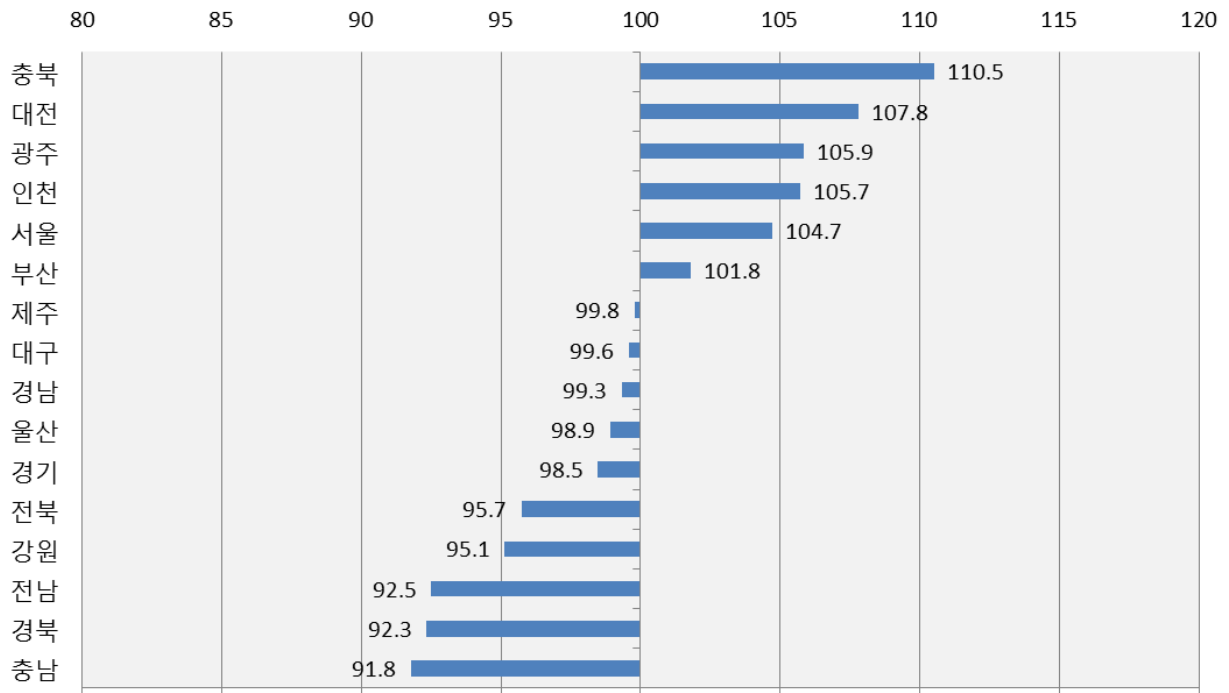


그림 19. 2012 교육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7) 주거환경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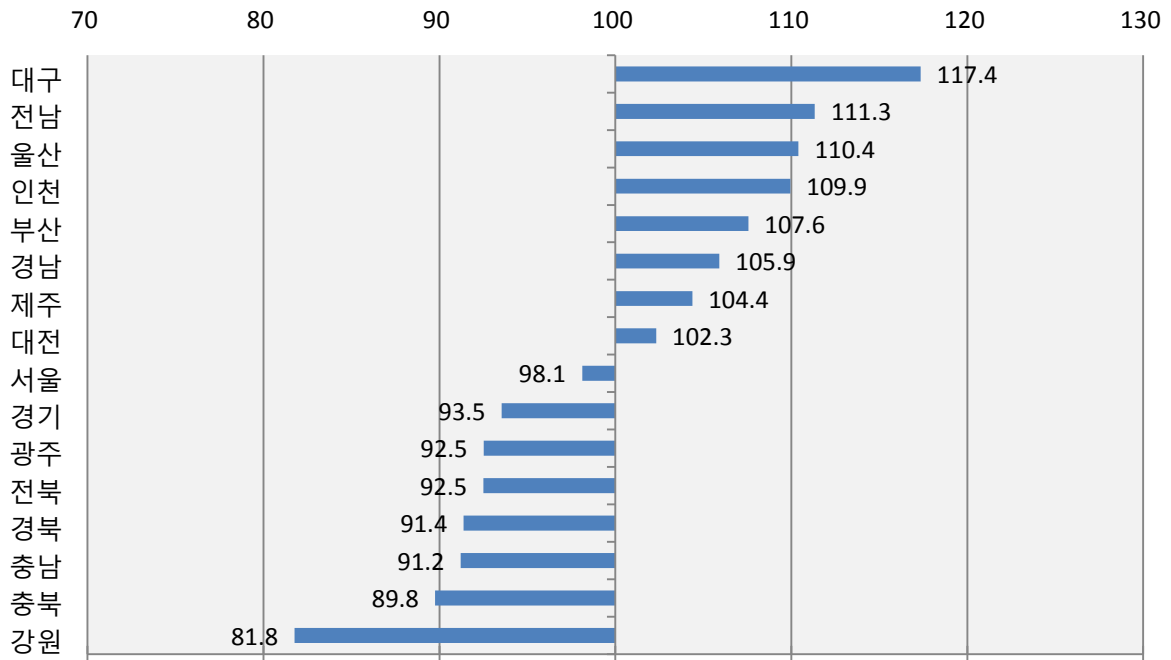


그림 20. 2015 주거환경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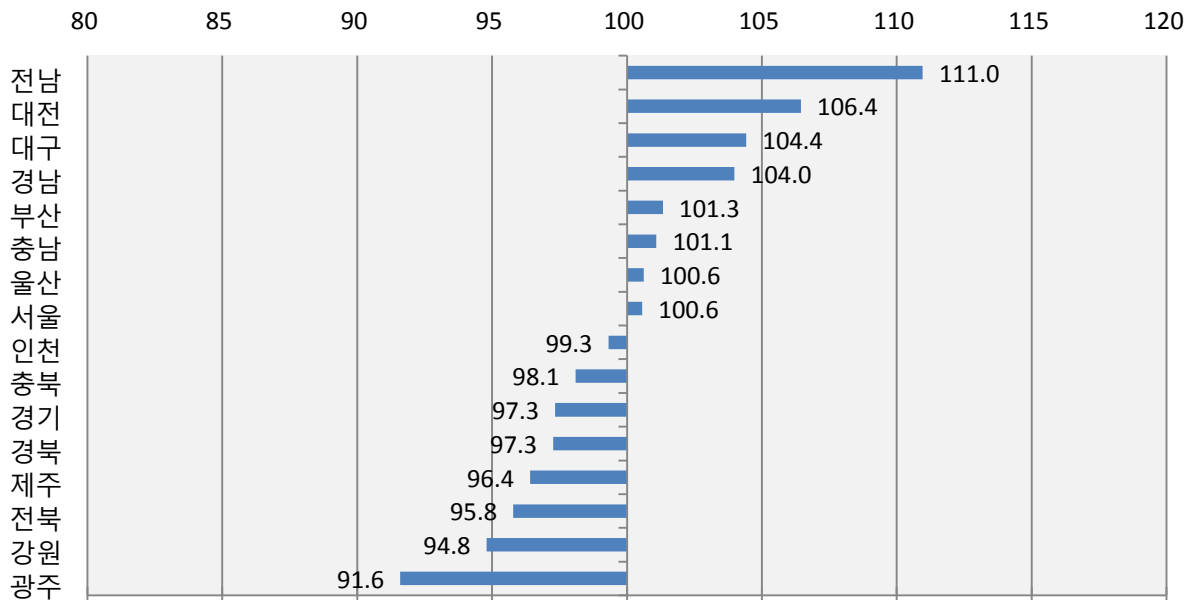


그림 21. 2013 주거환경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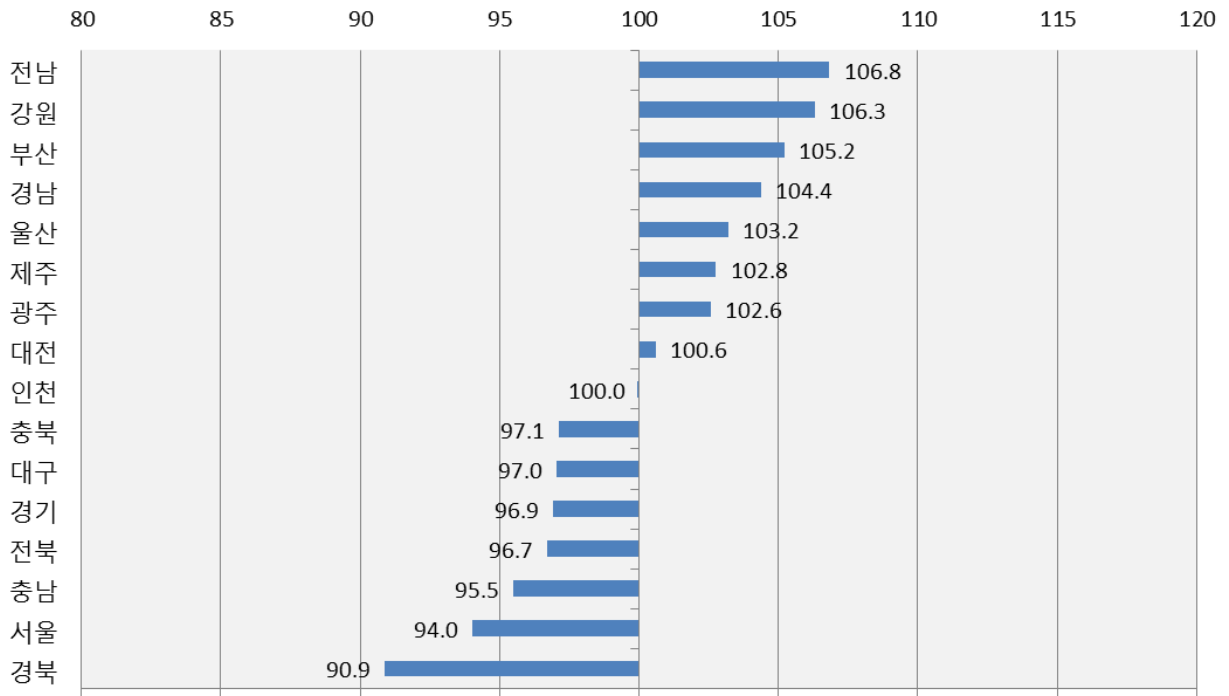


그림 22. 2012 주거환경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8) 바람직한 인성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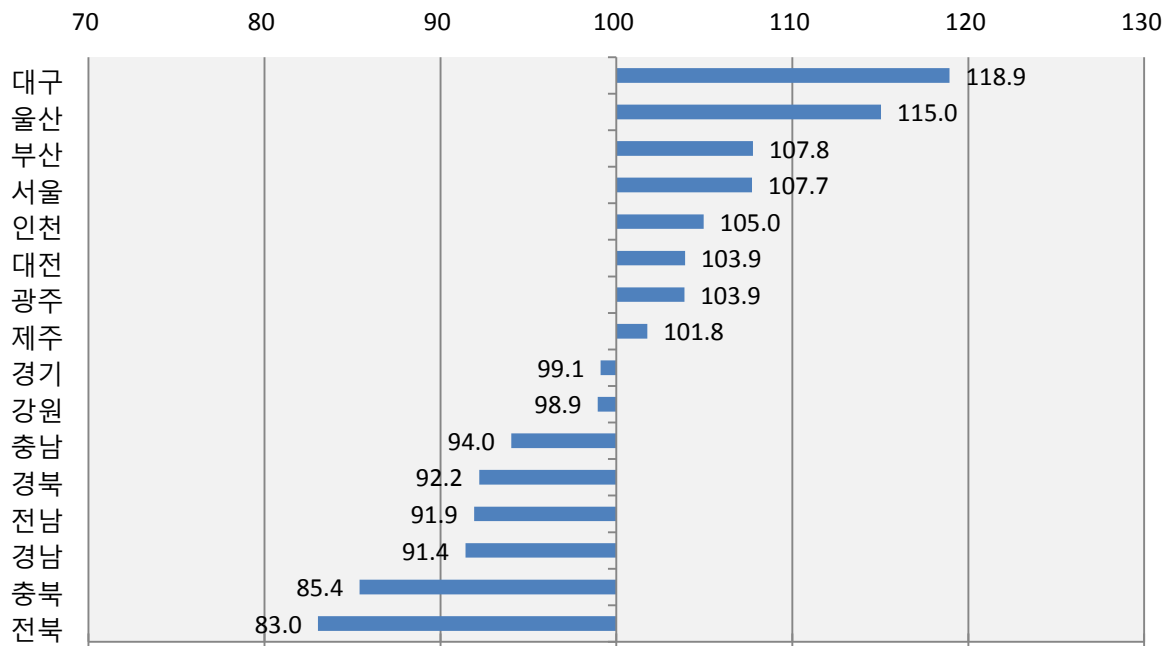


그림 23. 2015 바람직한 인성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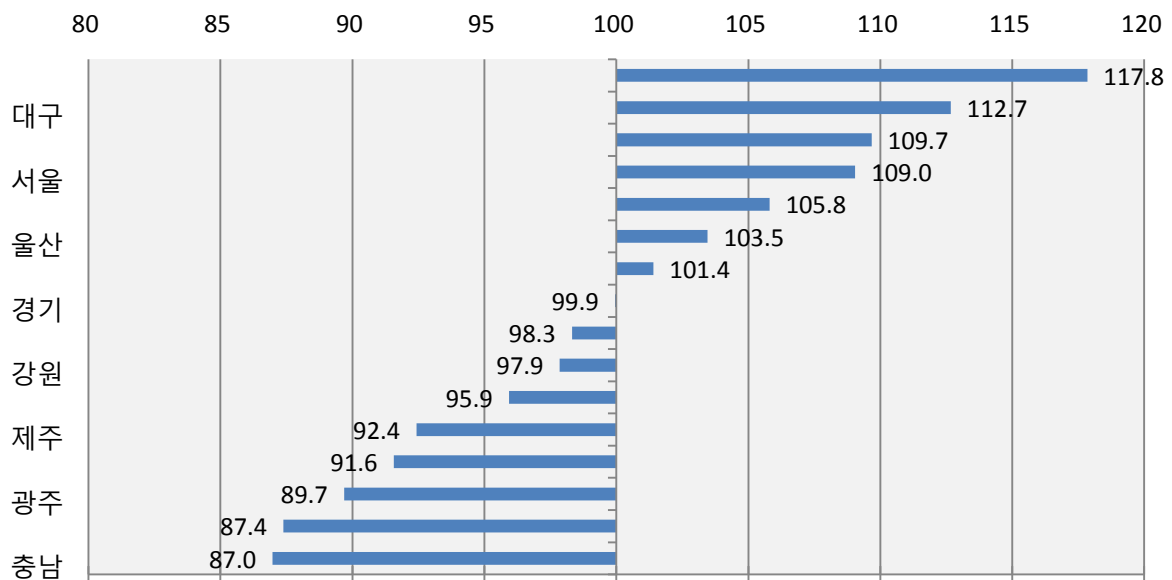


그림 24. 2013 바람직한 인성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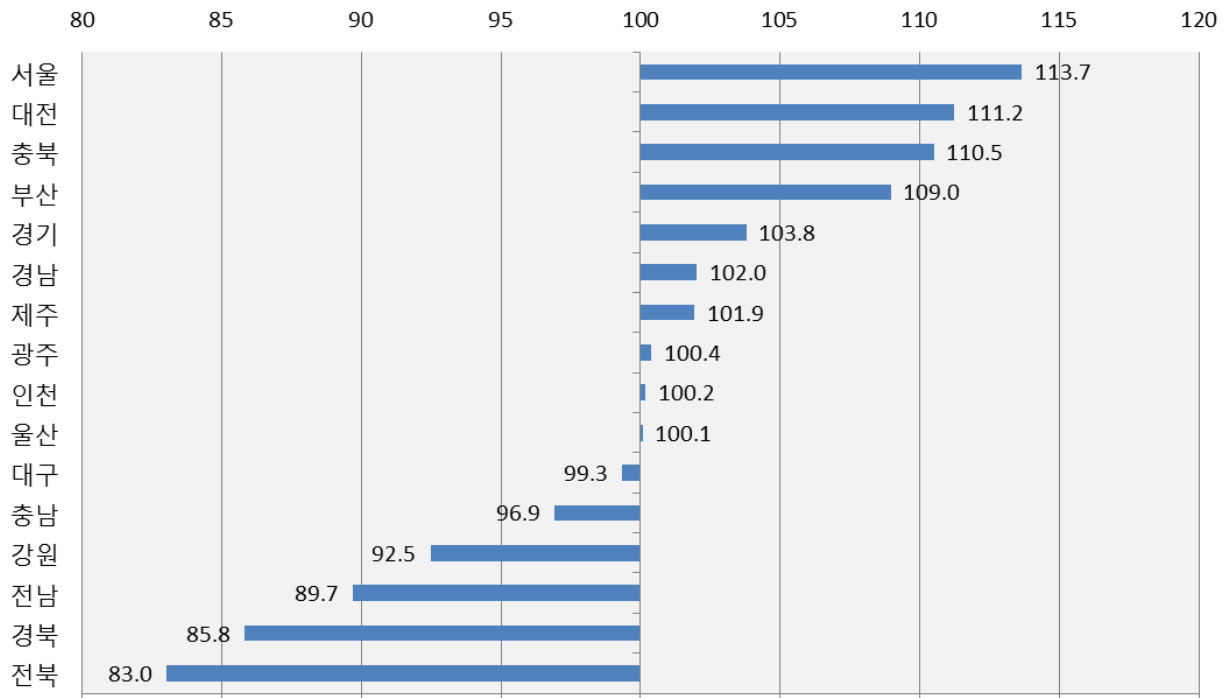


그림 25. 2012 바람직한 인성 영역 결과의 지역별 비교

9) 종합 결과: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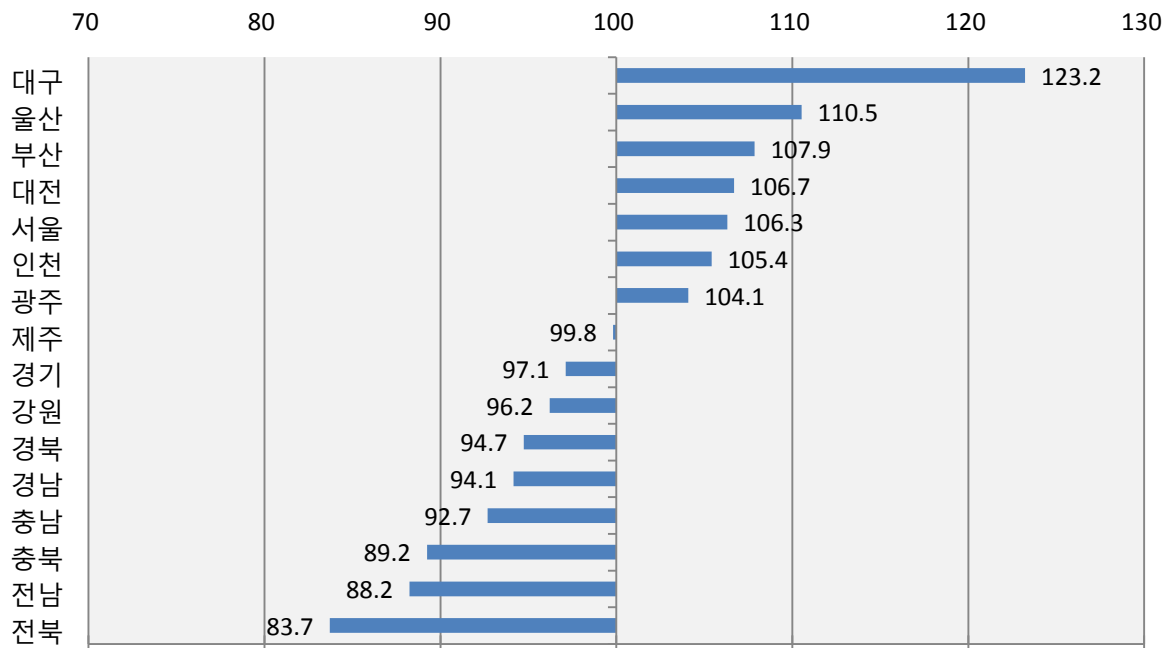


그림 26. 2015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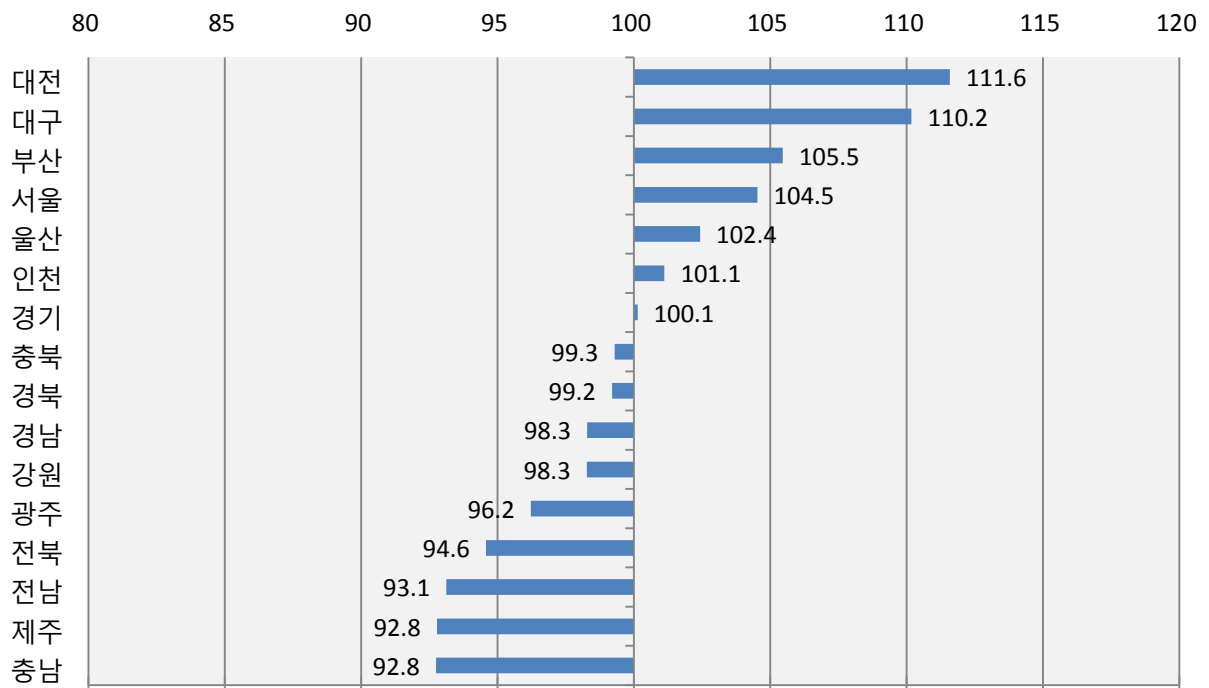


그림 27. 2013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의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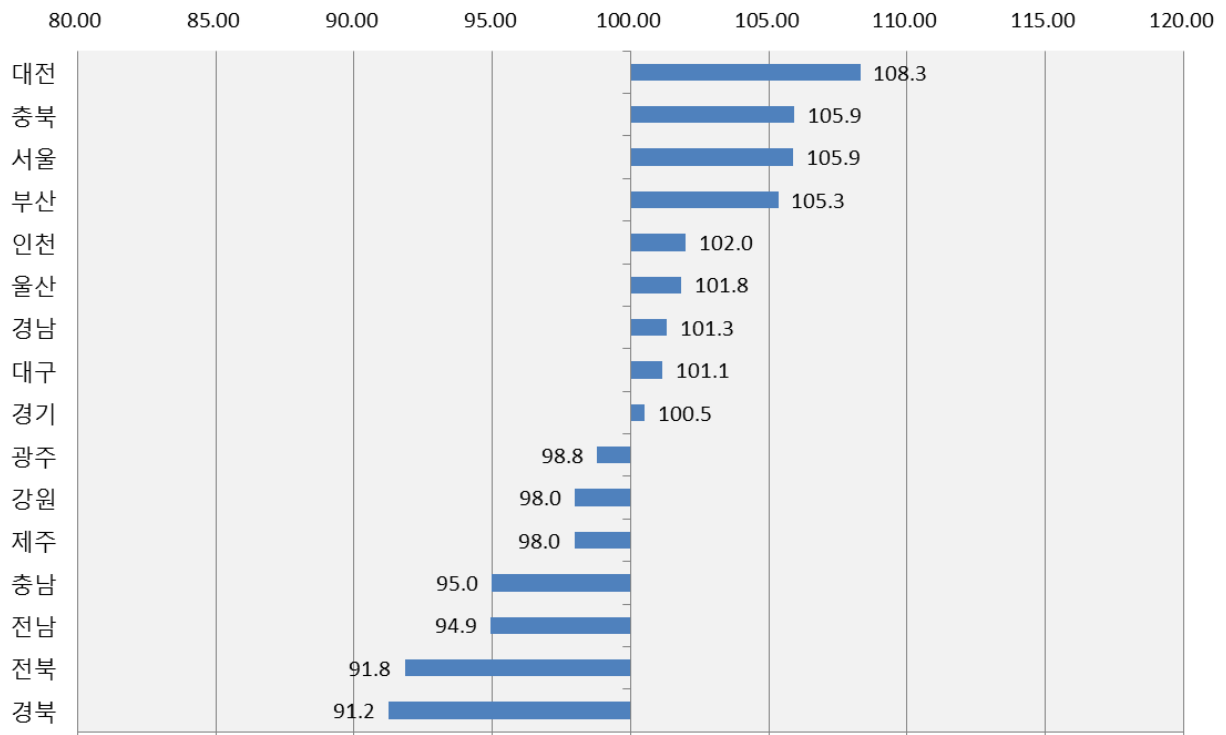


그림 28. 2012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의 지역별 비교

5. 시도별 결과

1) 대구



그림 29. 2015 대구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그림 30. 2013 대구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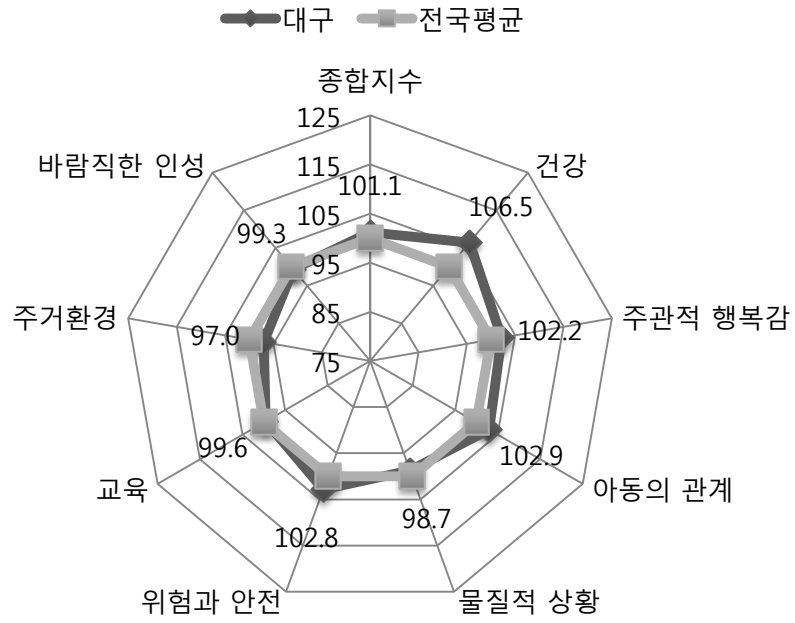


그림 31. 2012 대구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2) 울산



그림 32. 2015 울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그림 33. 2013 울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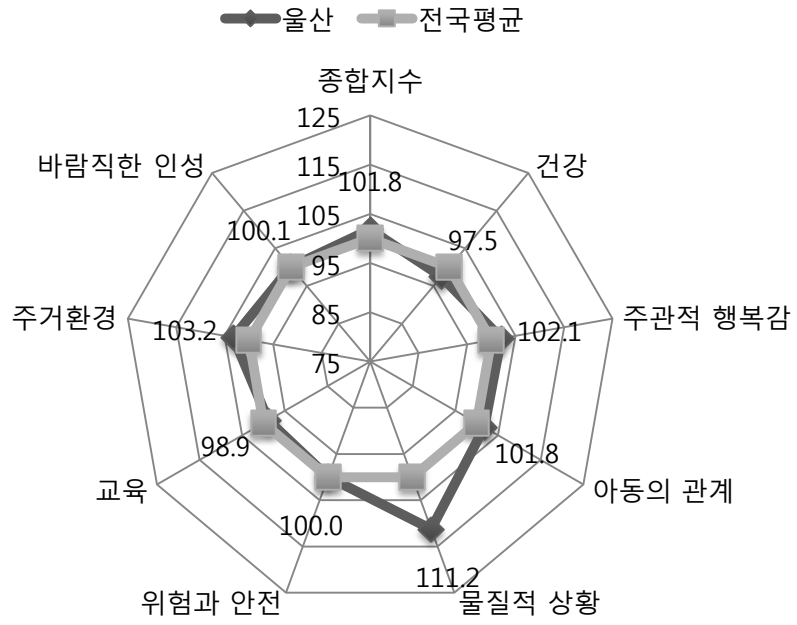


그림 34. 2012 울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3) 부산



그림 35. 2015 부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그림 36. 2013 부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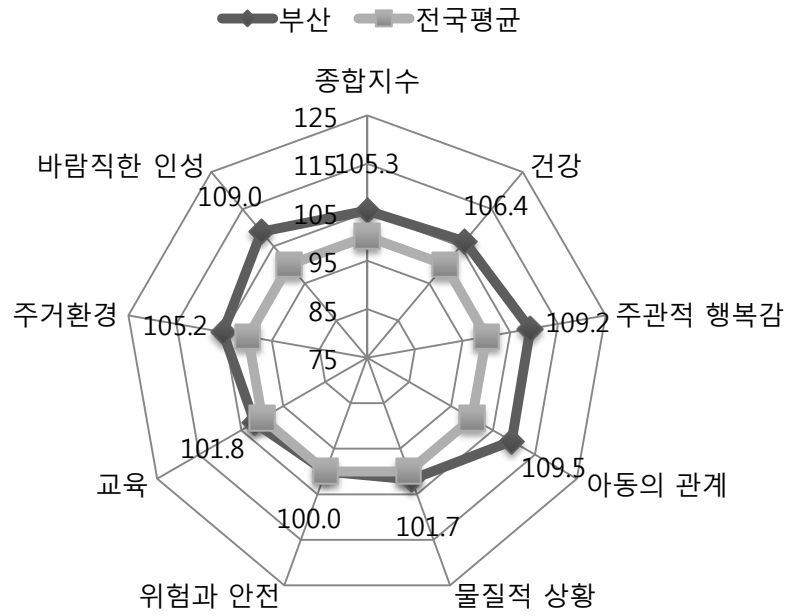


그림 37. 2012 부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4)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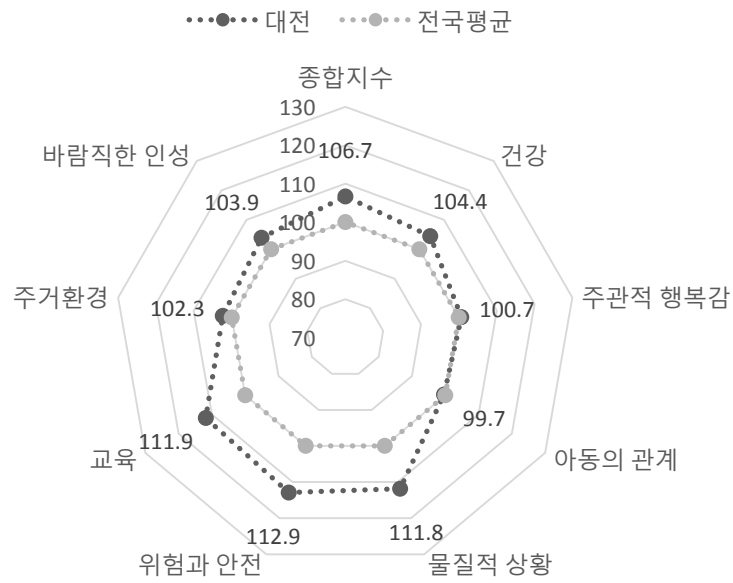


그림 38. 2015 대전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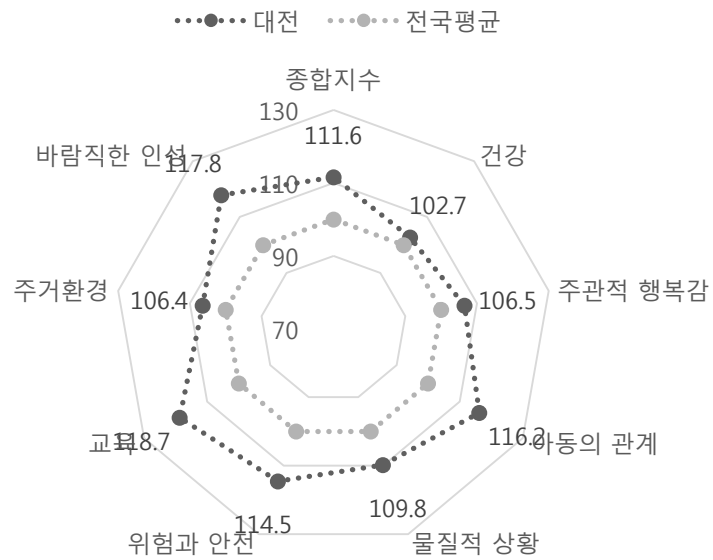


그림 39. 2013 대전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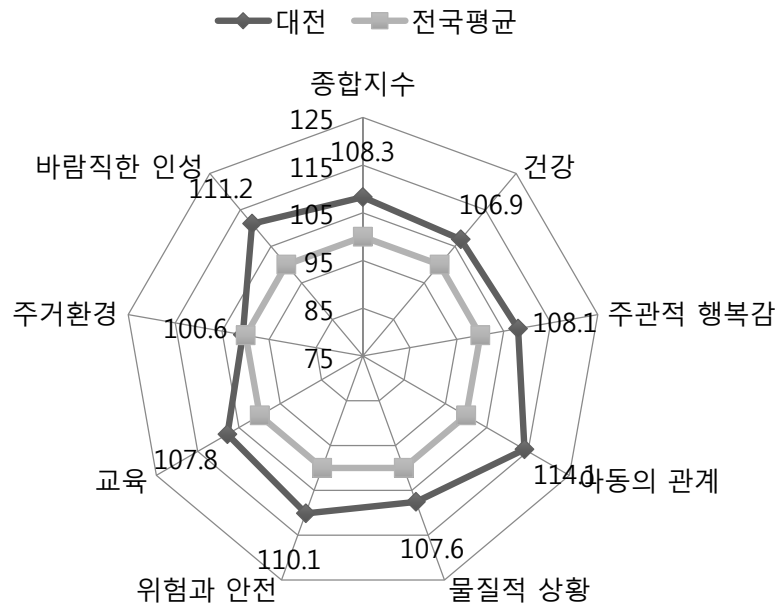


그림 40. 2012 대전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5)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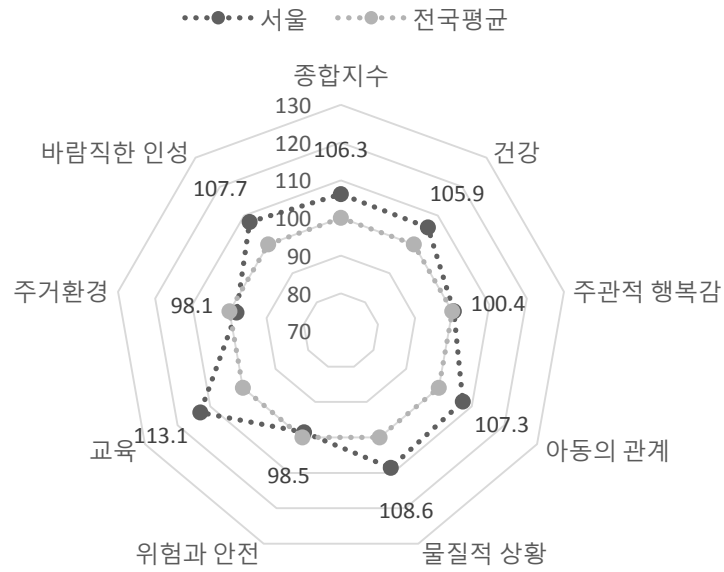


그림 41. 2015 서울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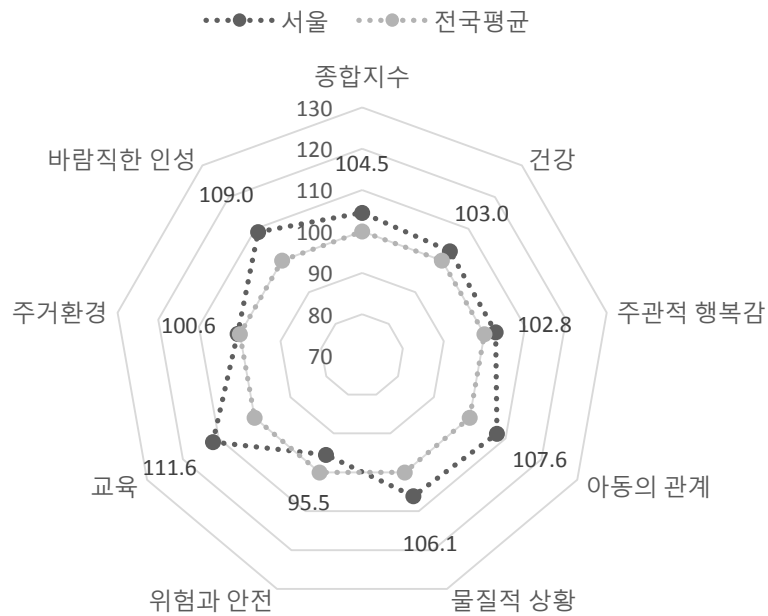


그림 42. 2013 서울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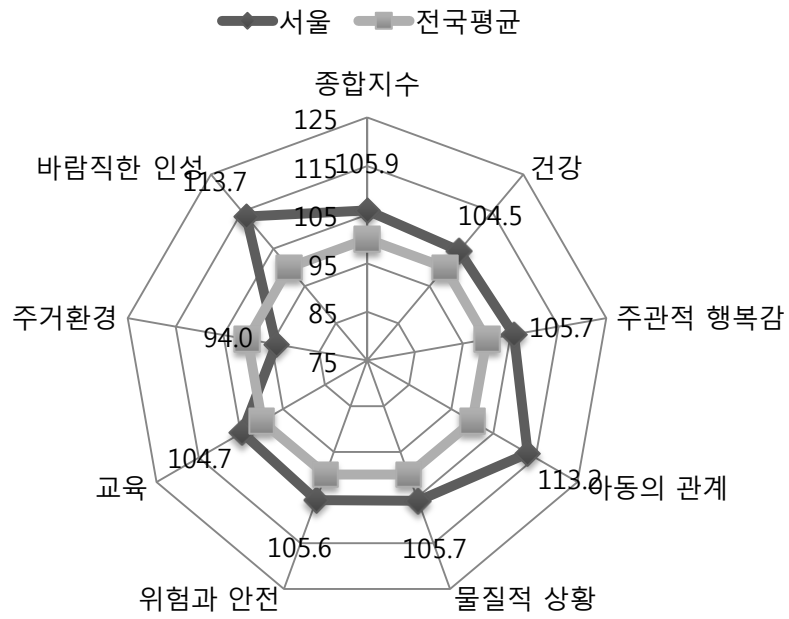


그림 43. 2012 서울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6)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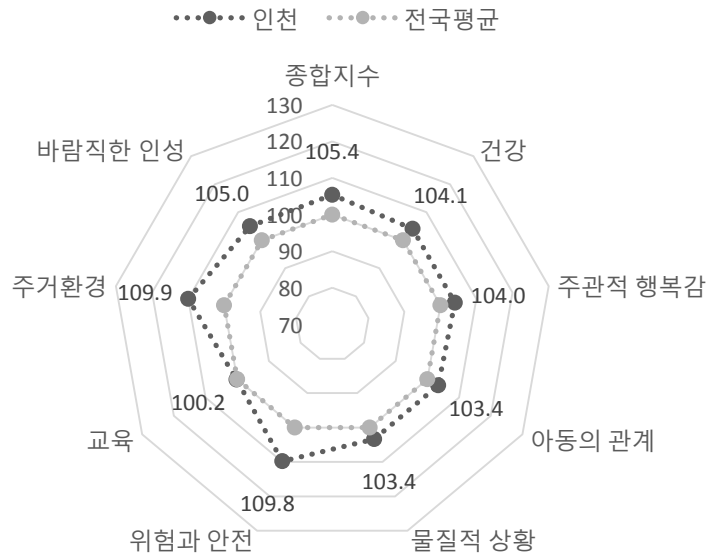


그림 44. 2015 인천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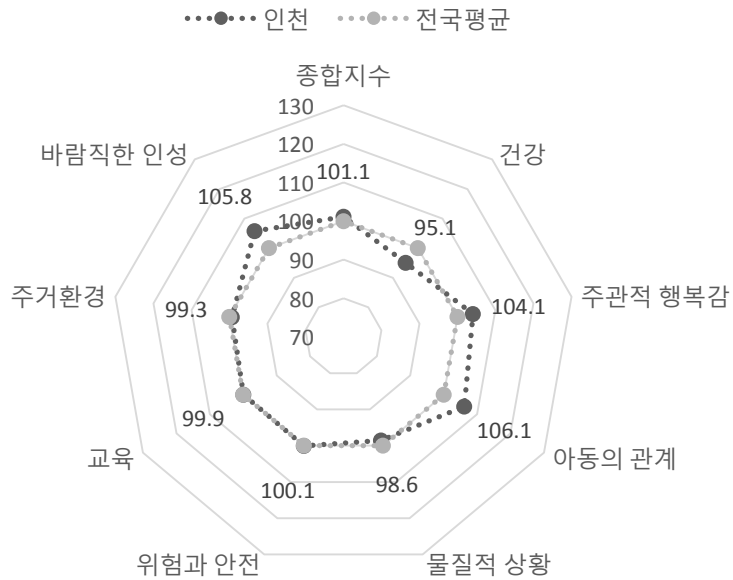


그림 45. 2013 인천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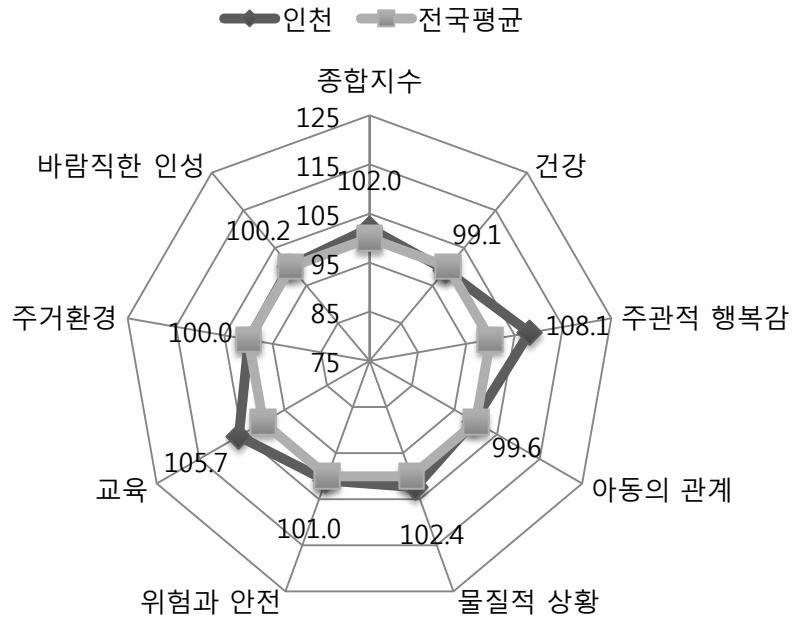


그림 46. 2012 인천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7)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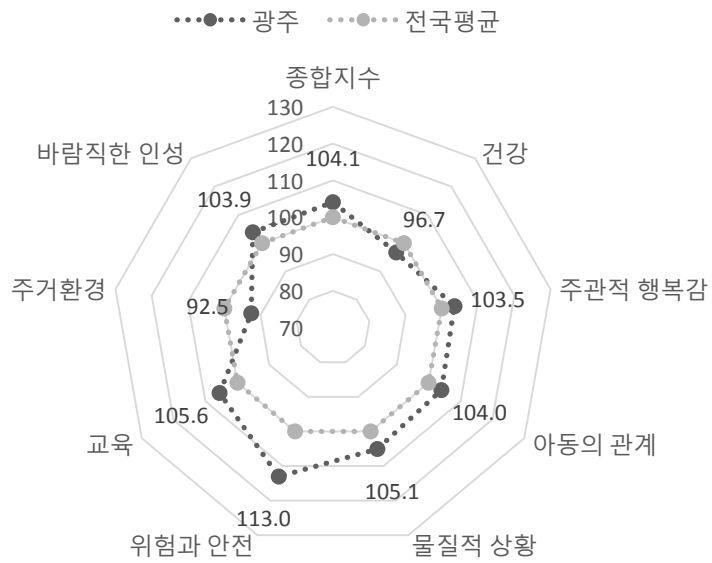


그림 47. 2015 광주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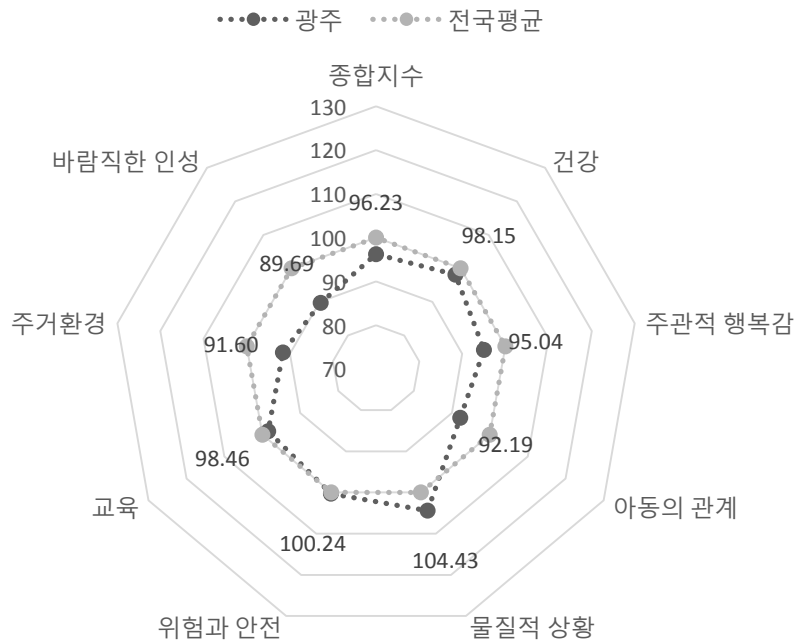


그림 48. 2013 광주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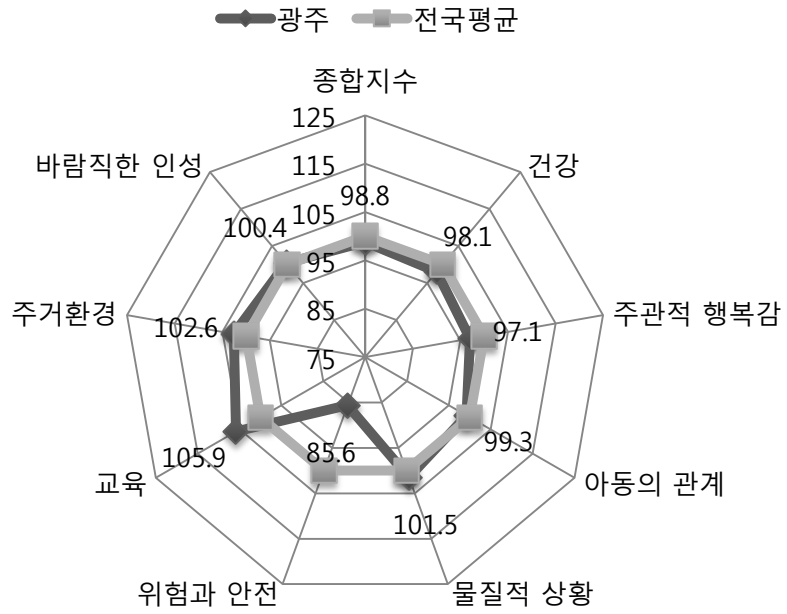


그림 49. 2012 광주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8) 제주



그림 50. 2015 제주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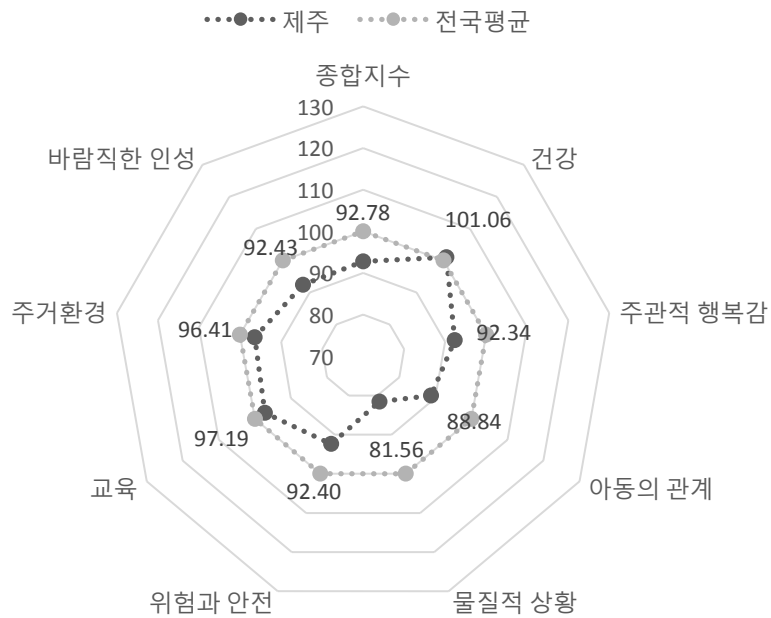


그림 51. 2013 제주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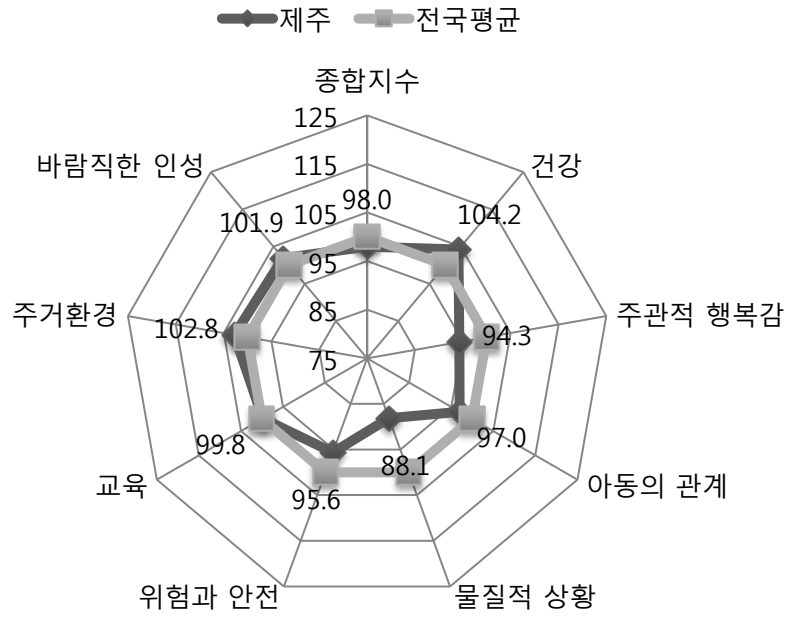


그림 52. 2012 제주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9)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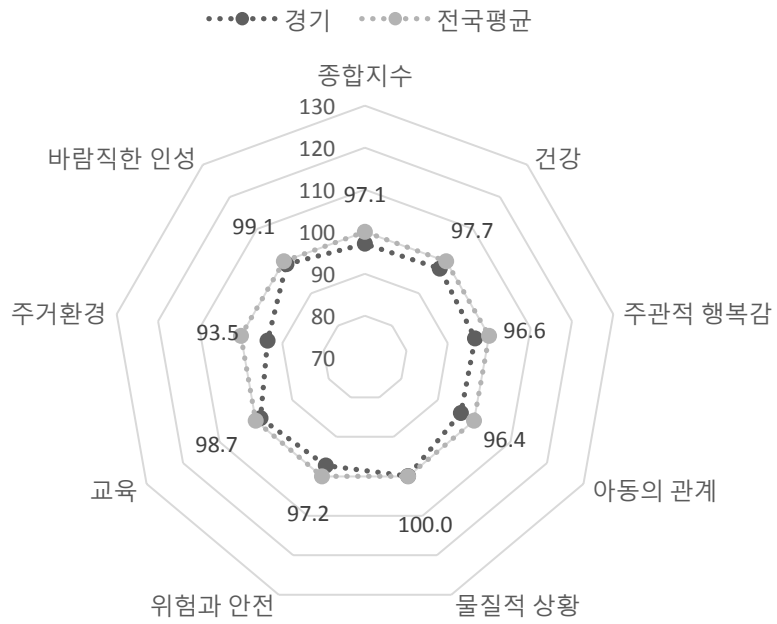


그림 53. 2015 경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그림 54. 2013 경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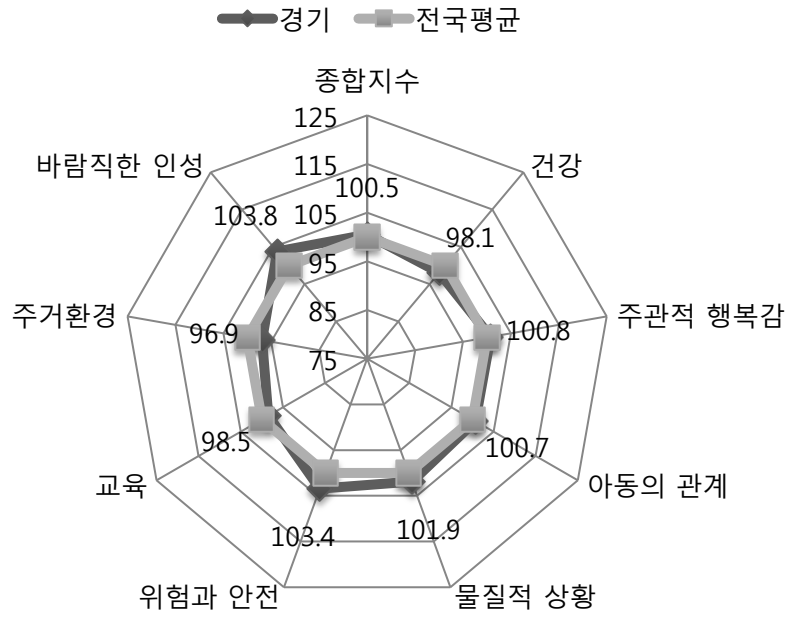


그림 55. 2012 경기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10) 강원



그림 56. 2015 강원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그림 57. 2013 강원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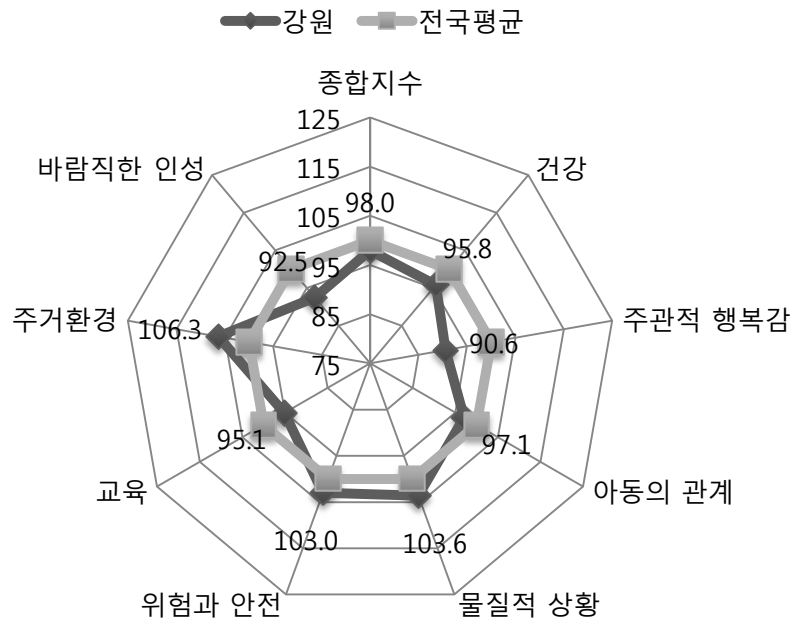


그림 58. 2012 강원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11)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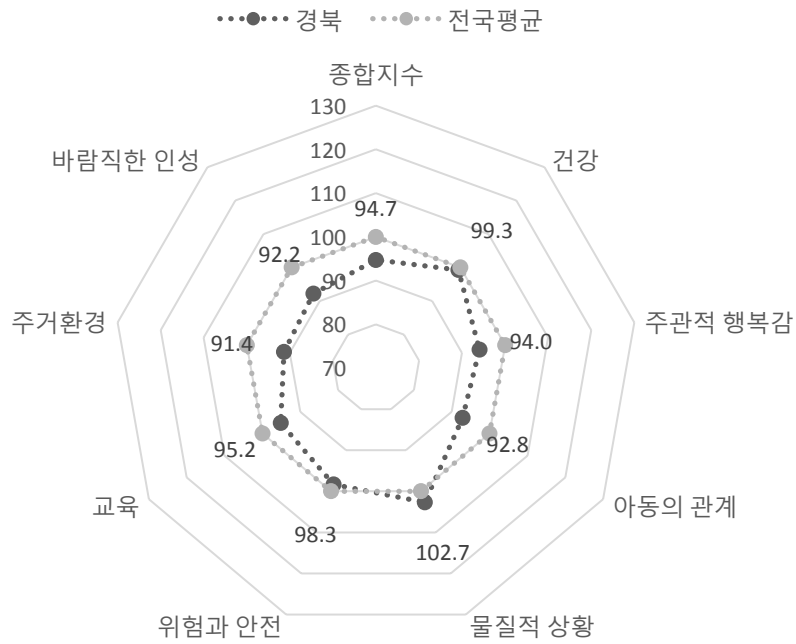


그림 59. 2015 경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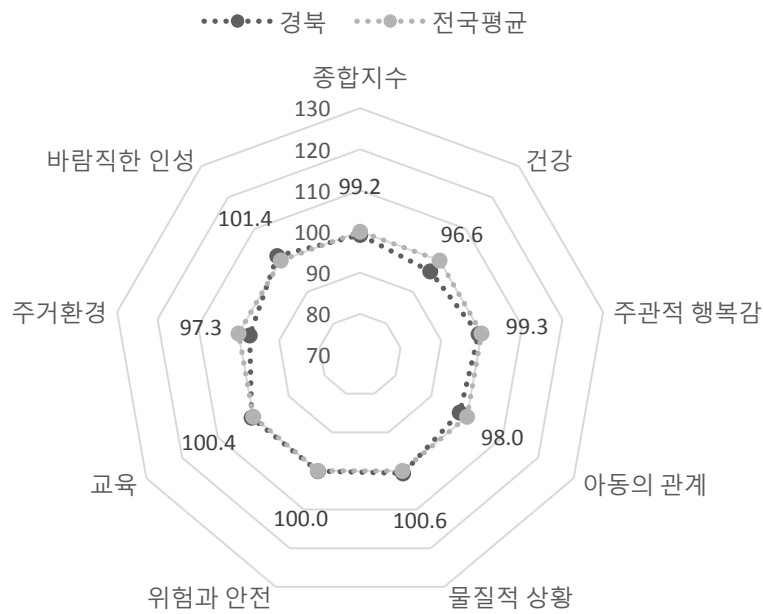


그림 60. 2013 경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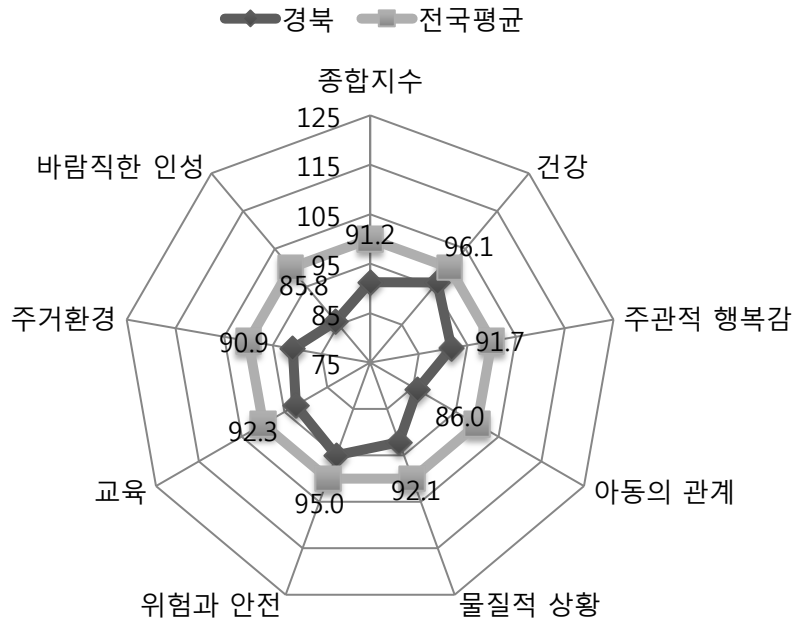


그림 61. 2012 경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12) 경남



그림 62. 2015 경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그림 63. 2013 경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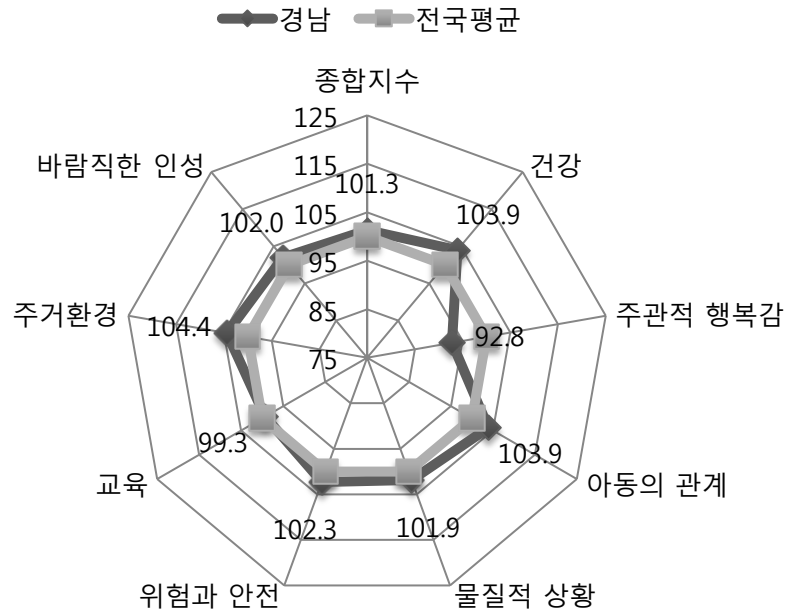


그림 64. 2012 경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13) 충남



그림 65. 2015 충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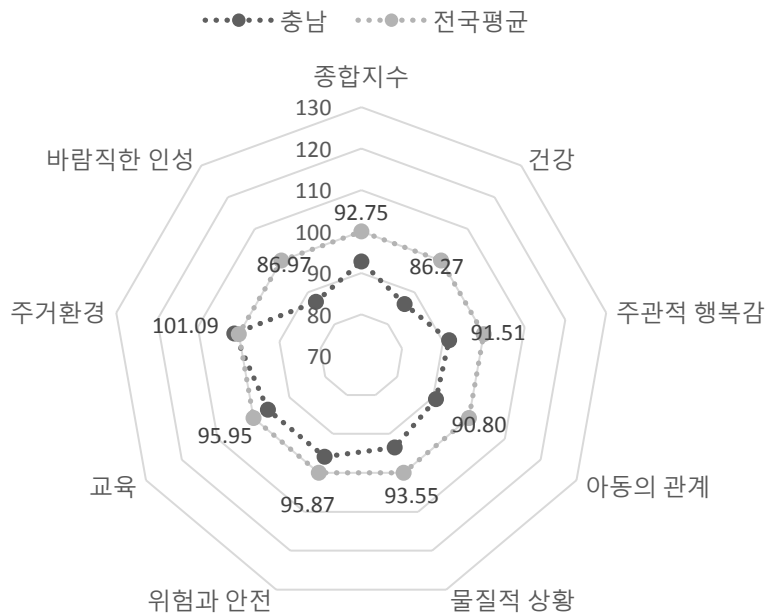


그림 66. 2013 충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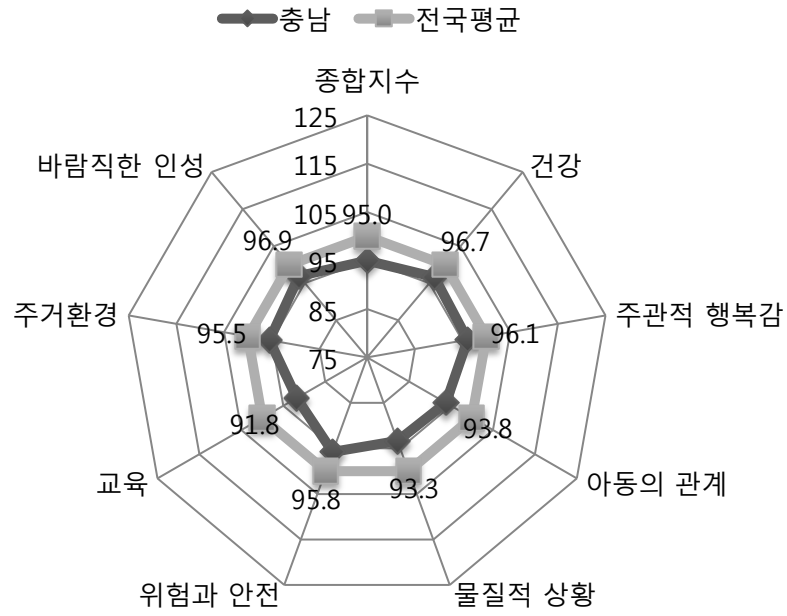


그림 67. 2012 충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14) 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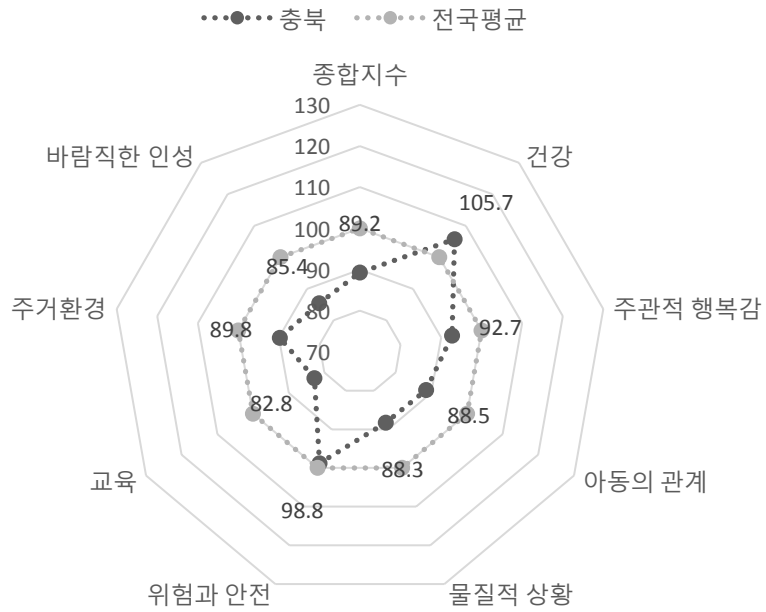


그림 68. 2015 충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그림 69. 2013 충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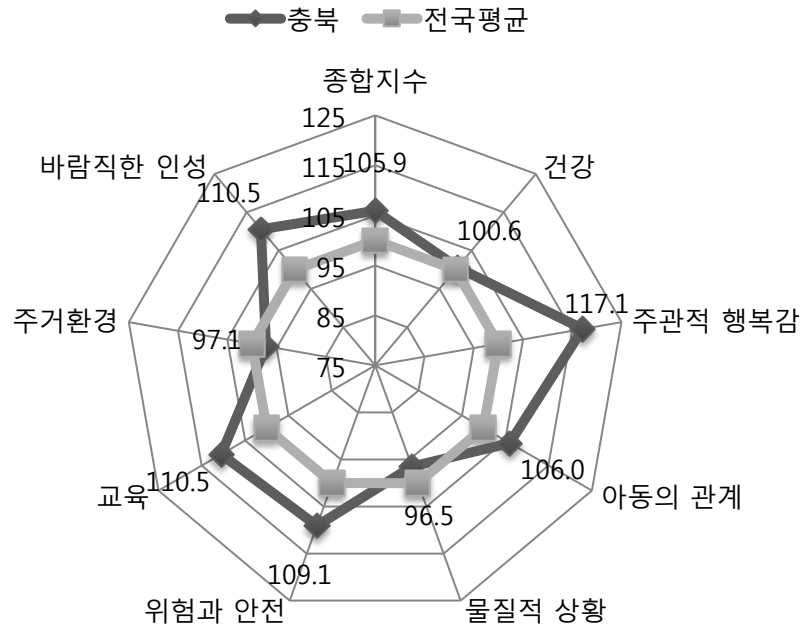


그림 70. 2012 충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15)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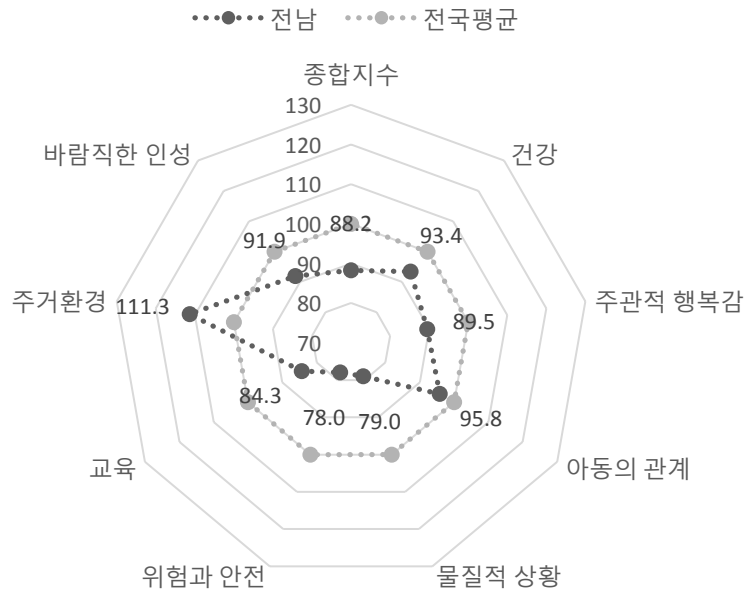


그림 71. 2015 전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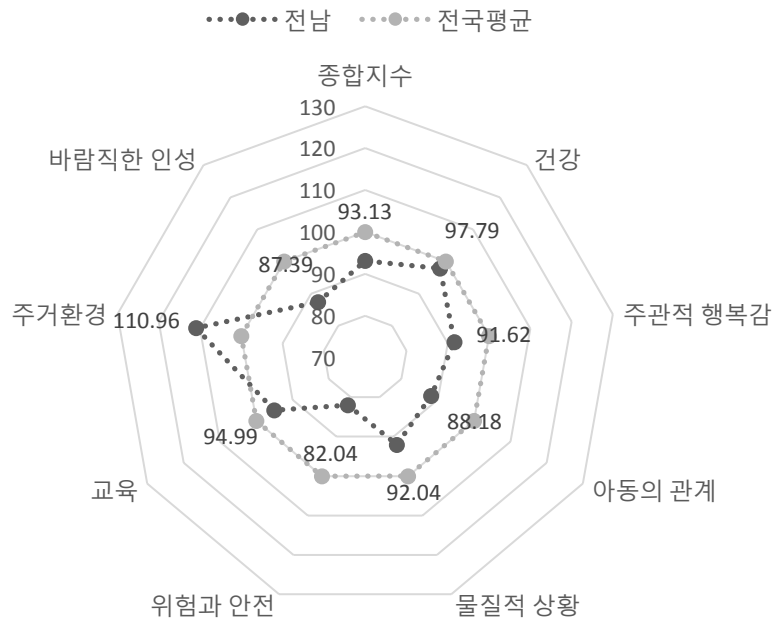


그림 72. 2013 전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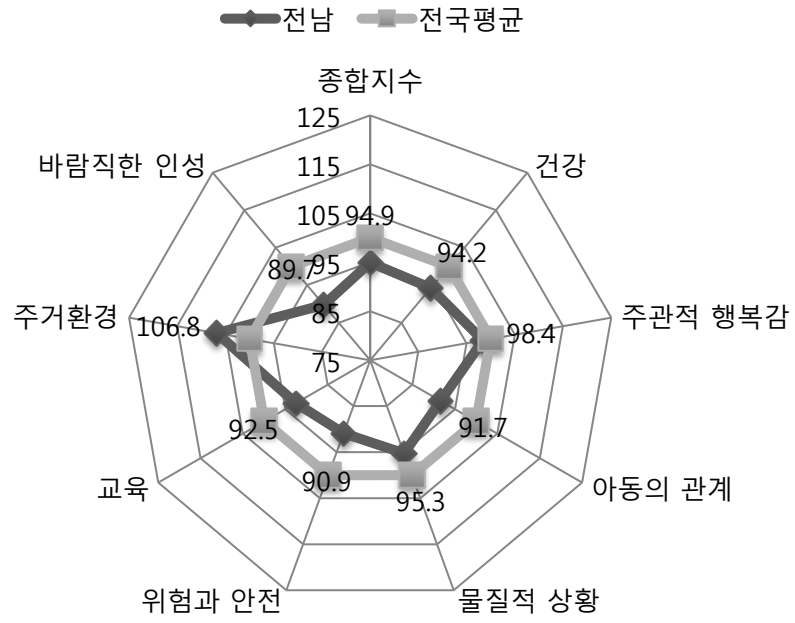


그림 73. 2012 전남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16)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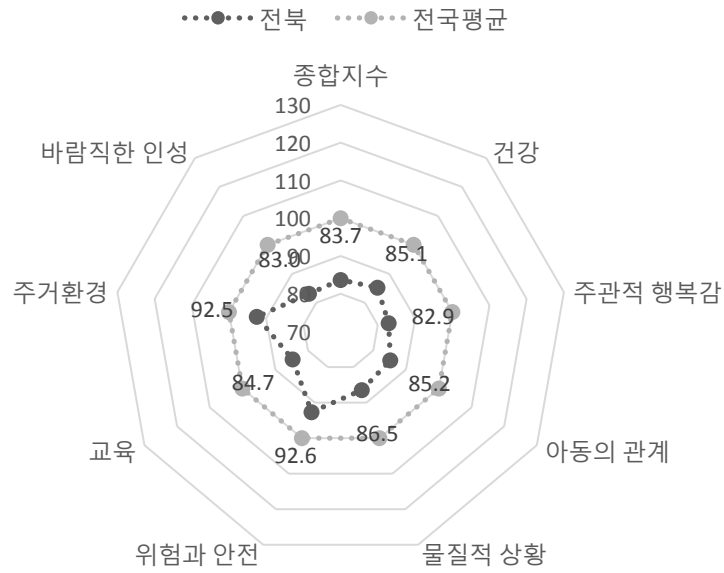


그림 74. 2015 전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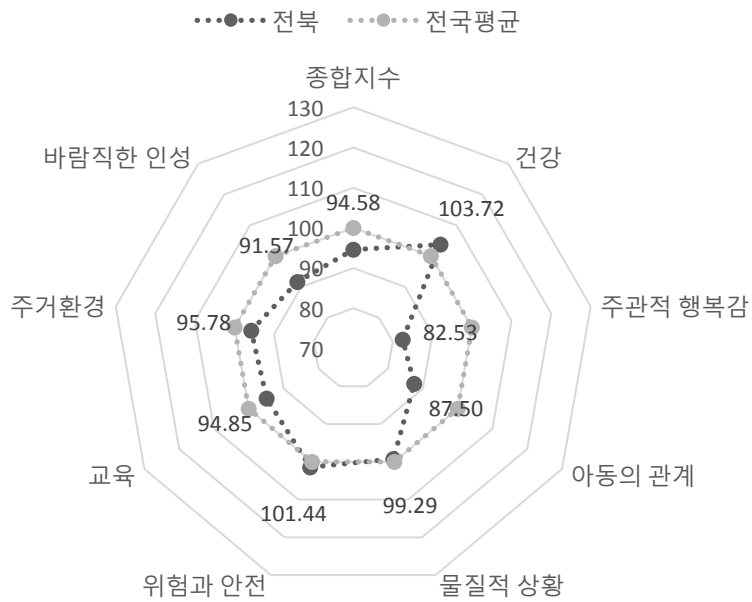


그림 75. 2013 전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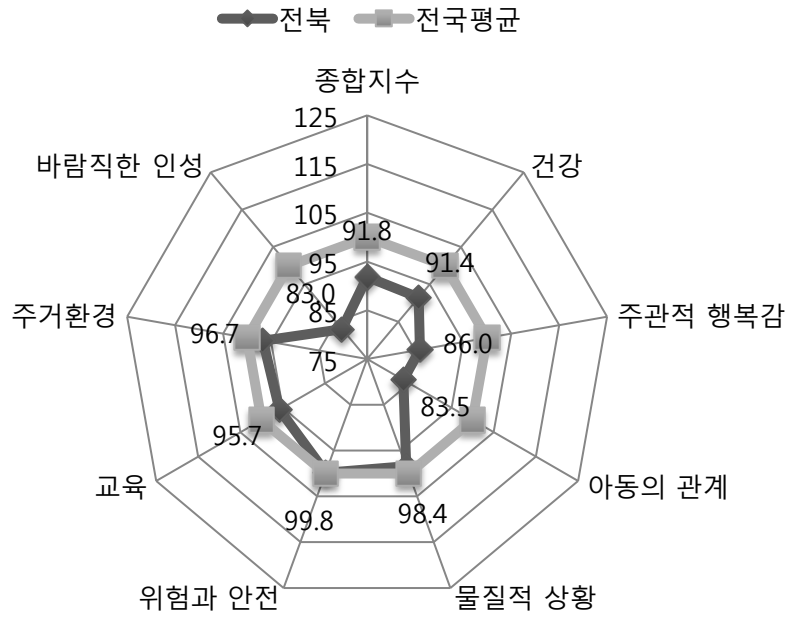


그림 76. 2012 전북 지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결과

6. 아동 삶의 질의 도시규모별 격차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간에는 아동 삶의 질의 격차가 존재함.

- 이 수치는 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0이며, 세 집단이 전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줌.
- 대도시 지역이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비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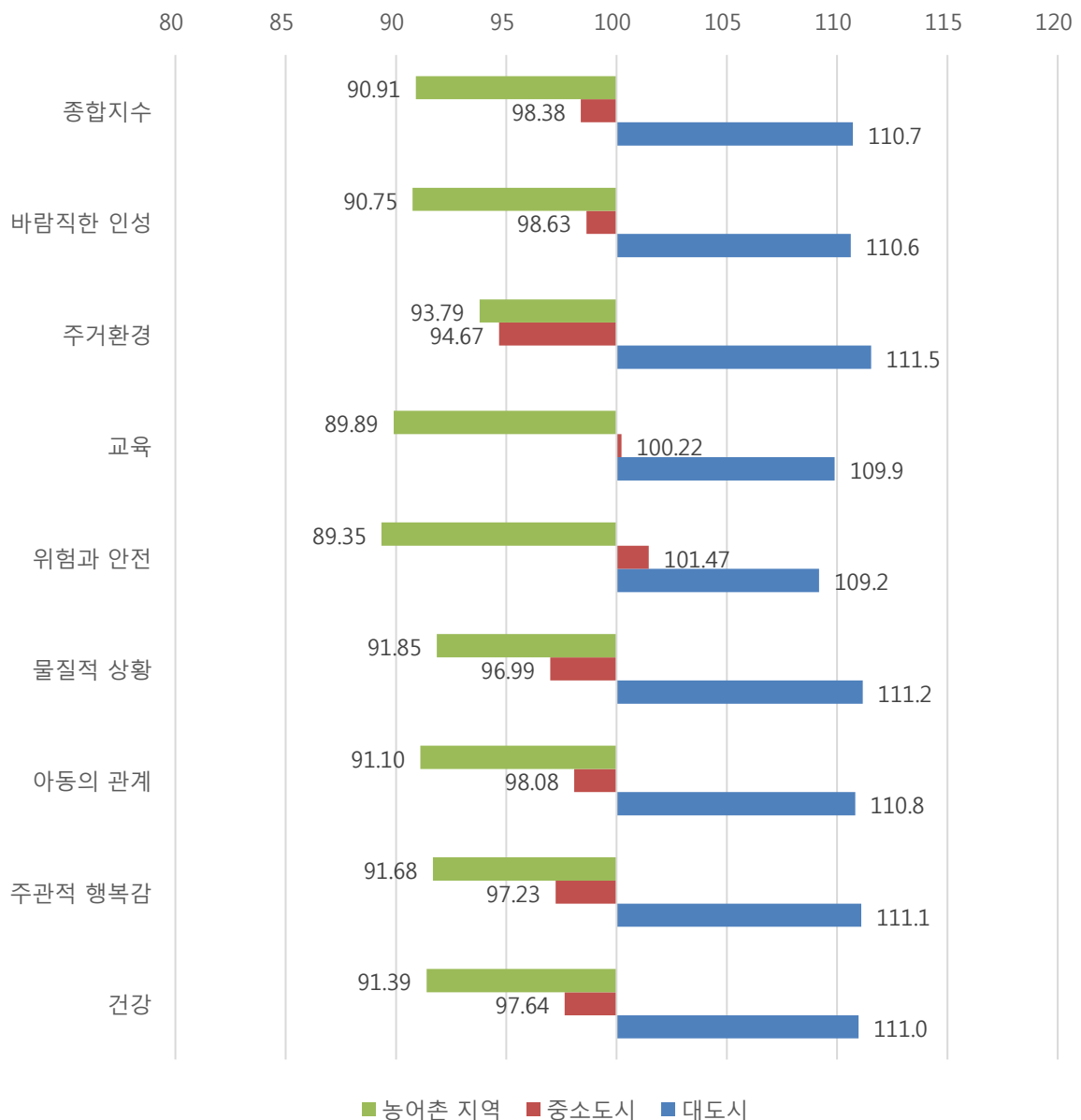


그림 77. 도시규모에 따른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의 차이 (2015)

7.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 사회지표와의 관계

- 16개 시도별 아동의 삶의 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사회복지 예산비중, 아동학대 사례 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의 예산액이 전체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재정여건과 변화, 투자방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및 복지정책수립 기준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음.
 - 아동학대 사례 수는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의 수를 의미함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2014: p. 103).

표 6.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와 시도별 사회지표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 ¹	복지예산비중 ²	아동학대 사례 수 ³
CWBI	Pearson 상관계수	.667**	.653**	-.632**
	유의확률 (양쪽)	.005	.006	.009
	N	16	16	16

주) 1. 자료출처: 행정자치부(2016)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비중(시도)"

2. 행정자치부(2016) "재정자립도"

3. 자료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03

4.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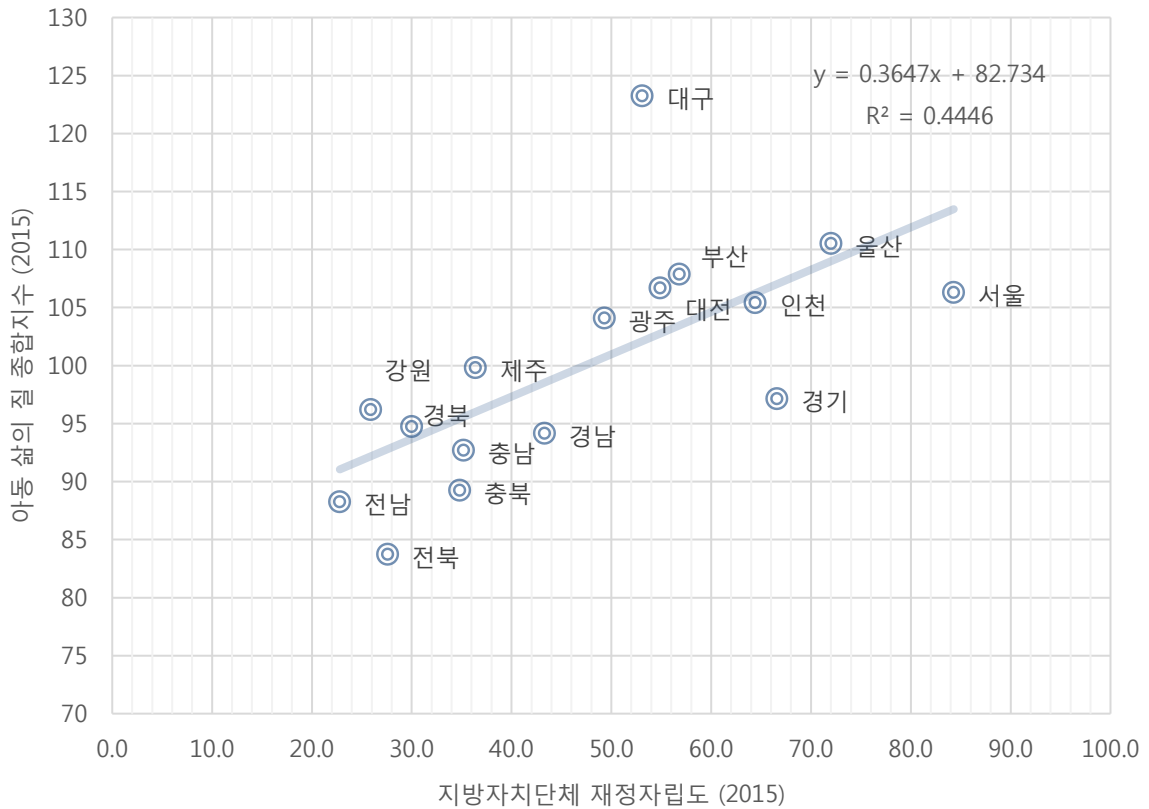


그림 78.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와의 관계

-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아동의 삶의 질은 높은 관련이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r=.667$ 로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함 ($p<.01$)
 -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아동의 삶의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2)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과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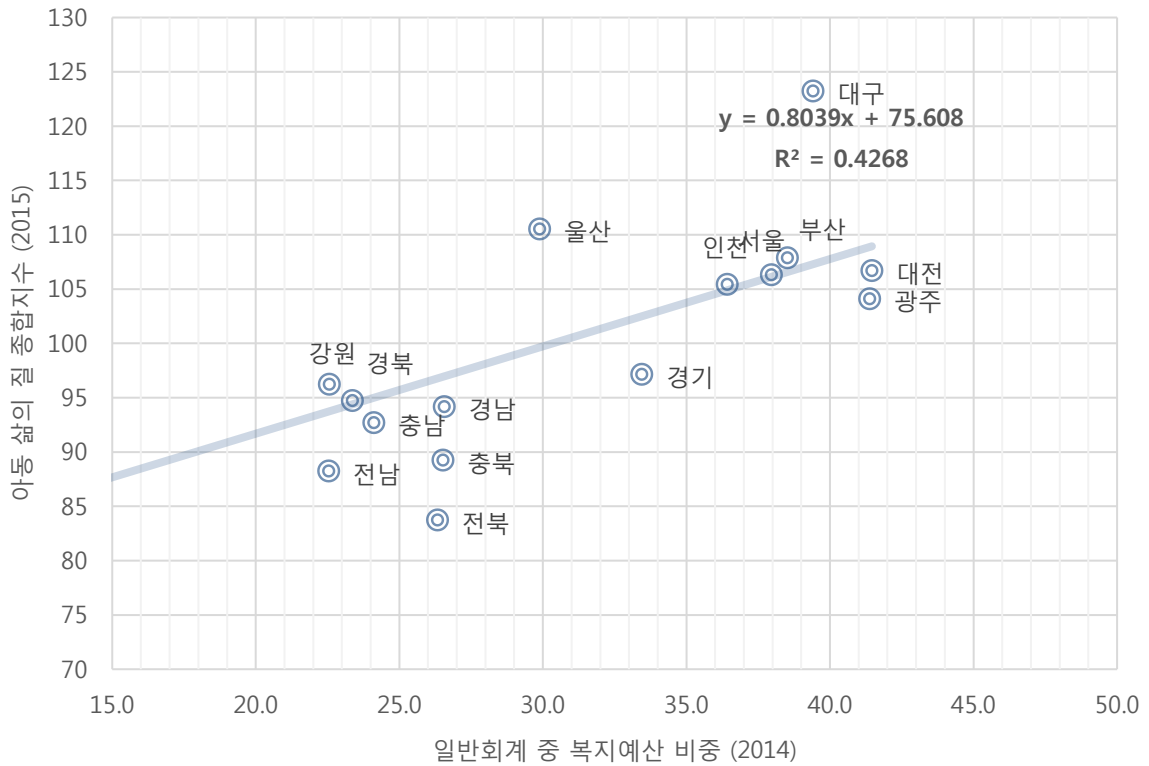


그림 79.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과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와의 관계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과 아동 삶의 질 간에는 높은 관련이 있음.
-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과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r=.653$ 으로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함 ($p<.01$).
 -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에 따라 아동의 삶의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3) 아동인구 천명당 아동학대 발생률과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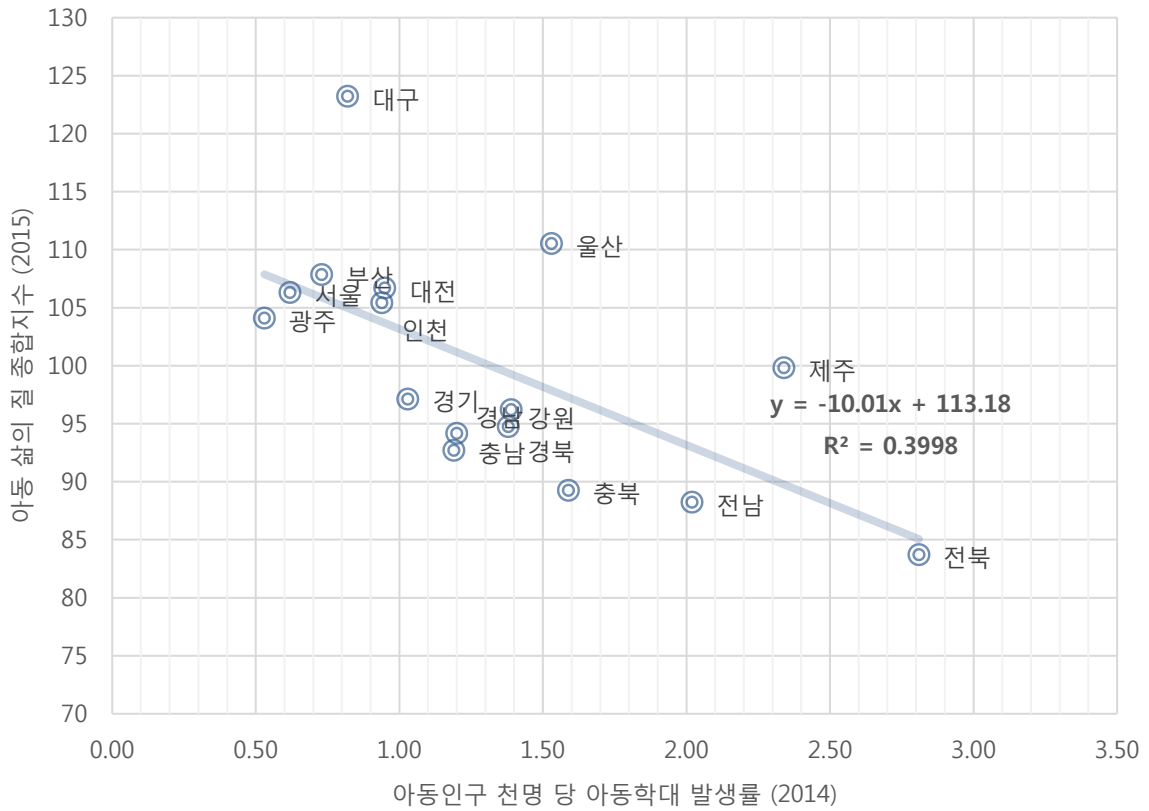


그림 80. 아동인구 천명당 아동학대 발생률과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와의 관계

- 아동인구 천명당 아동학대 발생률과 아동의 삶의 질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임. 즉,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으면 그 지역 아동들의 삶의 질은 낮은 경향을 보임.
 - 아동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와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r = -.632$ 으로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함 ($p < .01$)
 -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의 아동인구 천명당 아동학대 발생률과 개별아동의 삶의 질 간에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

4) 사회적 지표와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와의 관계 종합

- 아동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중이 아동 삶의 질이 낮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아동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수가 낮은 지역에 비해 확연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5년까지 계속해서 아동의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 지역들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고(전남, 전북), 복지예산비중 역시 30% 미만이며(전북, 전남, 충북, 충남), 아동학대 신고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많음 (전북, 전남, 충북).

8. 아동 삶의 질의 추이 변화: 핵심 지표들을 중심으로

- 한국 아동들의 삶의 질 수준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석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CWBI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8개 하위 영역에서 각각 핵심 지표를 선정하여 비교하였음. 그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초기 수준이 유지되거나, 거의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81에서 그림 88까지 참조).
 - 건강, 위험과 안전, 교육 등의 영역은 초기 값이 유지되는 경향.
 - 주관적 행복감, 관계, 거주환경, 바람직한 인성 영역은 약간의 향상이 있었으나 미미한 수준임.
 - 물질적 상황 영역의 소유한 도서가 10권 미만의 비율은 증가되어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7 참조).

표 7. 아동 삶의 질의 추이 변화: 핵심 지표

영역	핵심 지표	2012	2013	2015
건강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4.14 (.827)	4.19 (.794)	4.14 (.834)
주관적 행복감	전반적인 행복감	7.87 (2.261)	7.93 (2.134)	8.05 (2.169)
아동의 관계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3.97 (.942)	4.07 (.897)	4.06 (.918)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	3.48 (.884)	3.67 (.858)	3.65 (.893)
물질적 상황	소유한 도서가 10권 미만 아동 비율	3.4% (.180)	3.2% (.175)	5.8% (.234)
위험과 안전	학교폭력 피해 (폭행)	19.4% (.396)	16.9% (.375)	21.0% (.408)
	학교폭력 피해 (따돌림)	6.7% (.249)	6.5% (.246)	7.2% (.258)
교육	전반적 학업성취도	3.55 (.935)	3.63 (.913)	3.60 (.926)
거주환경	부모의 지역사회 안전 인식 비율	24.74 (.242)	29.64 (.266)	31.94 (.277)
바람직한 인성	이타심 정도	2.97 (1.014)	3.18 (1.017)	3.17 (1.044)

1) 건강 영역: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그림 81.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추이(건강영역, 2012-2015)

2) 주관적 행복감 영역: 전반적인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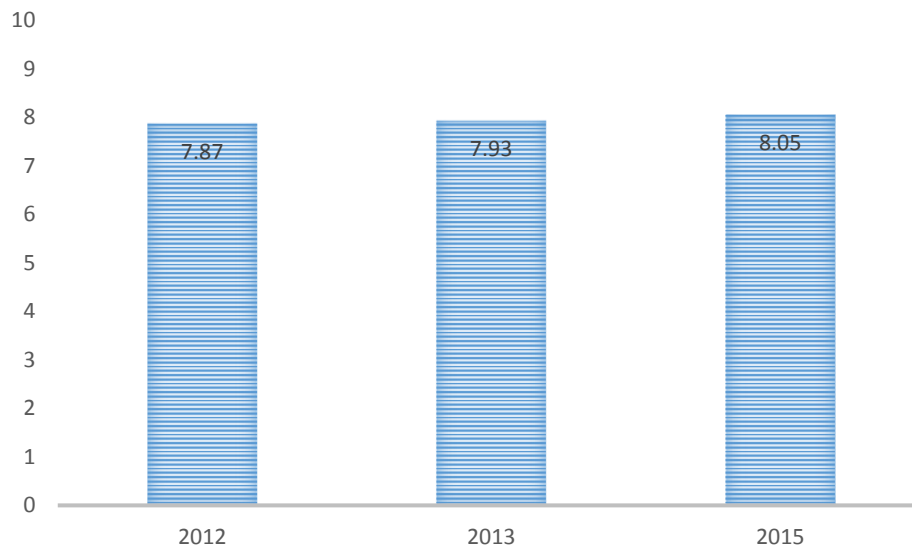


그림 82.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 추이(주관적 행복감 영역, 2012-2015)

3) 아동의 관계 영역: 부모·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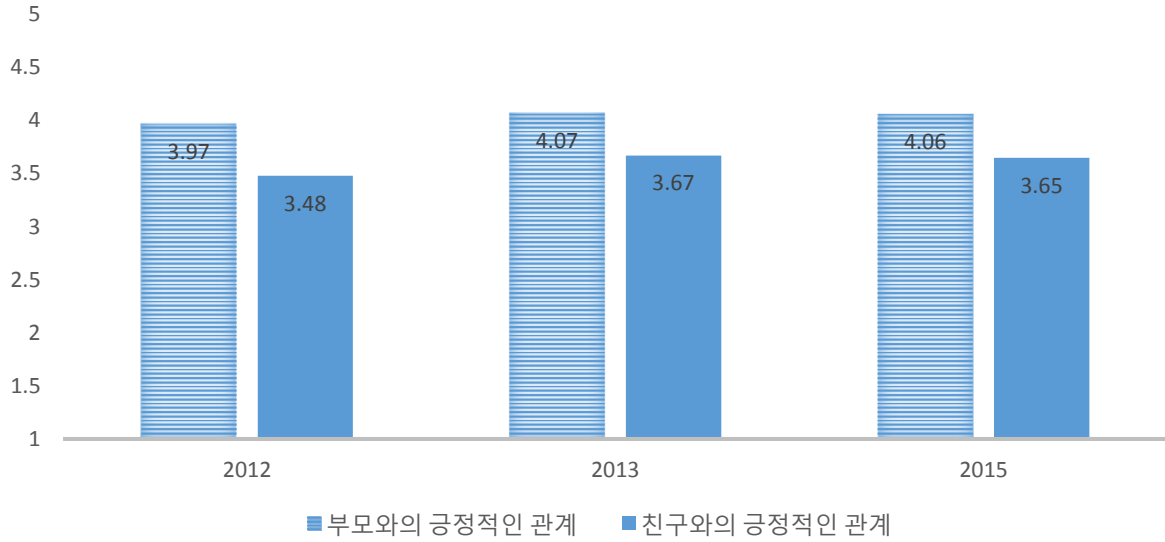


그림 83. 부모·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변화 추이(아동의 관계 영역, 2012-2015)

4) 물질적 상황: 소유한 도서가 10권 미만 아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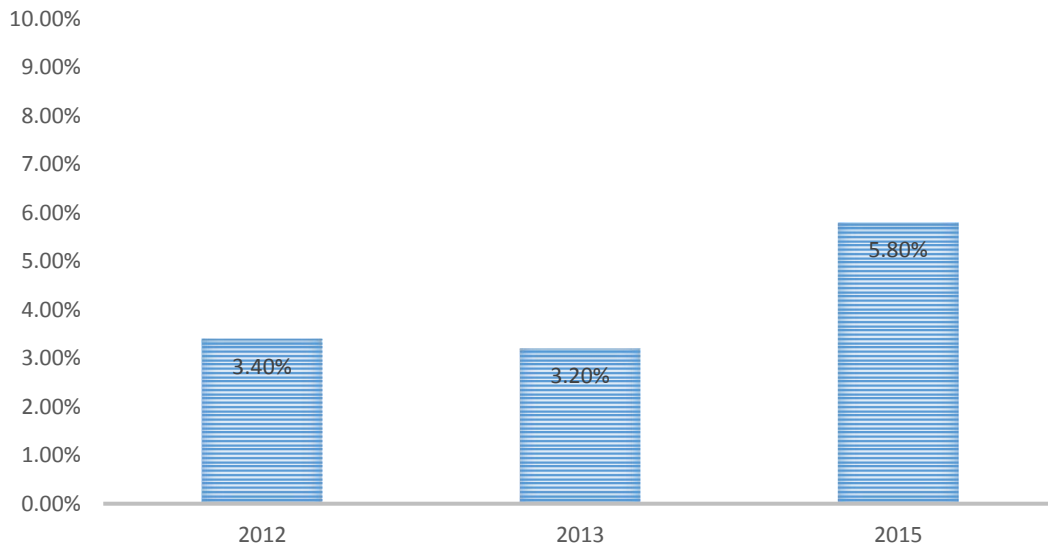


그림 84. 소유한 도서가 10권 미만 비율 변화 추이(물질적 상황 영역, 2012-2015)

5) 위험과 안전 영역: 학교폭력 피해(폭행·따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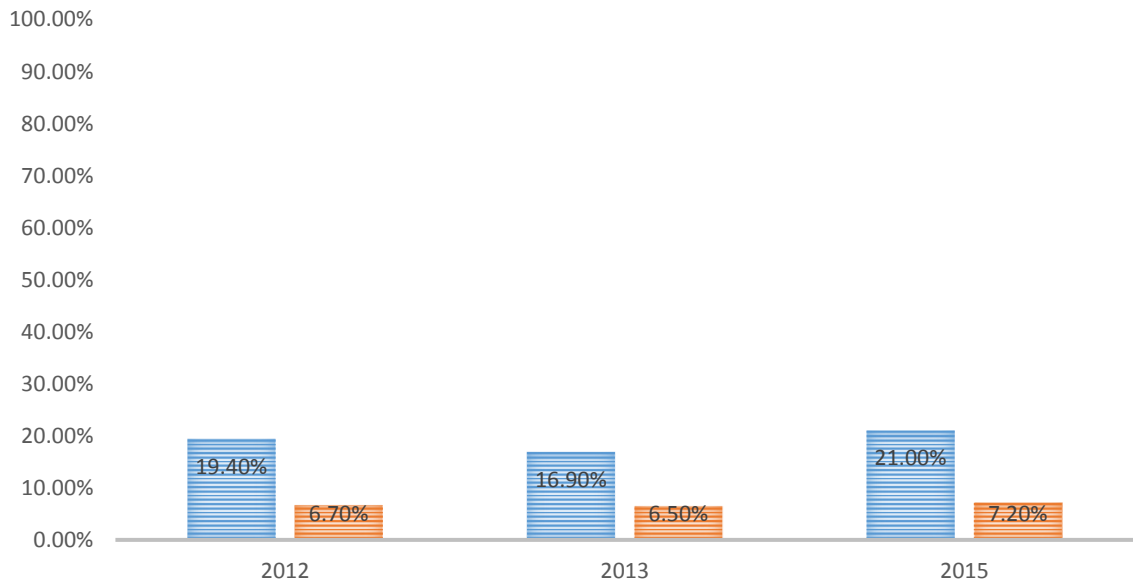


그림 85. 학교 폭력(폭행, 따돌림) 변화 추이(위험과 안전 영역, 2012-2015)

6) 교육영역: 전반적 학업성취도 (주관적 학업성취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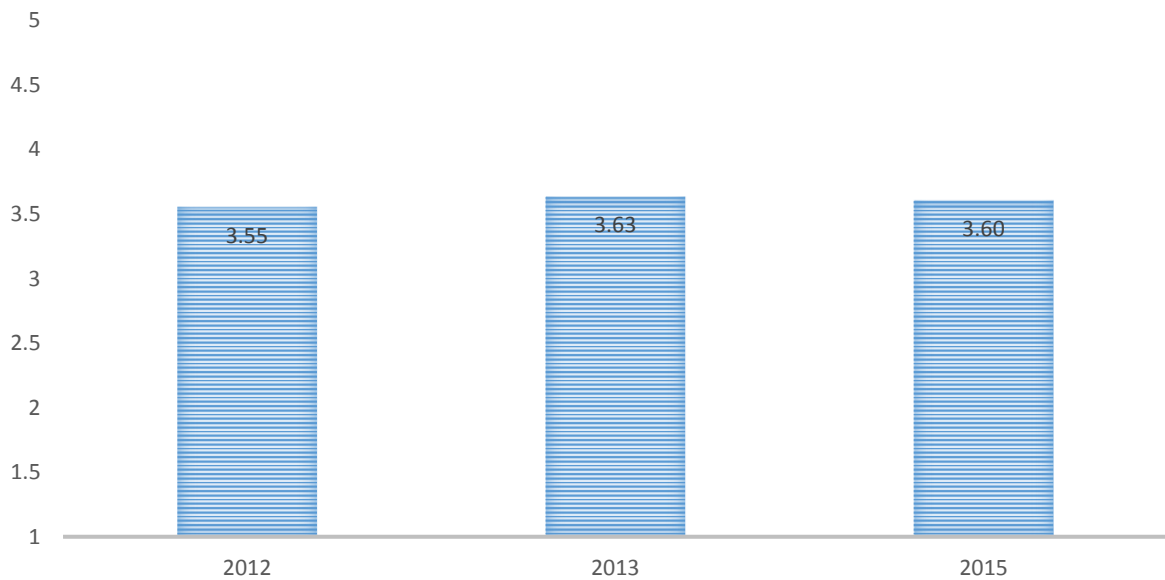


그림 86. 전반적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교육 영역, 2012-2015)

7) 거주환경 영역: 부모의 지역사회 안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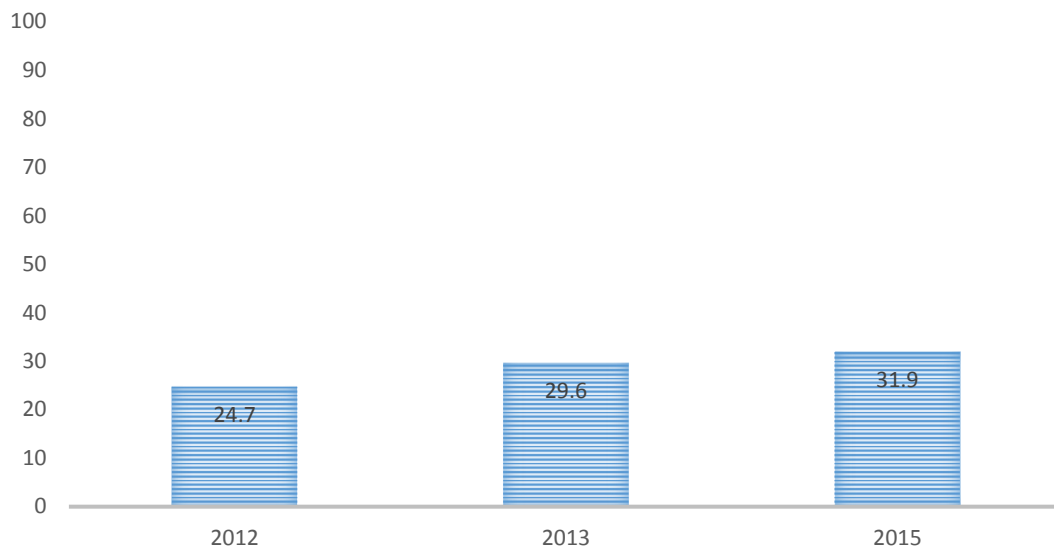


그림 87. 부모가 지역사회를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거주환경 영역, 2012-2015)

8) 바람직한 인성 영역: 이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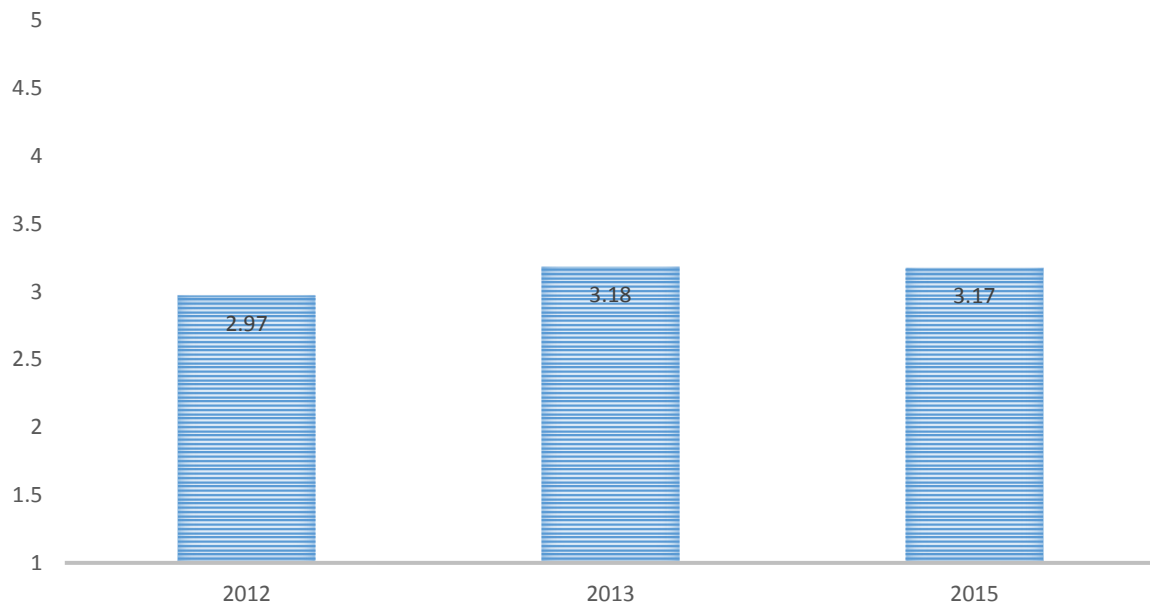


그림 88. 이타심의 변화 추이(바람직한 인성 영역, 2012-2015)

2부. 왜 중학생이 되면 행복도가 낮아질까?

: 중학생의 시선에서 본 행복과 그 변화

발표: 안재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초점집단면담(FGI) 개요

2015년에 실시한 아동 행복도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에서, 한국 아동들의 행복도는 다른 비교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들의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은 전세계의 공통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유독 중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행복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국제적으로도 초등학생 시기의 행복도 차이보다 중학생 시기의 행복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적 데이터의 결과를 토대로, 실제 한국 아동들이 중학교 진학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실시하여 실제 아동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다.

이에 연구진은 2016년 2월 한달 간 전국을 6개 권역(강릉/강원, 광주/전라, 대구/경상, 대전/충청, 서울 및 수도권)으로 나눈 후, 권역별로 1개교씩 총 6개의 학교를 방문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 46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표 8 참조). FGI 참여 인원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 참여자들의 성비는 남자가 15명, 여자가 31명으로, 여학생의 참여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표 9 참조).

연구 참여자의 선발을 위해 연구진은 전국 6개 지역의 설문조사 응답 학교에 FGI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응한 지역별 각 1개교에 부모 및 아동용 설명서와 동의서를 배포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인 아동과 그 보호자가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 진행방법 등을 알고, 연구참여의 자발성 및 비밀보장, 보상, 안전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와 아동 모두 FGI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절차는 서울대학

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어 진행되었다⁵.

FGI는 약 1시간 동안 연구진들이 연구참여자들에게 비구조화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특히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아동이 느끼는 행복의 주요 영역과 초등학생 때와 비교했을 때 느끼는 차이, 그리고 삶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별 조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하였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FGI 응답결과를 2차년도 연구 당시 수행했던 초등학생 대상 FGI 결과와 비교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행복에서 급격하게 멀어지는 이유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표 8. FGI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16개 시도의 중학교 1학년 중 조사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¹
조사지역	전국 6개 권역(강릉/강원, 광주/전라, 대구/경상, 대전/충청, 서울 및 수도권). ²
조사방법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표본크기	학생 46명
대상선정방법	6개 권역에서 각 1개교씩 선발
조사기간	2016년 2월

주1) 대구 지역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주2) 최종적으로 서울, 경기, 대구, 전남, 강원, 충남 소재의 학교가 선정됨.

⁵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번호는 1509/002-004 이다

표 9. FGI 참여자의 지역별, 성별 구성

지역	학년	성별	인원(명)
강원	중1	여 9	9
경기	중1	여 4, 남 5	9
대구	중2	여 3, 남 3	6
서울	중1	여 6, 남 2	8
전남	중1	여 3, 남 3	6
충남	중1	여 6, 남 2	8
합계		여 31, 남 15	46

2. FGI 응답 결과

연구진들은 아동들의 행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양하게 질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이 현재 느끼는 행복의 의미와 중학교 진학 이후의 행복감의 변화와 그 이유,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의 자신의 행복에 대한 예상, 마지막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본인 및 사회에 필요한 변화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1) 행복의 주요영역

연구진들이 아동들에게 “행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어떨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동들은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시간사용(자유/여가)’과 ‘(긍정적/부정적) 감정’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등 아동을 둘러싼 주요한 체계들이 아동의 행복을 결정짓는 주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행복의 주요 영역별로 행복할 때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의 키워드를 정리하면 표 Ⅲ-3과 같다.

표 10. 행복의 주요영역 키워드

행복하다고 느낄 때	주요영역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하고 싶은 것을 함 좋아하는 것을 함 여가시간을 즐김 먹는 것/자는 것/쉬는 것/노는 것	시간사용 (자유/여가)	해야 할 일이 많음 하고 싶은 것을 못함 간섭 받음 하기 싫은 걸 해야 함 잠을 못 잠/ 피곤함
성취감/편안함/만족감/기분 좋음 부족함 없음/걱정 없음/걸림돌이 없 음/힘들지 않음	감정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함 뭘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 관심/칭찬/인정 받음	관계	남들과 비교 당함 인정받지 못함
가족과 함께 함 가족과 대화 가족과 여행 가족이 무언가 해줌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	가족	가족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음. 남들과 비교함. 형제자매와 차별함
친구와 함께 함 친구와 대화 친구와 노는 것 친구가 무언가 해줌	친구	소외감을 느낌 험담/막말을 함 보기 싫은 행동을 함 갈등(불일치)이 생김 친구와 다툼
수업 빠질 때 학교 끝났을 때 좋아하는 과목을 들을 때 점심시간/쉬는 시간	학교	싫은 수업을 들어야 할 때 선배가 괴롭힐 때 수업을 이해하지 못할 때 공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혼날까 봐 걱정될 때(숙제, 준비물 등)
이웃이 좋음 환경이 좋음 동네가 좋음	지역사회	-

(1) 시간사용(자유/여가)

연구 참여자들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 자유로운 시간사용과 여가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대다수의 아동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여가

생활을 즐길 때" 행복한 반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끔 "간섭" 받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행복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① 행복하다고 느낄 때: 자유로운 시간 사용

- 뭐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직접 쟁취하고 그런 거. (강원 B)
-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경기 A)
-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대구 B)
- 자유나 아니면 진짜 원하는 거 할 때. (서울 D)
-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충남 B)
- 놀 때 제일 행복해요. (전남 C)

②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간섭과 통제

-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할 때. (강원 I)
- 부모님이 사소한 거에도 간섭을 심하게 할 때. (경기 B)
- 이제 집에 학원 갔다가 할거 하고 잠깐 쉴 때, 쉰다고 뭐라고 그럴 때. (대구 F)
-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정신 없이. 너무 버거운.. (무엇?) 음 막 숙제나 공부 막 밀렸을 때. (서울 H)
- 못 놀 때. (왜?) 아, 뭐 그냥... 부모님이 나가지 말라고 그럴 때도 있고. 숙제 같은 거 해야 할 때도 있고. (전남 C)

(2) 감정

아동들은 행복을 '성취감', '편안함',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정적인 것(걱정 등)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었다. 반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

였다.

① 행복하다고 느낄 때: 긍정적인 심리상태 혹은 부정적인 것이 없는 상태

- 저는 걱정이 없을 때? (뭐가?) 그냥 시험 점수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같은 게 없을 때. (강원 F)
- 안 힘들 때 (어떤 면?) 육체적으로. (경기 A)
- 즐거울 때. (경기 D)
- 그냥 평소에 웃다가 행복할 때. (서울 F)
-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 다른 사람이 부탁한 일을 다 해냈을 때. (서울 C)
- 뭔가 일을 하고 보람찰 때 행복한 느낌이 들고. (전남 B)
- 충분히 만족할 때. (충남 G)

②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

- 만족하지 못할 때. (강원 D)
- 뭐 그.. 하고 싶은 거 참고, 참아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대구 C)
- 노력한 만큼 무슨 일이 잘 안 나올 때. (서울 A)
- 안 행복할 때는,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전남 B)
- 성적 안 나올 때.... (충남 A)

(3) 관계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자주 언급했던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 외에도 불특정한 주변인들과 "어울리는 것"과 그들에게서 "칭찬/인정/관심"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답하였다. 반면, 누군가와 "비교" 당하거나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다.

① 행복하다고 느낄 때: 관심/칭찬/인정 받음

- 그냥 같이 어울릴 때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누구랑?) 친구랑 있을 때, 가족이랑 있을 때, 그럴 때. (강원 I)
- 생일 때 (왜?) 남들의 축하를 받을 수 있어서. (경기 I)
- 인정받을 때. (대구 A)
- (가족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거 해내서 칭찬 받을 때. (서울 A)

②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비교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함

- 비교 당할 때. (강원 G)
- 공부에 대해서 누구와 비교할 때 기분 나빠요. (누구한테?) 음.. 그냥 학원 선생님들한테? 애는 말귀 잘 알아듣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경기 C)
- 선생님께 타박 받을 때, 꾸중 들을 때. (경기 I)
- 저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혼날 때. (대구 B)
- 억울하게 혼날 때. (누가?) 어머니 선생님이나... (서울 G)
- 인정받지 못하거나 잘 해도 칭찬받지 못할 때. (서울 D)
- 네. 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하라고 할 때. (충남 H)

(4) 가족

아동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특히 '가족'과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거나, TV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가족이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부모님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형제자매와 차별하거나,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① 행복하다고 느낄 때: 가족과 함께 함

- 저는 어... 집에 왔을 때 가족들이 반겨줄 때. (대구 C)
- 가족하고 여가 생활 같은 거 보낼 때. (어떤?) 여행이라든가 영화 본다든가 할머니네 집 간다든가. (서울 A)
- (가족이) 원하는 걸 들어주거나 원하는 곳을 같이 놀러 갔을 때. (서울 C)
- (가족이) 말했을 때 상냥하게 대답해줄 때. (서울 E)
- 저는 (가족과)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요. (충남 E)
- (가족과) 다 같이 TV 볼 때. (충남 C)

②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가족과의 불화

- 엄친아랑 나랑 비교할 때. (부모님들이?) 서울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학원을 정말 열심히 가고, 공부도 잘 해요. 개랑 맨날 비교할 때. 개는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데 너는 11시 땡 치면 들어 가냐. (경기 I)
- 뭔가 다른 엄마들은 해주는데 나한테는 안 해줄 때? (예를 들어?) 용돈 같은 거...? (대구 D)
- 다 오빠 편만 들고, 오빠가 잘못했는데 저한테만 뭐라고 할 때. (충남 C)

(5) 친구

가족과 마찬가지로 친구들에 대해서도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행복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들이 많았다. 반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친구가 험담 혹은 막말은 한다거나 보기 싫은 행동을 할 때, 관계가 좋지 못할 때 행복하지 않다고 하였다.

① 행복하다고 느낄 때: 친구와 함께 함

- 친구가 비위 맞춰줄 때. (경기 I)

- 친구랑 놀았을 때 재미있으면 행복한 것. (대구 D)
- (학교에서) 친구랑 얘기할 때. (서울 D)
-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놀 때 친구들이랑. (서울 A)
- (학교에서) 애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충남 C)
- (친구와) 웃고 떠들 때. (충남 D)

②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친구와의 갈등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걸림돌 생겼을 때. (강원 E)
- 친구가 나 험담할 때. (경기 I)
- (친구들과) 의견 안 맞을 때... (전남 F)
- 뭔가... 눈치 볼 때? (어떤 때? 친구 사이에서 뭔가 낚새가 좀 이상할 때?) 네... (전남 B)

(6) 학교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행복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반면, 선배와의 관계나 수업에 대한 부담감, 선생님에게 혼날까 봐 걱정할 때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 했다.

① 행복하다고 느낄 때: 공부 안 하는 시간

- 수업 안 하고 놀 때. (서울 G)
- (학교에서) 체육 할 때. (서울 B)
-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서울 F)
- (학교에서) 공부 안 할 때. (충남 A)
- 학교 끝날 때. (충남 E)

②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선배와의 관계, 수업에 대한 부담 등

- 싫은 선배가 막 나 보고 이야기할 때. 키 작아서 뭐 그러고... 제가 싫어하는 거 할 때. (전남 F)
- 수업을 나갔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전남 A)
- 그.. 뭐랄까... 내가 왜 여기에서 이걸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때?) 아무 대책 없이 공부할 때... (전남 B)
- 조그만 일에 걱정할 때 (어떤 일?) 만약에 책을 안 갖고 왔으면... 혼나면 어찌지? (전남 D)

(7)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의 연구참여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이나 이웃이 좋아서 행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복한 이유가 특별히 지역사회의 특성과 관련되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사회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거의 없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동네에서) 만약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은 인사하고 뭐... 칭찬해주니까. (충남 F)
- 사람이 많아서 좋아요. (충남 A)
- 주변의 집들이 다 가족... 친구.... 여기 학교.. 다녀서? (충남 H)
- 놀 곳이 많아요. (어디?) 친구 집. (충남 D)
- 그냥... 다니는 길이 좋아요. (충남 G)
- 음... 슈퍼가 많아서 좋아요. (충남 E)
- 조용해서 좋아요. (충남 C)
- 그냥 우리 집이니까. (충남 B)

2) 중학교 진학 이후의 변화

"~ 때 행복하다고 했는데, 지금의 삶에서 그것(조건)들이 잘 충족되고 있나요?", "초등

학교 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와 같은 질문을 필두로, 연구진들은 초등학교 때의 행복감과 중학교 진학 후의 행복감과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와의 행복감 비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때가 더 행복했다고 명확히 응답한 아동의 비율과 지금(중학교)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아동의 비율은 비슷하였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에 있어서는, “지금 더 행복하지 않다”는 쪽의 이야기들이 더 자세하고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초등학교 때와 비교하여 변화한 행복의 주요 영역은 앞 절에 서술된 행복의 주요영역과 공통적인 부분으로 ‘시간사용’, ‘관계’, ‘가족’, ‘친구’, ‘학교’이었으며, 이 외에도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외모’와 관련된 부분이 새롭게 언급되었으며, 초등학교 때와 지금(중학교)의 행복감이 변함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내용면에서 보면 생활이나 친구관계 등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행복감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있는 반면, 변화는 있지만 변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책임이 커지는 대신 인정을 받음, 놀이시간은 줄어들었지만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음 등)이 상쇄되어 전반적인 행복감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11. 중학교 진학 이후의 행복의 조건 변화 키워드

긍정적 변화	주요영역	부정적 변화
계획성 있는 삶	시간사용 (자유/여가)	자유롭지 못함 통제가 많음 시간이 부족함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함 여가시간이 줄어들음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함
스스로 결정권이 생김	관계	고민을 혼자 해결해야 함

<p>전보다 더 어른으로 대접해줌 부모님과 말이 통함 사춘기가 지나면서 갈등이 해결됨</p>	<p>가족</p>	<p>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음 가족과 대화가 단절됨 가족과 나쁜 이야기만 서로 하게 됨 아침 등교시 갈등이 있음 미디어 기기 사용과 관련된 갈등이 있음 학업관련 갈등이 있음 부모님의 편애</p>
<p>새로운 친구들을 만남 친구들이 더 많아짐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학교 가 늦게 끝나서) 친구관계가 더 친밀해짐</p>	<p>친구</p>	<p>친구들 간 진입장벽이 생김 친구관계가 어려워짐/복잡해짐 친구들과 문제(다툼, 갈등)가 생김 이성친구가 없으면 소외됨 성적인 장난이 심해짐 거친 친구들이 생김</p>
<p>자유학기제라서 좋음 학교생활이 더 재미있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 학교환경 및 시설(급식, 컴퓨터, 체육 복 등)이 좋음 아는 선생님이 많아짐</p>	<p>학교</p>	<p>자유학기제 때문에 성적이 떨어짐 피곤하고 재미없음 선배의 눈치를 보게 됨 학교규정이 많아짐 선생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짐 선생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음 모둠활동에 불만이 있음</p>
<p>기회가 더 많아짐</p>	<p>학업</p>	<p>학업에 대해 스스로 부담이 생김 남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이 생김 공부/시험이 어려워짐 선생님이 시험/학업에 대한 부담을 줌 부모님이 시험/학업에 대한 부담을 줌 친척들이 시험/학업에 대한 부담을 줌 진로고민이 생김 공부시간이 늘어남</p>
	<p>외모</p>	<p>외모에 신경을 쓰게 됨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음 유행에 대한 강요(화장, 옷)</p>

(1) 시간사용(자유/여가)

시간사용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 때 여유가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여가를 즐길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자유나 여가를 주요하게 언급하였기 때문에, 중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것을 할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부정적 변화로 인지하고 있었다. 유일하게 시간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아동은 딱 한 명 있었다.

① 시간사용과 관련된 긍정적 변화: 계획성 있는 삶

- 초등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이랑 놀기만 했는데. 중학교 들어오니까 나를 계획대로 시간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충남 H)

② 시간사용과 관련된 부정적 변화: 자유로운 시간사용 불가

- 자유가 없어서. (강원 I)

- 통제되는 게 많으니까. (강원 F)

-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것을, 무언가를 찾을 수가 없는,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 (경기 H)

- 중학교 들어와서 과외도 다니고 그러니까, 저만의 시간이 부족해서 좀 그래요. (경기 D)

-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놀면 안 되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계속 공부해야 되고.. 학원 마치고도 빈 시간 있으면 그때 폰을 만지거나 여가 시간 보낼 수 없고, 그냥 숙제를 해야 되고. (대구 B)

-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내가 내 의지대로 하면 됐었는데... 중학교 때는 해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다 끝나고 해야 하니까 시간이 좀 없죠. (대구 A)

- 학원 시간 사이에 자유 시간이 없어요 휴식시간이 없어요. (서울 B)

- 그냥 쉴 시간이 준 거. 초등학교 때보다. (서울 H)

- 어~ 일단은! 엄마가 수학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뭔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R : 뭘 못해요?) 막 배우고 싶은 약기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해요. (충남 A)

- 노는 시간이,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충남 B)

(2) 관계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은 중학교 진학에 따라 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른처럼 대해주고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오히려 그런 것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으로도 보였다.

① 관계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 결정권이 생기고 존중 받게 됨

- 저도 엄마가 좀 더 날 약간 어른으로 봐주고, 초등학교 때보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간섭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초등학교 때보다 좋은 것 같아요. 사소한 걸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대구 A)

② 관계 측면에서의 부정적 변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

-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제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어요. (경기 I)

- 초등학생 때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어리광 같은 것도 막 부릴 수 있고 그런데, '중학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막 그런 거... 그래서 좀 그래요. (대구 E)

(3) 가족

중학교 진학함에 따라 부모님이 나를 어른 대접해주고 믿어주고 자율성을 존중하게 되거나, 자신도 부모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철이 들면서 갈등 상황이 많이 해결되는 등 가족관계의 안정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반면, 부모님이 바빠지거나 자신의 학업 시간으로 인해서 대화하거나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서로 서먹해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서로 화를 내고 갈등이 생기고, 형제자매와 차별하는 게 느껴지는 등

부정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

① 가족과 관련된 긍정적 변화: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됨

- 근데 중학교 와서 엄마가 좀 철 많이 들었다는 소리를 하세요. 왜냐면 옛날엔 동생들도 진짜 많이 때리고 싸우고 엄마한테 완전 화내고 엄마 시키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랬는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제가 첫째인데도 그걸 안 했는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많이 변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거든요. (강원 D)
- 초등학교 때는 한 6시 되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중학교 때는 뭔가 엄마도 나를 믿는 것 같고, 그래서 늦게 와도 뭐라 안 그러고 그러니까. 더 많이 놀 수 있고 그래서. (대구 D)
- 초등학교 때... 사춘기 와가지고...부모님과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했고. 그때 막, 누나들이랑도 많이 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쪽으로... (전남 B)
- 이제 좀... 제가 뭐 해보겠다고 하면, 고민하시고 "아~ 한 번 해봐라." 막 이럴 때도 계시고~ 초딩 때는 무조건 "안돼, 엄마랑 같이 해." 막 이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전남 E)
- 부모님과 통하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중략)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약간 하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엄마 아빠 싸울 때 말하는 거 들으면, '아~ 이래서 싸우는구나...' (전남 A)

② 가족과 관련된 부정적 변화: 대화 단절과 가족과의 갈등, 형제자매와의 차별 등

- 부모님과 동생들이 주는. 원래 초등학교 때는 동생들을 돌보고 이런 것을 시키질 않았어요. 갑자기 동생들을 보라고 해서. 학원에 동생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게 쪽 팔려서. (경기 I)
-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가족이랑 행복했던 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둘 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가족이랑 시간이 더 갈수록 줄고, 친구랑 있는 그런 시간이 느니까. 행복했던 것도 줄어드는 데.... 오히려 안 좋은 것도 줄고 이렇게. (대구 B)
- 음... 근데 말하는 시간 줄어드니까 좀 더 화내는 말 대신 화 좀 많아지는 것 같고, 말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화 더 내는 것 같고. (대구 D)
- 초등학교 때는요, 가족이랑 이야기 하는 주제가 되게 일상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중학교 때랑 나의 학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늘어나고 일상적인 얘기는 별로 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은 잔소리하고 나는 나대로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더 되는 것 같아요. (대구 A)

- 그냥 원래 초등학교 때는 학교 다녀와서 학원 갈게 별로 없었으니까 엄마가 간식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학원 바로 가야 되니까 엄마랑 이야기도 좀 적어지고. (서울 B)
- 초등학교 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가족들이랑 얘기하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다가 있다고 해도 숙제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니까 가족들이랑 얘기를 안 해서. (서울 C)
- 아빠가 때리는 양이 달라졌어요. (주로 어떨 때?) 게임 가서...중학생 되니까... 그냥 더 많이 때려요. (전남 A)
- 어 거의 다 대부분 애들은 핸드폰을 잡잖아요. 근데 엄마는 자기 때는 안 그랬다면 제한도 하고, 시간도 정해놓고, 뭘 좀 잘못하면 바로 폰을 뺏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전남 D)
- 엄마가 언니만... 더 신경쓰니까.... (전남 F)
- 어~ 이제 중학생 되니까. 다 오빠는.. 진학하고.. 오빠만 더 챙기고. (충남 C)
- (가족들과 시간?) 잘 안 되요. 학원 가서 바쁘고, 각자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시간도 맞추기 힘들고. 주말도 좀... 각자 하는 일이 있어서... (중략) (중학교 와서?) 중학교 와서 학원 같은 것 많이 비율을 차지해서 더 얘기할 시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충남 B)
- 다 같이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에 몇 번?) 두 번 (중략) (초등학교에 비해 가족과 시간?) 적어진 것 같아요. (충남 D)

(4) 친구

연구참여자들은 또래관계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게 되어서 좋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돈독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반면, 처음 중학교에 올라왔을 때 서먹서먹해진 것이라든지, 오히려 친한 사람들끼리만 지내게 되면서 생긴 진입장벽,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관계를 친구관계에서 부정적인 변화로 여겼다. 이 외에도 주된 의견은 아니지만, 이성 관계에서의 소외, 성적인 농담이나 장난이 심해지는 것, 친구들의 언행이 거칠어진 점 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① 친구관계에서의 긍정적 변화: 새로운 친구와 더 친밀해진 또래관계

- 음 일단 중학교에 올라와서 좋은 거 같아요 초등학교보다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그런걸 보면서 재밌는 거 같아요. (강원 F)
- 공부는 좀더 어려운데 학교가 다른 애들이 같이 오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좋아요). (경기 C)
- 음 그니까 친해지는 친구들은 더 친해지고 약간 이런 게 생기니까. (서울 D)
- 그냥 초등학교 다니던 데 말고 다른 학교에서 많이 만나니까 인맥을 더 넓힐 수 있다고 해야 할까. (서울 C)
-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충남 F)

② 친구관계에서의 부정적 변화: 복잡하고 미묘해진 또래관계

- 애들이 (성적 농담의) 수위가 높아졌어요 (중략) 암튼 중학교에 올라와서 그런지 막 애들이 이상한걸 보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 B)
- 여자애들끼리의 장난이요 초등학교 때는 막 헤더 걸고 살짝 그런 거였는데 중학교 올라오니까 막 서로 엉덩이 만지고 이런 거(가슴) 막 보고. (강원 B)
- 뭔가 친구들 사이에 진입장벽 같은 게 조금 생겼다. 초등학교 때 친하던 애들끼리, 같이 끼리끼리 뭉쳐서. (경기 B) (고덕고덕) (경기 C, H)
- 연애? 애들이 다 커플이어서 씩씩해요... (경기 A)
-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올라오자마자 친구들부터 바뀌었잖아요. 예전보다 아는 애들도 초등학교보다 많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좀 서먹서먹하고. (대구 C)
- 친구. 친구랑 좀 다투는 게 초등학교 때보다 많아지고. 욱해요. (대구 A)
- 그... 그냥 친구 관계 그런 게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초딩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끼리 무턱대고 놀고 그랬는데, 중학생 때는... 이제, 좀, 갈등도 더 많이 생기고~ 막, 따돌림이나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돼요. (전남 E)
- 선배나 인맥도 그렇고.. 그.. 약간만 잘못해도 크게 싸움이 일으키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많이 당황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SNS에 욱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신경도 쓰이고... 그래서 많이 복잡해요. (전남 D)

-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중학교가 되면은 당연히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니까 친구 수가 많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수적인 면에서잖아요. 제가 직접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다가 느끼는 것은, 초등학교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모두 어울려서 지내고 그랬는데. 말했다시피, 중학교 되면 친구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서로, 막, 여학생들이 막,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수적인 거는 증가했는데, 일단 서로 느끼는 감정적인 걸로는, 좀 더 복잡해지면서~ 서로 선 굵고 그러니까 좀 좁아지지 않았을까? (전남 E)

-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도... 괜찮은데. 중학교 들어와서 느낀 거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애가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 안 하고 놀았는데... 중학교는 가~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진짜 나를 좋아할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애가 진짜 친구인가?' 이것도 고민도 되고... (전남 D)

(5) 학교

중학교 생활이 초등학교 생활보다 더 재미있다고 하는 아동들의 경우 '자유학기제'와 같이 스스로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다. 또한 급식소나 매점, 컴퓨터, 교복 등 시설이나 시스템이 중학교가 더 낫다고 인지하는 아동들도 있었다. 한편, 교사관계에 있어서 교과별로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으며, 오히려 더 친밀감이 느껴진다고 언급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교복 등과 같은 규정이 오히려 통제와 억압으로 다가온다고 인식하는 아동들도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담임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감소하여 친밀감도 줄어들고 딱딱한 관계가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선배와의 관계에 대해서 겁을 먹게 되었으며, 모둠활동의 역할 불균등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자유학기제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이로 인해 시험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① 학교 관련 긍정적 변화: 다양한 체험과 교사관계에의 변화, 좋아진 시설

- 자유학기제. 학교에서 많이 해보고. 막 맨날 공부만 하면 머리가 복잡한데, 그런데 놀 수 있는 그런 거, 수업을 좀 해주시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경기 C)
- 초등학교에서는 별로 없었던 활동들이 중학교에 오니까 더 다양해져서. (경기 H)
- 학교자체는 초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약간 더 마주치는 쌤들도 많아지고 약간 활동자체도 초등학교 때보다 좀 더 그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예를 들면 요리 같은 거 하면 불 같은 거 아예 안 쓰고 그런 것만 했는데, 이제 중학교 되니까 조금 더 강화돼서 그런 거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대구 A)
- 자유학기제 하는데,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희 학교가 좀...막, 동아리나 체험? 이런 거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1학기 때 반 바꾸면서 수업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것도 좋고... (전남 F)
- 초등학교 때는 되게 선생님한테 다가가기가 저는 어려웠어요. 근데 중학교 되니까 뭔가 막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쉬워진 거 같아요. (강원 H)
- 초등학교 때는 담임 쌤밖에 몰랐는데 저분 누구시지, 이랬는데 중학교 올라오니까 과목마다 선생님 바뀌시잖아요 그래서 아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지는 거 같고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강원 B)
- 초등학교 때는 미술이나 체육 이런 거 빼고는 다 같은 선생님인데, 이제는 올라오니까 과목별로 다 선생님이 다르고 각자 가르쳐주시는 스타일도 다르고... 자기 공부방법이랑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 (대구 F)
- 중학교 때는 일단 종이 치니까 시계 볼 필요도 없고 밥 먹으러도 그냥 막 뛰어 나가도 되고 밥도 맛있고 따로 체육복도 있고 옷 입는 거에서 애들이 너 옷 잘입는다 이런 말도 거의 오가지 않고. (강원B)
- 컴퓨터가 (초등학교 때보다) 좋아요. (경기 I)
- 초등학교 때는 급식을 반에서 먹어서, 흘리는 게 많고 청소해야 될게 많아져서. 중학교 때는 급식소를 쓸 수 있어서. (경기 G)
- 음.. 뭐라 그래야지? 매점도 생기고. (전남 A)
- 그냥 학교 생활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어떤 면에서?) 노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서울 F)

② 학교 관련 부정적 변화: 엄격해진 규정과 달라진 교사 및 선배와의 관계

- 저는 초등학교 때가 더 자유인 거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여긴 규정이 많으니까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막 힘들어... (강원 C)
- 조금 엄격해지는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네 갑자기 교복을 입고, 교문 앞에 선생님이 서 있고 ... 벌점 상점제도 들어오고 , 갑자기 상황이 막 바뀌니까... (대구 A)
- 아, 그런 건 없는데. 초등학교 때랑은 다르게 규칙이 생겨나니까. 뭔가 좀 자유롭다기보다는 틀에 갇혀서 산다고 해야 하나... (전남 D)
- (초등학교 때는) 눈치를 안 봤죠. 근데 중학교 올 때는 살짝, 안 봐도 되는데, 그걸 약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언니들은 신경을 안 쓰는데 자기들끼리, 야 나 잘못된 거 아니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막 눈 마주치고. (강원 D)
- 초등학교 때, 되게 형이나 누나면 보통 반말을 쓴 것 같은데, 이거 되니까 웬지... 선배들 만나면 웬지 존댓말 써야 될 것 같고. (대구 A)
-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막 뭐라 해야 하지, 오구 오구 그러면서 다정하게 얘기해주시는데 여기 올라오니깐 선생님들이 뭔가 너 알아서 해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딱딱해지셨다 해야 하나 어떤 선생님은 안 그러신데. (강원 A)
- 모둠별 과제 같은 거 할 때 꼭 하는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해요. 선생님이 그런 거를 막 애가 안 하니까 너가 도와줘서 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저까지 불이익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강원 F)
- 초등학교 때는 담임 쌤이 수업을 다 하니까 거의 다하니까, 담임 선생님이랑 더 친한데 중학교 때는 종례하거나 그럴 때만 보니까 덜 친해요. (대구 B)
-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자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서. (대구 B)
- 솔직히, 자유학기제라서 진짜 좋긴 좋았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자기가 막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 자유학기제라도 시험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자유학기제 한 번 하니까,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아지구나~' (전남 E)

(6) 학업

시간사용과 더불어 학업은 아동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본인들의 행복에 가장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언급한 내용이 많은 영역이다.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진학하면서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 이로 인해 행복감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학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변화의 내용도 다양해서 단순히 공부나 시험 자체가 어려워지고 시간이 늘어난 것 외에도, 스스로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 경쟁심, 열등감에 뿐 아니라,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같은 주변 사람들이 주는 부담감과 기대부응에 대한 부담, 더 나아가 미래에 진로에 대한 고민 등 내적, 외적으로 다양한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주 소수의 아동들만이 공부를 기회로 여기고 어차피 해야 하는 관문으로서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① 학업 관련 긍정적 변화: 공부는 성장과 배움의 기회

- 어차피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공부니까 지금 좀 빨리 하고 나중에 쉬엄쉬엄. (경기 G)
- 뭔가 어 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중학교 와서 (중략) 어 공부 같은 것도 있고. (서울 H)

② 학업 관련 부정적 변화: 학업에 대한 압박감, 스트레스

-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공부에 대한 압박감도 많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그래서 중학교 올라오면 좀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강원 G)
- 설날이나 추석 때는 놀잖아요, 할머니댁 같은데 가서.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공부 안 하면 다른 애들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계속 드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강원 D)
- 압박감이 더 세졌어요. (어떤?) 공부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중학생이어서 그런 것들이. (경기 A)
-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더 할 수 있는데, 중학교에 올라오면은 공부, 시험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경기 H)
- (초등학교 때도 등수나 이런 거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는데 신경 안 썼어요. (왜 신경 쓰게

됐어요?) 고등학교 갈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서.. 수능 이런 걸 알게 되고. 약간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뭐 이런걸 알게 되니까..성적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기준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대구 A)

- (내가 공부를 못하면?) 지는 느낌. (대구 B) 열등감. (대구 A)

- 선생님이 못하는 애들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진 않는데, 잘하는 애들한테는 칭찬을 해주는데요. 그걸 보고 부럽거나 그래요. (왜?) 네,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쌤이 공부 잘하는 애 칭찬하면 재량 안 놀아야지 뭐 이런 느낌밖에 안 들었는데... (하하) 중학교 되니까. (선생님이 차별 안 한다면 즐거워질까?)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진 않은 제 스스로 그게 생각이 계속 있기 때문에... (대구 A)

- 스트레스? (뭐에 대한?) 공부... (충남 D)

- 어~ 마음잡고 뭔가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집중이나 환경이 잘 안 될 때. (충남 B)

- 저는 초등학교 때는 몰라도 됐던 게, 중학교 올라오면서 알아야 하는 게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 역사에 대한 지식을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없어도 할 수 있었는데, 중학교 오니까 역사에 대해서는 웬만큼 알아야 돼서. (경기 G)

- 딱 시험 한 번 끝나고 나면 그 초등학교 시험이랑 중학교 시험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초등학교 때 사실 커닝 해봤거든요. 중학교니까 이게 뭐. 완전 수능 같고 다 떨어져있고 막. 네, OMR로 체크하고, 초등학교 때는 그냥 바로 체크하고 그냥 냈는데. (대구 A)

- 초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가 쉬워가지고 벼락치기하면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처음에 해 놓은 게 없는데, 처음부터 다시 공부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요. (대구 B)

- 초등학교 때는 지금처럼 공부할게 많지 않아서 놀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놀 수가 없고. (서울 A)

- 몸은 좀더 편한데 정신적으로 막 어른들 만나면 아 너 이제 중학생이지? 공부 열심히 해. (맞아 맞아) 그냥 덕담처럼 해주시는 말인데 막 진짜 공부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해야 하나? (강원 D)

- 선생님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니까. 자기 담당이니까, 자기가 잘 가르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생님들이 잘 봐야 한다는 압박감을 조금은. (경기 C)

- 저는 집에서. 비교해요. 서울 사는 친구랑. (경기 I)

- 초등학교 때는 시험 뭐 어느 과목 못 쳐도 그냥 넘어갔는데, 중학교 때는 시험 어느 과목 못 치면 그 선생님이 남기니까, 막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대구 C)

- 초등학교 때는 시험 만약에 못 치면 한 선생님만 보면 되는데, 중학교 때는 다 과목 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 못 치면 이 쌤 봐야 되고, 또 이 과목 못 치면 또 이 쌤 또 봐야 되고,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대구 A)

- 그.. 성적이 나랑 관련된 사람. 부모님이나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내 친구는 잘하는데 나는 못하면 왜 그렇냐, 그런 질문하니까... (초등학교 때에 비해서 중학교 때 그런 비교가 많아졌어요?) 네... (대구 B)

- 초등학교 지나고 나면 이제 공부하는 습관도 생기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성적도 살짝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느껴지는 순간에는 약간 그런 부담감. (대구 F)

- 저도 뭐 엄마가 이제 이 나이 때 되면 애들이 다 직업 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안 그러냐 하면서 비교 당하는 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예요. (서울 C)

- 저는 엄마가 중학교 올라갔으니까 공부 좀 잘하라고 너무 초등학교 때보다 너무 그래요. (서울 E)

- 아무래도 공부하는 시간 같은 것도 더 늘어나고, 그렇고...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좀 더 뭐라고... 열심히 하라는 소리도 많이 듣는 편이고... (전남 C)

- 초등학생 때에도 공부를 강요하기는 했는데, 중학생 올라와서는 막... 직설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뭔가 부담 주는 그런 느낌 들 때. (충남 B)

- 어, 저도... 학업적 압박도 똑같고. 또 이제 중학생 되니까~ 이제 공부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커서 이제 '내가 뭐가 돼야 되지?' 그런 고민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생각할 게 더 많아지니까... (전남 E)

(7) 외모

일부 참여자들은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중학교 진학 후 주요한 변화라고 언급하였는데, 특히 여성인 참여자들이 외모와 관련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단순히 외모에 대해 스스로 관심이 늘어났다는 것 이상으로, 주변에서 화장이나 유행 등을 강요하는 것이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중학교 올라오면서 원래는 피부가 이리저리 앓았는데 갑자기 코 부분에만 약간 뾰루지들이. 약간 스트레스만 받아도 큰 거가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해도 피지도 많아지고 피부 때문에 중학교 올라와서 되게 힘들어서. (강원 D)
- 저는 스트레스 받는 게, 우리 이제 2학년에 올라가니까 지금 2학년 언니들 보면 다 화장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랑 재 같은 경우엔 피부가 안 좋으니까 하고 싶어도 계속 나잖아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데, 또 안 하면 무시할거 같고. (강원 A)
- 외모가 제일 스트레스는 아닌데 1등이 성적이라면 2등은 외모인 거 같아요. (강원 D)
- 저는 화장을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애들이 거의 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분위기 같은 게 있는 거 같아요. (강원 F)
- 네 유행에 맞추지 못하는 느낌? (강원 D)
- 초등학교 때는 거울도 안보고, 선크림도 안 발랐는데요. 중학생 돼서 막 거울도 많이 보고 외모 관련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행복할까? (하하) (대구 D)
- 다이어트. (충남 G)

3) 어른이 된 후의 자신의 행복에 대한 예상

“어른이 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동들은 다양한 성인기를 상상하여 대답하였다. 가장 가깝게는 고등학교 졸업 후나 대학 시기부터, 더 나아가는 취업 준비기, 그리고 취직 후의 직장을 가진 이후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긍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기대 모두 고르게 언급하였다. 도출된 주요영역은 역시나 항상 중요하게 언급되어있던 ‘시간사용(자유/여가)’과 ‘가족’에 관한 부분이었고, 학업 부분이 확산되어 ‘일/학업’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새롭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추가되었다.

표 12. 어른이 된 후의 자신의 행복에 대한 예상

긍정적 기대	주요영역	부정적 기대
자유로워짐 지금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여행, 연애, 회식, 운전 등)	시간사용 (자유/여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됨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음	가족	결혼을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음 돈이 없어 부모님께 보답하지 못하면 속상할 것 같음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짐 좋아하는 일(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음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음	일/학업	대학에 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함 취업 스트레스/ 취업이 점점 어려워짐 안 좋은 직장에 가면 우울할 것 같음 직장 일이 힘들 것 같음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가 힘들 것 같음 성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음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음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 부담(돈을 벌어야 한다는)이 있음 돈이 없으면 속상할 것 같음 부모님이 지원을 끊을 것 같음
	책임과 의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 납세의 의무가 생김

(1) 시간사용(자유/여가)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시간사용(자유/여가)에 있어서 성인기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들은 어른이 되면 지금과는 달리 공부만 하지 않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간섭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지금 제 나이로는 못하는 일들을 성인이 되면 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여행. (경기 H).
-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경기 A)
- (공부에만 묶여 있는 거에서) 자유로워져서. (서울 F)
- 전 그냥 성인이 되면 일단 부모님한테 공부에 대한 간섭도 안받고 그냥 자유로 돈 벌고 쓰고 먹고 그러기만 하면 되니까 편할 거 같아요. (서울 E)

- 그냥, 좀...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대학생 되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대학생활 기대하고 그런 거? (전남 B)

- 그냥 더 많은 사람 만날 거고. 좋은 사람 만날 거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었던 것...(뭘 하고 싶은데요?) 그냥 딱히 뭐가 있다기보다 이것저것 하고 싶어요. (충남 F)

(2) 가족

가족과 관련해서는 일부 아동들이 어른이 되면 새로운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것이며, 부모님들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보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여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원하지 않는 데 결혼에 대한 부담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부정적 전망을 하는 아동들도 있었다.

① 가족 관련 긍정적 기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음

- 저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아이가 생기니까 그래도 아이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강원 H)

- 음... 그때는 좀 철이 들면은... 부모님들이랑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남 B)

-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줬던 것을 다시... 되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뿌듯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전남 D)

② 가족 관련 부정적 기대: 부모님에 대한 보답과 결혼에 대한 부담

- 아, 엄마가 저희 클 때까지 대학교 끝날 때까지 취직할 때까지 우리한테 뒷바라지? 라고 하잖아요, 그걸 해주는데 그럼 우리가 커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엄마아빠한테 다시 이렇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을 그렇게 잘 벌지 못하는데 내가 생활하는데도 바쁘면 엄마아빠한테 설날에도 용돈도 못 드리고 막 이러는 게 좀 많이 속상할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강원 D)

- 만약 제가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명절 때 어른들께서 너 언제 시집 갈거니? 라고 막 저는 사

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막 선자리 알아봐준다 막 그런 거를 제가 옆에서 봤어요 저희 삼촌의.. 그런 거 때문에도 좀 많이 귀찮을 거 같아요. (강원 B)

(3) 일/학업

어떤 연구참여자들은 어른이 되면 직업 선택의 폭이 커지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며 성공할 수 있는 등의 성취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였다. 반면, 현실적인 다른 아동들은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현실, 취업에 대한 걱정, 직장을 가지고 나서도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 등 사회생활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어른이 되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① 일/학업 관련 긍정적 기대: 원하는 직업/성공을 성취함

- 성공한다면 행복하고 아직 출발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 같아요. (강원 D)
- 계속 공부하면서 커가면서, 직업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경기 G)
-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음. 수학 선생님이랑 웹툰 작가. (충남 G)
-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서. (R: 뭘 하고 싶은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यो. (충남 A)

② 일/학업 관련 부정적 기대: 취업 걱정 및 사회생활 스트레스

-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이 있는데 만약에 성적에 따라서 좋은 직장을 갈수 있고 나쁜 직장에 갈수 있는데 만약에 그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안 좋은 직장에 가면 뭔가 좀 우울하게 지낼 거 같아요. (강원 G)
- 가끔 엄마아빠가 힘든 모습을 보면 내가 커서도 저거를 나도 저걸 해야 되나? 약간 일하면서 잘 안 되면 약간 속상해 하시는 거 우리한테 티를 안 내지만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도 되면 힘들지 않을까? 학생 때 봐 줬던 거 똑같이 봐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볼 때가 있어요 (강원 D)
- 그리고 제 성격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누가 저한테 화를 확 내면 두 배로 갚아주는 그런 성격

이란 말이에요. 막 감정 컨트롤 잘 못해서 지금의 감정을 다 표출해 내야 괜찮은 그런 성격인데 나중에 회사에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상사가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막 위에서 밑에를 대우하는 게 좀 안 좋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를 가면 제가 거기서 버틸 수 있을까? 이 성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강원 D)

- 취업문제하고, 직업들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미래가 되면. 그런 걱정. (경기 I)

- 점점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면 공부가 더 힘들어지니까. (경기 E).

-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대구 B)

- 사회생활을..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약간 윗사람한테 좀 존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약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대구 C)

- 직장 구해야 하는 거. (서울 A)

- 지금도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게 뭐 나중에 어른 되어서 취직할 때 힘들고 또 뭐냐 그 만약에 취직을 해도 만일 낮은 등급이면 올라가려고 계속 더 노력해야 되고 그니까 똑같이 더 비슷할 거 같아요. (서울 C)

- 막상 대학교 가도...막... 좀 강의 듣고, 뭐, 학점 높게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신경쓰면 별로... 흐흐..그러니까... 고등학생 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한 거는 덜한 것 같아요. (전남 E)

(4) 경제적인 부분

아동들은 성인기가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직감하고 있었다. 단순히 돈을 벌게 되어 자신이 쓰고 싶은 데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연구참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부로 계층이 갈리고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① 경제적 부분에 대한 긍정적 기대: 경제적 독립, 자유로운 금전 사용

- 직업을 가지면 돈을 벌잖아요.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경기 F)

-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R 어떤 거요?) 내가 돈 벌어서 내 맘대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거? (서울 H)

- 저는 그래서 어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돈 벌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대구 E)

-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자취해서 (웃음) 혼자서 독립 독립. 독립 하고 싶어요. (서울 G)

② 경제적 부분에 대한 부정적 기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

- 그 요즘에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같은 게 나오잖아요. (웃음) 그래가지고 그거 약간 말할 거 같아요. 너는 뭐, 금수저야 은수저야 흙수저야 이렇게 말하면 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이렇게 할 거 같기도 하고. 좀 그럴 거 같아요. (강원 I)

- 네. 엄마가 딱 뭔가 손을 놓을 것 같아서. 막 용돈도 갑자기 끊을 것 같아서... (대구 D)

(5) 책임과 의무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성인이 되면서 부과되는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뿐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것은 성인기에 대한 부정적 기대로 이어졌다.

- 그 어른이 해야 하는 그 책임..같은 세금을 낸다든지 그런 게 조금 더 부담스러워 질 것 같아요. 매일 때보다. 그런 거 아무 생각 안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대구 A)

-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대구 F)

-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질 거 같아요. 스스로 돈도 벌어야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서울 D)

- 어 일단은 대학교를 가는 게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야 되고 갔다 오면 직장잡고 자취하면 세금 내야 하고 의무가 많아지잖아요 져야 할 의무가. (서울 B)

4)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변화

연구진들은 마지막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중학교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하면 좋을까요?”, “성인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와 같이 아동들이 바라는 변화에 대한 질문들을 연구참여자들에게 던졌다.

(1) 지금보다 더 행복한 중학교 시기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변화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지금 현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변화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학업 부담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공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공부를 강요당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진로탐색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학교 공부 외에 다양한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어른들이 아동들 모두를 공평하게 대우해줘야 하며, 학생들에게 여가나 자유시간을 더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하였다.

① 학업/공부/진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현재 사교육이나 선행학습, 시험 등의 폐지를 통해 학업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어른들이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한편,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재능을 개발하고 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공부에 압박감이 좀 줄었으면. (경기 E)

- 선행학습 같은 게 없다면. (대구 B)

- 무리한 사교육 폐지. (서울 B)

- 시험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서울 E)

- 너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너 들어가서 공부해, 그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말을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강원 I)

- 공부를 잘해야지 나중에 성공해서 행복하다. 꼭 공부를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로 성공할 수 있는데... 굳이 공부가 장래에 안 맞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공부로만 해서 해야 한다. (같은 얘기들을 안 하면 행복해질 것 같다) (대구 F)

-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잘 하는 거나 그런 부분 개발하게 하는 게 조금 더 행복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구 F)

- 각자 가진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 숨겨진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냥 공부, 성적 그런 걸로 다 점수를 매겨버리면...당연히 다른 쪽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죽어버리잖아요. (전남 B)

- 막, 어른들이 직업 차별 같은 거 하잖아요. 막... 막상 막, 요리사나 뭐뭐뭐, 화가 이런 거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러면 어른들이 공부 안하고 공부하기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 전부.. 진짜... 약간 그런... 생각 같은 것을 고쳤으면... (중략) 너는 공부해야지, 약간 저런 거 해봤자... 돈도 못 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전남 F)

- 공부하는 것보다 재능. (충남 A)

- 자유학기제를 아예 실시를 시켜서 전학교를. 그래가지고 자신의 취미생활을 찾고 놀려야. (경기 B)

- 그 책으로 하는 수업이랑 예체능 같은 거랑 비율이 너무 책으로 하는 수업이 비율이 많으니까 그걸 좀 줄여갖고 다른 거 직업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공부만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비율을 좀 맞춰줄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대구 A)

- 친구랑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니까, 학교에서도 살짝 현장 체험 같은 거 많이 나가서 친구랑 놀 수 있는 시간 많이 갖고 쌤이랑도 많이 놀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구 D)

- 직접 할 수 있는 체험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체험이요?) 그냥 관심이나.. 그런 거 잘 맞게 체험... (충남 G)

② 공평한 대우

연구참여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이슈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이들은 현재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들이 모든 아동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부모님은 형제자매들 간에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야 하며, 선생님들은 성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두루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행복하려면 부모님들이 우선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게 평등했음 좋겠어요. (강원 E)
- 엄마아빠들이 (동생과 비교하지 않고) 좀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강원 D)
-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막 친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강원 B)
- 선생님마다 다른데 어떤 한 선생님은 애가 잘하고 성실하니까 애한테만 더 집중을 하고 애한테만 상점을 더 많이 주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관심이 없고요. (강원 G)
- 열심히 하려는 애들이 있고 빈둥빈둥 하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애들을 잘 안 봐주시고 빈둥빈둥 하는데 성적 잘 나오는 애들을 좋게 봐주시니까. (강원 E)

③ 자유시간/여가

자유시간과 여가는 FGI 초반부터 일관되게 제기된 이슈이다. 역시 아동들은 현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이 줄어들거나 등교시간을 늦추는 등 학교에서 지내는 절대 시간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한 학업 시간을 줄여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늘어난다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수업시간을 40분으로 줄여야 된다. (경기 B)
- 저는 등교시간 좀 늘렸으면. (경기 F)
- 우리 수업 하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집중하는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대구 C)
- 휴일에 학원 같은데 안 갔으면. (서울 A)
- 저는 자유시간이 많아지는 거. (서울 H)
- 학교 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수업 시간을?) 네. 뭐라고 해야지? 불...필요한... 뭐라 그러지? 아! 그게 아니라~ 학교 등교시간을 좀 늦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남 A)
- 방과 후 시간에 공부보다는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취미 같은 것... (충남 F)

(2) 성인기에 행복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변화

'성인기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위에 제시한 '더 행복한 중학생 시기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는 다소 모순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학업, 공부, 진로와 관련된 응답을 했지만 그 내용은 행복한 중학교 시기를 보내기 위해 지금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변화와는 상반된다. 즉, 현재의 행복과는 달리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본인들 스스로 공부나 스펙을 쌓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다양한 진로탐색과 취업난 해소를 성인기 행복을 위해 필요한 변화로 들고 있어서, 많은 아동들이 진로 찾기와 취업을 성인기 행복의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여러 가지 능력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공부로 성공 못 하니까 다른 거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구 B)
- 노력.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공부...라든가... 아니면, 봉사...라든가... 그리고... 통지표에 들어가는 것? 그런 거를. (전남 A)
- 각자의 능력을 찾아주는 거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중략) 공부만 중요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직업도 좀 늘려주고. (강원 B)
- 대학을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D)
- 아무래도 취업난을 극복하고, 일단은 그런 거가 있었으면. (경기 A)

한 아동만이 성인기 행복을 위해 지금 필요한 변화로 지금부터 행복해지는 연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대다수의 아동들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견해라고 여겨진다.

- 근데... 막, 성인 때 행복 하려면, 그냥 학생 때부터 계속 행복해야지 성인 때도 행복할 거 같은데~ 학생 때 막 공부 열심히 하다가... 막, 성인이 되면 약간 막... 뭐라고 해야지? 행복한... 덜 행복할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한 법을 연습해야겠네?) 네! 그래 갖고 (저는) 맨날 웃고 다니고. (전남 F)

3. 2차년도 FGI 결과와의 비교: 초등학생(2014)과 중학생(2016)이 말하는 행복

중학교 진학에 따라 행복의 조건이 변이하는 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3차년도 FGI 결과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지난 2차년도 FGI 결과를 비교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년도 FGI는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8개 시도에 거주하는 아동 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이 중 중학교 1학년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 지역 FGI 자료를 제외하고, 기타 7개 지역(경남, 대구, 대전, 서울, 전남, 제주, 충남)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동 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FGI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초등학생 대상 FGI와 중학생 대상 FGI에서 각각 행복의 조건으로 도출된 키워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중학교 진학에 따른 행복의 조건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1) 학업에 대한 부담감 증가 및 양가감정의 경험

중학교 진학 후 아동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급격한 변화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중학생들은 초등학교 시기보다 현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또는 스트레스가 증가한 이유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 초등학교 때는 그냥 학원을 다녀도 그렇게 공부 굳이 잘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막 열심히 해야 되요. (중2, 대구 C)

-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공부에 대한 압박감도 많고. (중1, 강원 G)

사실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들은 현재에 비해 중고등학교 시기가 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이유로 '공부가 어려워짐', '공부 시간이 늘어남', '시험과 성적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 등을 중요하게 꼽았다. 이러한 키워드는 실제 중학생 대상 FGI 결과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초등학생 때 가까운 미래에 대해 막연히 두려워했던 점들이 중학교 진학 이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는 공부도 어려워지고 하는 것도 좀 많아지고 이런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초5, 충남 C)

- 중고등학교 가면은 실력 차이가 드러나니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도 많이 나고, 좀 걱정돼요. (초5, 대전 G)

- 중학교 들어가서 학업 관리도 해야 하고, 고등학교 가려면 정신 차리고 공부도 해야 하고, 고등학교 잘못 가면 인생 망하니까. (초5, 대구 J)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진학 이후 학업 부담감의 변화와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점이 있다면, 학업에 대한 어른들의 압박이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물론 초등학교 시기에도 공부와 숙제에 대한 부모님의 '잔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학교 진학 이후 아동들은 부모, 교사와 같은 주변 어른들로부터 학업에 대한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좀 더 뭐라고... 열심히 하라는 소리도 많이 듣는 편이고... (중1, 전남 C)
- 초등학교 때는 시험 뭐 어느 과목 못 쳐도 그냥 넘어갔는데, 중학교 때는 시험 어느 과목 못 치면 그 선생님이 남기니까, 막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중2, 대구 C)
- 막 어른들 만나면 아 너 이제 중학생이지? 공부 열심히 해. 그냥 덕담처럼 해주시는 말인데 막 진짜 공부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해야 하나? (중1, 강원 D)

더 나아가, 중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들과 달리 주변 사람들이 압박이 없어도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부담감을 크게 갖고 있었다. 또한 공부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현재를 희생해서 하기 싫어도 공부나 무언가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양가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 어차피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공부니까 지금 좀 빨리 하고 나중에 쉬엄쉬엄. (중 1, 경기G)
- 공부를 지금보다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이뤄야 돼요. (중 1, 강원 E)
- 여러 가지 능력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공부로 성공 못 하니까 다른 거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2, 대구 B)
- (초등학교 때도 등수나 이런 거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는데 신경 안 썼어요. (왜 신경 쓰게 됐어요?) 고등학교 갈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서.. 수능 이런 걸 알게 되고. 약간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뭐 이런걸 알게 되니까... 성적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기준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중 2, 대구 A)

2) 여가시간의 절대적 부족

중학교 진학 후 아동이 겪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자유로운 여가 시간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과 '자유롭게 노

는 것'은 행복감과 직결되는 행복의 핵심 조건 중 하나였다.

-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초5, 제주 B)
- 행복한 거요? 어... 축구랑 친구랑 노는 거가... (초5, 경남 A)
- (행복이란) 내가 진짜 뭔가 하고 싶은 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중2, 대구 B)
- 놀 때 제일 행복해요. (중1, 전남 C)

하지만 중학생들은 중학교 진학 후 학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중학생들에게 여가 시간의 감소는 앞서 언급한 학업 부담감에 더하여,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현재 행복하지 않은 주요 이유였다.

- 학원 시간 사이에 자유 시간이 없어요 휴식시간이 없어요. (중1, 서울 B)
- 중학교 들어와서 과외도 다니고 그러니까, 저만의 시간이 부족해서 좀 그래요(행복하지 않아요). (중1, 경기 D)
-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내가 내 의지대로 하면 됐었는데... 중학교 때는 해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다 끝나고 해야 하니까 시간이 좀 없죠. (중2, 대구 A)

중학교 진학 후 여가 시간이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중학생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즉 '실 때', '잘 때', '해방되었을 때' 등을 행복의 주요 조건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키워드는 초등학생 대상 FGI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가 시간이 부족한 중학생들에게 이 같은 휴식 시간이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 저는 그냥 편안하게 쉴 때. (중1, 서울 H)

- 딱 자기 전에 누웠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잘 수 있는 거? (중2, 대구 F)
- 순간 저가 놓아졌을 때. 그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잡혀있는데 순간적으로 잠깐이라도 놓아졌다고, 뭔가... (중1, 강원 G)

3)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감소 및 관계의 질 하락

여가 시간이 줄어든 것과 유사한 양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 역시 중학교 진학 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초등학생에게나 중학생에게 공통적으로 행복의 주요 조건으로 언급되었다.

- 그냥 (가족과) 같이 있으니깐 좋은 느낌이 들어요. (초5, 경남 E)
- 가족끼리 모여 갖고... 뭐 밥상 차릴 때 (아이들 웃음) 그러거나 아니면 같이 어디 뭐 영화나 (...) 하러 나갈 때 (행복해요). (초5, 대전 C)
- 저는 (가족과)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요. (중1, 충남 E)
- 가족하고 여가 생활 같은 거 보낼 때. (연구자: 어떤?) 여행이라든가 영화 본다든가 할머니네 집 간다든가. (중1, 서울 A)

특히 초등학생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부모님이 일찍 귀가하여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 아빠가 가끔씩 집에 늦게 들어오시거나, 안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맨날 들어와서 맨날 일찍 들어와서 저희랑 같이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초5, 전남 D)
- 어린 아이들은요, 외로움을 좀 잘 느껴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어른들은 늦게까지 이렇게 막 회사에 잡아놓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가족들하고 같이 오래 있을 수 있게. (초5, 대전 G)

그러나 아쉽게도 중학교 진학 후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모가 더 바빠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동 자신이 학업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들은 이러한 변화를 현재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하였다.

- 저는 (중학교 올라와서 가족과 시간이) 거의 없어졌어요. 학원 때문에. (중1, 충남 F)
- 초등학교 땐 집에 시간 많아서 가족들이랑 얘기하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다가 있다고 해도 숙제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니까 가족들이랑 얘기를 안 해서. (중1, 서울 C)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감소한 것에 더하여, 중학교 진학 후 부모의 관심사가 아동의 학업에 집중되면서 가족 관계의 질 또한 하락한 경향을 보였다.

- 초등학교 때는요, 가족이랑 이야기 하는 주제가 되게 일상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중학교 때랑 나의 학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늘어나고 일상적인 얘기는 별로 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은 잔소리하고 나는 나대로 짜증나고. (중2, 대구 A)
- 이제, 제일 큰 게 학업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중1, 전남 E)

4) 친구 관계에 있어서의 역동 변화

친구 관계의 중요성은 초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에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게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행복한 학교 생활의 필수 조건이었으나, 친구 관련 응답은 초등학생보다 중학생들에게 더욱 자주 관찰되었다.

- 학교에서 유일하게 신나고 즐거움을 느낄 때가 친구들과 놀 때. (초5, 대전 G)
-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떠들 때. (중1, 충남 F)
-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놀 때 친구들이랑. (중1, 서울 A)

또한 초등학생들은 단순히 친구들과 '놀 때' 행복하다고 응답했으나, 중학생들에게는 친구 관계의 질이 보다 더 중요해졌다.

- 친구가 비위 맞춰줄 때 (행복해요). (중1, 경기 I)
- (친구와) 근데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되고, 공감해줄 때. (중1, 충남 A)

친구 관계가 중학생들의 행복감과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배경에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는 점, 친구 관계가 이전 시기보다 복잡하고 미묘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중학교 진학 후 새로운 친구들과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경우 행복감을 느끼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올라오자마자 친구들부터 바뀌었잖아요. 예전보다 아는 애들도 초등학교보다 많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좀 서먹서먹하고. (중2, 대구 C)
- 초등학교는 아는 애들끼리 있었는데 중학교 올라오면 합쳐지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와서. 친구 문제도 좀 많이 생기거든요 중학교 올라오고 초췌에. (중1, 강원 D)
- 그... 그냥 친구 관계 그런 게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초딩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끼리 무턱대고 놀고 그랬는데, 중학생 때는... 이제, 좀, 갈등도 더 많이 생기고~ 막, 따돌림이나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돼요. (중1, 전남 E)
- 뭔가 친구들 사이에 진입장벽 같은 게 조금 생겼다. 초등학교 때 친하던 애들끼리, 같이 끼리끼리

리 문쳐서. (중1, 경기 B)

한편, 친구 관계와 관련해서 초등학생 대상 FGI에서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중학생 대상 FGI에서 도출된 키워드는 '외모' 였다. 외모에 대한 언급은 주로 여학생들에게 관찰되었는데, 중학교 진학 후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 자체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외모와 관련된 또래 압력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초등학교 때는 거울도 안보고, 선크림도 안 발랐는데요. 중학생 돼서 막 거울도 많이 보고 외모 관련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2, 대구 D)

- 저는 화장을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애들이 거의 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분위기 같은 게 있는 거 같아요. (중1, 강원 F)

- 저 친구한테도 어떤 애들이 와서 너 치마 줄일 거냐고 이번에 올라오는 애들 기세서 너 줄여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1, 강원 B)

- 그리고 그런 거. 나는 이 옷은 괜찮은데 다른 애들은 이상한 거 같다고 그럴 때. (중1, 강원 I)

5) 지역사회 환경 및 물질적 조건에 대한 중요도 감소

친구 관계의 중요성은 초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에 증가한 반면, '동네'라 불리는 지역사회 환경의 중요성은 오히려 초등학생에게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놀이터'는 동네 환경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로 도출되었지만, 중학생 대상 FGI에서는 놀이터에 대한 언급이 전무했으며, 동네 자체에 대한 언급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 전 여기 근처예요 놀이터가 있어서요. 뭐 일찍 나오면 놀고 가도 되고 좋아요. (초5, 대전 G)

-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라서 경비아저씨고 있고, 애들이랑 많아요. (초5, 전남 D)
- 놀이터를 크게 만들어서 좀 더 뛰어 놀 수 있게 한다던가 (했으면 좋겠어요). (초5, 대구 C)
- (동네에) 놀 곳이 많아요. (연구자: 어디?) 친구 집. (중1, 충남 D)

물질적 조건 역시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에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돈'을 행복의 주요 조건 중 하나로 꼽으면서,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행복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중학생들은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이 성장할수록 물질적 조건을 더 중요시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는 다소 상반되는 것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돈 생길 때 (행복해요). (초5, 서울 B)
- 일단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어요. (초5, 제주 B)
- 전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 빚을 다 갚아줄 수 있으니까. (초5, 충남 B)
- 돈 많아지면 부모님 모시고 그냥 세계 곳곳 다니고. (초5, 서울 E)

6) 성인기 행복에 대한 현실적 전망

초등학생 집단과 중학생 집단 모두 성인기 행복에 대해 낙관하는 아동도 있었고 비관하는 아동도 있었다. 성인기 행복에 대한 전망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에 발견된 주요한 차이점은 초등학생들은 '꿈'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중학생들은 '취업', '직장'과 같은 현실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먼저, 초등학생들은 어른이 되어 꿈

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고 꿈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생각했던 것을 자신의 꿈을 직접... 목표를 이룰 때. (충남 A)
- 가지고 싶은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요). (전남 E)
- (만약)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서... 좀 힘들고. (충남 C)

반면, 중학생들은 성인기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꿈'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학 생활, 취업, 직장 생활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미래를 전망했다.

- 대학교 들어가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야 되고 갔다 오면 직장 잡고 자취하면 세금 내야 하고 의무가 많아지잖아요 저야 할 의무가. (중1, 서울 B)
- 미래를 생각하니 답답해서요. (연구자: 왜요?) 취업률이 나빠져서. 저희 때 딱 가면 취업이 정말 어렵대요. 큰일날 거 같아요. (중1, 경기 I)
-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이 있는데 만약에 성적에 따라서 좋은 직장을 갈수 있고 나쁜 직장에 갈수 있는데 만약에 그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안 좋은 직장에 가면 뭔가 좀 우울하게 지낼 거 같아요. (중1, 강원 G)
-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중2, 대구 B)

4. FGI 소결

이번 FGI는 중학교 진학에 따라 아동들의 행복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한국의 중학생 아동들이 행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하

는 "중학교 진학에 따른 행복한 조건과 행복하지 않은 조건의 변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조건과 행복하지 않은 조건이 무엇인지, 이러한 조건들이 중학교 진학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는지, 성인기에는 더 행복해질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지, 그리고 현재와 성인기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아동들은 중학교 진학에 따른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에 대해서 고르게 답변했으나,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결정권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엿한 한 사람으로서 대접해준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 그리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 및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고, 이는 '개인적 성장에 대한 만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한편 부정적인 변화는 크게 '학업 스트레스의 증가'와 '자유시간의 부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에 비해 절대적인 학습시간이 증가했고, 스스로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학업에 대해 강요함으로써 압박감이 커졌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부족해졌다는 것은 모든 지역과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자유시간의 부족은 아동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친구와 만나 놀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화가 단절된다는 점,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어 서로 갈등이 생긴다는 점 등도 주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던 FGI 결과와의 비교에서도 잘 드러난다. 초등학생들이 단순히 숙제가 많다거나 공부하기 싫다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비해, 중학생들은 시험 성적에 대한 부담, 그로 인한 진학 문제, 주위의

압박 등 학업스트레스의 정도도 강해 보였고 스트레스의 원인도 보다 다양했다. 이러한 학업의 부담감은 아동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학업 부담감이 커지면서 자유시간 및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부모님과의 대화도 학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관계의 질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모두 자유시간 및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여겼지만, 중학생들이 시간 부족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고 자유시간에 대한 갈망을 더 강하게 보였다.

그렇다면 아동들이 중학생 시기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유시간을 증가시키면 되는 것일까?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듯하다.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말하는 '학업 스트레스'는 단순히 학습량이 많고, 주위에서 부담을 줌으로써 느끼는 외적인 압력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학업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진로고민 등 내적인 요인들도 함께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들의 고민은 우리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취업난, 그 속에서 본인들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 중학생 아동들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치열한 경쟁과 경쟁에서 탈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내재화하고 있었으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기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거나, '안 좋은 직장에 가면 우울할 것 같다'고 조건부 행복을 예상하고 있다.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성인기 행복을 위해 지금 필요한 변화'에 대한 아동들의 응답은 아동들이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을 교환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즉, 아동들은 지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앞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러

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순된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이러한 중학생들의 첨예한 현실인식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아동들을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본다. 실제로 아동들은 어른이 되면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돈을 벌어서 쓰고 싶은 데에 쓸 수 있고, 간섭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성장하면서 직업을 갖거나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뿌듯함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이나 가족부양 등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 취업에 대해 걱정한다는 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인 부담 등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함으로써 현실의 만만치 않음에 대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성인기 행복에 대해서 "꿈"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 반면, 중학생들은 "취업", "스펙"과 같은 현실적인 단어로 미래를 묘사했다.

그렇다면 아동들의 행복은 단순히 '학업시간'을 줄이고 '자유시간'을 늘리는 것으로는 증진하기 어렵다. 당장 놀더라도 학업에 대한 양가감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그 순간을 충분히 즐기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가감정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몇몇 아동들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의 중학생들은 공부를 덜하는 만큼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 고생하게 될 것이라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로 인해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 여전히 학업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그렇다면 아동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 우선

⁶ FGI가 실시된 시기는 2016년 2월로, 연구참여자들이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것은 2015년 1학기였다. 이때는 일부 중학교들만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 중이었다.

아동들은 공부 외에 다양한 진로를 인정해주고, 보장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였다. 아동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 외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업성적이 다소 떨어지거나 공부를 싫어하는 아동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전국의 중학교에서는 2016년부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가 명목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정말로 아동들이 다양한 진로를 보장받기 위한 체험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건 여전하다. 체험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여 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아동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경쟁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가 없이 자유학기제가 도입된다면 아동들은 지금처럼 자유학기제 안에서도 계속해서 경쟁에서 뒤쳐질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므로 이 정책이 아동들의 행복도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투자하는 절대 시간을 줄이고 아동에게도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많은 아동들이 학업시간으로 인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으며, 잠이 부족하고 늘 피곤하다고 이야기했다. 적정한 수면시간의 확보는 아동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아동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시간'의 확대를 통해 아동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친구

와의 놀이, 취미활동과 독서 등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아동들이 행복을 느끼는 주요한 원천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사용에 있어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아동이 '현재' 느끼는 행복을 증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변화 및 사회적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선택에 따른 차이와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들은 공부가 아니라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때, 그리고 설령 자신의 시도가 실패하거나 경쟁에서 탈락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수준이 보장되는 안정된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을 둘러싼 성인들, 즉 부모와 교사들 또한 아동기를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동기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기에 보내는 시간의 질과 아동기 행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전제되어야만 아동들은 미래를 보다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에 대한 탐색을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며,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는 동시에 현재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제3부. 아동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위한 제언

□ 한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의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1.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진로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함

- FGI 결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행복이 급감하는 주요 원인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많이 언급되었음.
-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단순히 현재의 학업이 힘들다거나, 주위 어른들이 공부를 하라고 부담감을 준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임. 아동들은 경쟁적인 사회시스템을 이미 내재화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현재의 행복을 희생해서 미래를 위해 '스펙'을 준비해야 한다는 진로에 대한 압박, 현재 자신이 공부를 잘 하지 못하므로 미래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등을 함께 느끼고 있었음.
- 따라서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업시간을 줄이거나 사교육 등에 대한 제제 차원을 넘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현재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등이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경쟁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전제되어야 함. "성적이나 대학 수준으로 줄 세우기 식 미래"가 아니라 각자 적성과 능력에 맞게끔, 다양한 진로가 대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함.

2. 아동들의 여가 및 자유시간을 보장해 줘야 함

- FGI에서 아동들이 행복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언급했던 내용이 "자유"와 "여가시간"이었음. 많은 아동들이 학업 시간으로 인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음. 또한 잠이 부족하고 늘 피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음.
- 실제로 통계청(2014)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10대들의 평균 학습시간은 6시간이 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일주일 단위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성인의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웃도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습시간으로 인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시간이 침해되는 것은 아동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자유시간의 확대를 통해 아동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친구와의 놀이, 취미활동과 독서 등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음. 따라서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학습시간을 줄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여가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함.

3.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양적 증가와 가족관계의 질적 변화가 필요

-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행복의 공통된 조건임. 그러나 조사대상 아동들은 중학교 진학 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감소하였다고 공통된 응답을 하였음.
- 아동들 역시 행복감 감소 이유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것을 이야기함. 이처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감소와 더불어 중학교 진학 후 부모의 관심이 아동의 학업에 집중됨으로써 가족관계의 질 또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결국 아동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함.
-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임. 노동시장의 관행은 부모를 늦게까지 일터에 머물게 하고, 교육체계의 관행은 아이가 오랫동안 학교에 머물거나 학원을 순회하며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함. 즉,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족관계의 변화는 힘들며, 정책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이 가족존중을 미덕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성찰적 변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부모의 노동시간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정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부모가 적극적이고 유동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여 아동의 양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를 확산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함.

- 또한 단순히 아동들은 가족과 보내는 절대적 시간의 감소뿐 아니라, 부모의 관심이 아동의 학업에 집중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는 등 가족관계의 질 또한 하락한다고 응답하였음.
- 당장의 경쟁적 교육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부모들이 아동들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는 개인적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것임. 연구에서 중학생들이, 가족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고, 공부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려주는 태도를 가져준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대답한 것이 중요한 힌트가 될 것임.
- 이러한 점을 토대로, 부모들은 아동들이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여 공부하도록 독촉하는 태도보다는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고 그 감정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부모들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해줄 수 있게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아동들의 삶의 질과 행복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

-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16개 시도에 살고 있는 아동의 삶의 질(well-being)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음. 현재 아동청소년 정책에 관련한 투자의 분배가 불균형하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
- 아동의 삶의 질은 지방 재정자립도, 사회보장 지출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아동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임.
- 이에 대한 해소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우선되어야겠지만, 재정자립도

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함. 지역 간 격차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 치부할 경우 아동의 삶의 질 격차는 더욱 더 심각해 질 것임. 특히, 농촌이나 중소도시와 같이 비교적 인구밀도가 낮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아동의 삶의 질에 관련하여 아동복지 예산의 중앙정부 환원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은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의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5.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른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 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

- 현재 정부에서는 「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15-2019)」을 통해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연구에서 총 3번의 조사를 통해 아동들의 삶의 질을 살펴본 결과 그 동안 한국 아동들의 삶의 질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특히 아동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복감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의 행복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5개년 계획에서는 아동들의 권리 보장이나, 안전에 대한 보장,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는 매우 취약한 상황임. 또한 제한된 예산을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에 따라 한 프로그램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증거기반 정책들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풍부하게

예산을 지원하여 사회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함.

-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이 잘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번 FGI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음.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하여 현재의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없었으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도 이러한 불안함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따라서 아동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안전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6. 농어촌 지역 거주 아동들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새로운 대안 마련이 시급함

- 이 연구에서 아동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에서, 농어촌 지역의 아동들이 대도시 지역 거주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특히,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다른 영역들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관계적인 측면과 바람직한 인성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즉,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그동안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특수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해 개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음. 특히 농어촌 지역 아동들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나 논의는 매우 드문 상황임. 따라서 농어촌 아동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지금까지의 아동복지 인프라는 아동인구에 비례하여 구축되었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이러한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며, 질적으로도 양질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 자원에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전달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예를 들어, 학교나 마을회관을 기반으로 한 찾아가는 서비스, 유능한 인력의 취약지역 유인을 위해 학자금 대출과 연동한 인력 파견 프로그램 (예: 미국의 AmeriCorps)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7. 아동 삶의 질과 행복도 증진을 위한 방안은 아동의 시각과 목소리에 기반해야 함

-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아동들은 그동안 자신의 행복에 대해 물어본 어른들은 없었고 응답하였음.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흥미로워하였으며, 자신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과 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무척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음.
-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는 왜 아이들이 인생에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지에 관심이 없었는가? 우리는 왜 아이들이 국어·영어·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만 궁금해하였는가? 혹시 우리 사회의 편향된 관심이 똑똑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을 양산해 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경제 발전에 비해 행복하지 않은' 우리 어른들로 성장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아동기의 행복"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시점임.
- 최근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도 아이들의 행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적 계획과 정책을 운용 중에 있음. 이는 분명 바람직한 변화임.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 행복을 묻기 보다는 학업성적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는 그대로이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질 않음.
- 우리는 개개인의 아동들은 자기 스스로의 행복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함.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시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기반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그 시작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유쾌하고, 얼마나 불쾌한지에 대해 세세하게 묻고,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개선하는 것임.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정책보고서.

행정자치부(2016)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비중(시도)". 2016.07.22 검색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01&conn_path=I2

행정자치부(2016) "재정자립도". 2016.07.22 검색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7901&conn_path=I2

통계청(2014). "학생의 학교급별 평균시간". 2016.07.22 검색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TM1034Y&conn_path=I2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2016. 8

- 책임연구원**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구원**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재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Joan Yoo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구보조원** 유민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창용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이주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김윤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박호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문의** 유민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02-880-6320, yms04@snu.ac.kr)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팀장, 02-6900-4420, chungman.je@sc.or.kr)